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11009-000000083994

권 내 현 교수지도
석 사 학 위 논 문

하멜의 조선 체류에 대한 역사교과서 서술과 학생들의 인식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김 경 아

2019년 1월 4 일

김경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완료함

2019년 1월 4 일

위원장 권 내 현 (인)

위 원 조 영 헌 (인)

위 원 송 양 섭 (인)

목 차

Ⅰ.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5

Ⅱ. 17세기 중엽 하멜의 조선 체류와 그 기억

1. 17세기 중엽 조선의 대외 관계와 서구와의 만남 ····· 12
2. 하멜의 조선 생활과 『하멜보고서』의 조선국 기술 ····· 23
3. 하멜에 대한 기억과 기념 ····· 36

Ⅲ. 하멜 관련 현행 역사교과서 서술 분석

1. 중학교 『역사』 교과서 서술 분석 ····· 40
2.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서술 분석 ····· 44
3.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서술 분석 ····· 48

Ⅳ. 하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

1. 수업 전 인식 분석 ····· 59
2. 하멜 관련 수업의 실시 ····· 61
3. 수업 후 인식 분석 ····· 67

Ⅴ. 하멜에 대한 교과서 서술 개선 방안 ····· 70

Ⅵ. 맺음말 ····· 85

Ⅶ. 참고 문헌 ····· 90

※ 별첨 ····· 98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표 목차>

<표1> 『하멜보고서』의 해외 주요 출간 이력(17~20세기) ····· 7
<표2> 『하멜보고서』에 나타난 1666년(현종 7) 나가사키 총독의 질문 내용 분석 ····· 20
<표3> 하멜 일행의 탈출 시도 ····· 31
<표4> 『하멜보고서』의 '조선국 기술' 내용 분석 ····· 32
<표5> 중학교『역사』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구체적인 목표 ····· 40
<표6> 하멜 관련 중학교『역사』교과서 단원명(Ⅵ단원만) 비교 ····· 41
<표7> 하멜 관련 중학교『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비교 ····· 42
<표8> 하멜 관련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 단원명(Ⅲ단원만) 비교 ····· 45
<표9> 하멜 관련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비교 ····· 46
<표10> 하멜 관련 고등학교『동아시아사』교과서 단원명(Ⅳ단원만) 비교 (2011 개정 교육과정) ····· 49
<표11> 하멜 관련 고등학교『동아시아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비교 (2011 개정 교육과정) ····· 51
<표12> 고등학교『동아시아사』2011, 2015 개정 교육과정 성격과 목표 비교 ····· 53
<표13> 하멜 관련 고등학교『동아시아사』교과서 단원명(Ⅲ단원만) 비교 (2015 개정 교육과정) ····· 53
<표14> 하멜 관련 고등학교『동아시아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비교 (2015 개정 교육과정) ····· 55
<표15> 하멜 관련 현행 역사 교과서 서술 내용에 대한 요약 비교 분석 · 56
<표16> 하멜 관련 수업 지도안(약식) ····· 61
<표17> 계열성에 근거한 하멜 관련『역사』및『한국사』교과서 서술 내용 제안 ····· 82
<표18> 하멜 관련『동아시아사』교과서 서술 내용 제안 ····· 82
<표19> 고등학교 『한국사』2011, 2015 개정 교육과정 '조선 시대' 내용 체계 비교 ····· 84
<표20> 고등학교 『한국사』2015 개정 교육과정 '조선 시대' 성취기준과 학습요소 ····· 84

<그림 목차>

<그림1> 강진 전라병영성의 하멜기념관 ····· 37
<그림2> 여수 하멜전시관과 하멜 등대 ····· 38
<그림3> 제주 하멜상선전시관과 기념비 ····· 39
<그림4> 하멜 관련 역사 수업 학습지 ····· 64

Ⅰ.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각국은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만 명[1]을 돌파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한국계 포함), 베트남, 미국,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다양한 이주민들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들과 어우러져 살며 다인종 · 다민족 사회로 변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외국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졌을까? 그 역사는 오래되었다. 선사시대부터 북방 민족과의 접촉, 가야에 온 인도의 허황옥, 신라에 온 이슬람 상인 처용 설화, 고려에 온 후주의 쌍기 등 각 시대별로 이방인들의 유입으로 교류가 이어져 왔다.

조선 시대에도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조선을 찾았는데, 조선은 그들을 向化人, 皇朝人, 降倭 등으로 불렀으며, 현재적 의미로 歸化人이다.[2] 여진족의 李之蘭, 명의 賈維鑰, 항왜 사야가(조선이름 : 金忠善),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이(Jan Jans Weltevree, 조선이름 : 朴燕, 朴延, 朴淵[3]) 등이 대표적이다. 귀화인들은 지금까지 후손을 둘 정도로 번성한 가문도 있다.[4]

---

1) 2016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49,441명으로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3.96%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출입국 · 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 2016년.

2) 조선 시대 向化人은 野人(대부분 여진족)이나 왜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조선에 귀화한 경우가 많았다. 皇朝人은 멸망한 명나라 漢族 유민들로 향화인에 비해 대우가 좋았다. 降倭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중에 조선에 항복하여 조선을 위해 싸운 일본인들을 부르는 명칭이다. 귀화인들에 대한 대우는 관직 除授, 생계에 필요한 생활물자 제공, 기타 혼인을 시키거나 姓과 貫鄕을 주기도 하였다. 이원택, 「조선전기의 귀화와 그 성격」,『서울국제법연구』8-2, 서울국제법연구원, 2001, 226~237쪽.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기획, 『한국사 속의 다문화』, 도서출판 선인, 2016, 102쪽.

3) 박연의 한자 이름은 朴燕, 朴延, 朴淵 등 사료마다 다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朴燕', 『知瀛錄』에서는 '朴延'으로 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실록 표기대로 따르되 인용문에서는 원문 표기를 그대로 사용한다.

4) 靑海 李氏의 시조는 李之蘭으로 후손은 3,713 가구에 약 12,002명, 蘇州 賈氏의 시조는 賈維鑰으로 후손은 2,824가구 약 9,090명, 賜姓 金海 金氏(友鹿 金氏)의 시조는 金忠善으로 후손은 59,880 가구(友鹿 143가구)에 약 199,544명(友鹿 468명)을 두고 있다. 통계청,『인구총조사』, 2000년. ; 박기현,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 역사의 아침, 2007, 92~135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그렇지만 뜻하지 않게 낯선 나라에 표류하였다가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5] 그 중에서 조선에서 무려 13년 28일 동안 체류하고 탈출을 감행하여 본국으로 간 서양인도 있었다. 바로 효종~현종 연간(1653~1666)에 조선에 표류한 네덜란드 사람 헨드릭 하멜(Hendrick Hamel)이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무역선 스뻬르베르(Sperwer) 호[6]는 바타비아(자카르타)를 출발하여 대만 해협을 거쳐 일본 나가사키로 항해 도중에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1653년(효종 4) 8월 16일 새벽 제주도에 난파하였다. 이 배에 탑승했던 64명의 선원 중에서 36명이 구조되었는데, 그들 중 서기직의 하멜이 있었다. 이들은 제주도에서 서울(한성)로, 다시 康津 전라병영으로 그리고 麗水(=新城) 전라좌수영, 順天, 南原 등지에 분산 배치되면서 갖은 고초를 겪다가 1666년(현종 7) 9월 4일 하멜을 포함한 8명이 일본으로 탈출에 성공하여 9월 14일 나가사키에 도착하였다. 하멜 일행은 일본에서 약 1년을 지낸 1667년(현종 8) 바타비아로 출항할 수 있었으며 하멜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1668년(현종 9)에 본국에 도착하였다. 하멜은 다시 1년 뒤인 1669년(현종 10) 조선에 잔류했던 7명과 합류하여 1670년(현종 11)에 본국으로 돌아갔다.[7]

하멜 일행이 조선에 왔던 17세기는 서양과 동양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당시 유럽 각국은 동인도회사를 통해 아시아로의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 특히,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물리치고 신흥 강국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明과 淸의 교체라는 큰

---

5) 표류인으로는 일본인, 중국인, 대만인, 安南人(현재 베트남인), 류큐인(流球人 : 현재 오키나와인), 呂宋人(현재 필리핀인)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백인 및 흑인 등이 표류해 온 적도 있었다. 대부분은 단기간 조선에 표류하였으며 중국 또는 일본을 통해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6) 하멜이 탄 배의 이름은 네덜란드어로 '새매'라는 뜻을 가졌으며, 책마다 여러 가지로 표기되고 있다. '스페르웨르(Sperwer) 호'(김태진, 『하멜일지 그리고 조선국에 관한 기술 1653~1666』,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스페르버르(Sperwer) 호'(지명숙 · 왈라벤, 『보물섬은 어디에(네덜란드 공문서를 통해 본 한국과의 교류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스뻬르베르(Sperwer) 호'(유동익, 『하멜보고서』, 중앙 M&B 출판(주), 2003.), '스페르웨르 호'(정재정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지학사, 2014.) 등이다. 본고에서는 네덜란드어판 번역본인 유동익이 2003년에 발간한 『하멜보고서』에서 사용한 '스뻬르베르(Sperwer) 호'를 따르기로 한다. 단, 인용문에서는 원문에서 사용한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7) 김태진, 앞의 책, 124~129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격변기를 맞으면서 漢族에 대한 이민족의 승리를 통해 초래된 세계관의 혼란은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 일본 등 주변국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처럼 같은 시기에 비슷한 패권 경쟁을 겪고 있던 동서양은 상업적 이익과 종교적 열정을 앞세운 모험가들을 통해 따로 발전해 오던 각자의 문명이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8)]

이러한 때 조선에 우연히 표류하게 된 하멜은 탈출 이후『하멜표류기』를 쓰게 되었다. 이것은 1653년(효종 4)부터 1666년(현종 7)까지 조선에서의 삶에 대해 日誌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하멜의 원본에는 조선에 대한 정보를 일지와 분리해서 쓰지 않았지만[9)] 출판업자에 따라 '日誌'와 '朝鮮國記述'(또는 '朝鮮王國記')이라는 2개의 다른 장르로 분리하여 출판하였다.[10)] 이것은 자신의 경험담으로 생존 기록을 쓴 단순한 표류기가 아니라 네덜란드 동인도연합회사(=VOC) 직원이었던 하멜이 조선에 표착하여 체류했던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쓴 일종의 보고서였다.[11)]『하멜보고서』는 당시 유럽에서 다양한 언어로 여러 가지 판본이 출판되면서[12)] 서양인들의 조선에 대한 호기심을 높였다.

『하멜표류기(하멜보고서)』가 한국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

8) 문중양 · 염정섭 · 오상학 · 이경구 · 한명기,『17세기-대동의 길』, 민음사, 2014, 27쪽.

9) 정희숙, 『하멜보고서』의 편집디자인-다르게 읽기를 제안하는 페이지의 시각적 형식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논문, 2017, 91쪽.

10) 지명숙,「하멜 일행의 한국 체류, 적응 및 이해」,『동방학지』122,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53쪽.

11) 본고에서는 『하멜표류기』보다는 하멜이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쓴 문서이므로『하멜보고서』로 표기하도록 한다. 단, 인용문에서는 원문에서 사용한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12) 『하멜보고서』의 원제목은 판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김태진의 책에는《야하트船 데스페르웨르 호의 생존 선원들이 꼬레왕국(조선)의 지배하에 있던 켈파르트섬(제주도)에서 1653년 8월 16일 난파당한 후, 1666년 9월 14일 그중 8명이 일본의 나가사키(長崎)로 탈출할 때까지 조선에서 겪었던 일 및 조선백성의 관습과 국토의 상황에 관해서-네덜란드령 인도총독, 요한·마짜이케르 각하 및 평의원 제위 貴下》로 기록되었다(김태진, 앞의 책, 14쪽.). 지명숙 · 왈라벤의 책에는《상선 스페르버르(Sprewer:[새매]) 호가 (코레이(Coree) 왕국 관할하의) 퀠파르트(Quelpaert) 섬[제주도]에 조난당한 1653년 8월 16일부터 그 일행 중 여덟 명이 탈출하여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한 1666년 9월 14일까지 이 난파선의 생존 승무원과 평선원들이 이 왕국에서 경험한 바에 대한 보고서 및 이 나라 정세와 지리에 관한 부록》으로 기록되었다(지명숙 · 왈라벤, 앞의 책, 191~196쪽.). 그러나 유동익의 책에는 1668년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에서《스페르베르 호의 불행한 항해 일지(Journael van de Ongeluckige Voyagie van't Jacht de Sperwer)》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고 쓰고 있다(유동익, 앞의 책, 12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해방 후 역사 교과서에 책 이름이 소개되면서부터였다.[13] 따라서 하멜이라는 이름에 대해 모르는 한국인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현재 학교에서는 하멜의 조선 체류와 『하멜보고서』에 대해 흥미 위주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으며, 교과서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서술되거나 아예 없는 것도 많이 있다.

하지만 17세기 중엽 하멜의 조선 체류와 『하멜보고서』는 그 당시 조선과 일본, 서양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365년이 지난 지금 하멜에 대한 기억은 여러 곳에서 기념되고 있다. 2002년에는 한 · 일 월드컵을 통해 활약한 히딩크 감독의 고향 네덜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03년에는 하멜 표류 3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려 관련 외국 학자들의 방문과 학술 교류가 이루어졌다.[14] 하멜이 머물렀던 제주도, 강진, 여수 지역에는 하멜 기념관, 전시관, 기념비 등이 건립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는 다양한 문화 간 소통의 역사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는 다인종 · 다민족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15] 따라서 주류 사회의 기록만이 아니라 소수자, 여성, 피지배계급 등에 의한 미시사가 다양하게 서술되어야 한다.[16]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한국사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족과 문화적 소수자의 존재를 발굴하고 이들의 공헌에 대한 서술을 교과서 내용에 삽입 · 수정해야 한다.[17] 또한 한국사가 전근대에는 동아시아사 차원에서, 근대 이후에는 세계사적인 맥락 속에서 전개되었다면, 한국사는 동아시아사 및 세계사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서술되어야 한다.[18] 이러한 관점에서 하멜의 교과서 서술에 대해

---

13) 강준식, 『다시 읽는 하멜표류기』, 웅진지식하우스, 2007, 8쪽.

14) '제주, 하멜 350주년 특별전', 연합뉴스, 2003년 7월 31일자. 국립제주박물관에서 '항해와 표류의 역사'를 주제로 8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 '하멜표류 350주년 기념 세미나', 연합뉴스, 2003년 9월 24일자.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주최 국제 학술대회가 9월 26일에 열렸다.

15) 김기봉, 「다문화 사회의 한국인 정체성과 한국사 다시 쓰기」,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동녘, 2009, 55쪽.

16) 김현덕,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국제이해교육의 역할」,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동녘, 2009, 116~137쪽.

17) 김현덕, 위의 논문, 138쪽.

주목하였다.

이에 본고는 현행 역사교과서 분석을 통해 17세기 하멜의 조선 체류와 『하멜보고서』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하멜의 조선 체류의 의미와 생활 모습을 파악하면서 『하멜보고서』의 사료적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이후 2011, 2015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하멜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하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파악을 위해 실제 수업을 해보고 실시 전후의 변화 양상을 비교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역사교과서 서술 개선 방안을 인물 학습, 사료 학습과 연결지어 살펴본 후, 국사교육 系列化[19]에 입각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국사교육의 계열화는 학습내용의 체계적 구성과 함께 학교 급별 수업 실천에도 관련된다.[20] 이를 통해 조선 시대 표착한 서양인에 대한 역사 교육의 필요성과 교과서 서술 개선 방향 및 수업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먼저 하멜의 조선 표착에 대한 17세기 당시의 국내외 기록을 살펴보도록 한다. 조선측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과 같은 공식 문서와 『석재고』[21], 『청장관전서』, 『접왜사목초록』, 『지영록』[22], 『연경재전집』[23]등이 있어 부분적인 기록을 찾을 수 있다.[24]

---

18) 김기봉, 앞의 논문, 55쪽.

19) 이병희, 「중 · 고등학교 국사교육 내용의 계열화」, 『역사교육』 76, 역사교육연구회, 2000, 126~131쪽.

20) 방지원, 「역사교육 계열화의 개념과 원리」, 『역사교육연구』 3, 한국역사교육학회, 2006, 11쪽.

21) 정조 때 문신인 碩齋 尹行恁(1762~1801)이 쓴 시문집이다. 윤행임은 문과에 급제하여 초계문신이 되고 규장각직각, 비변사 제조 등을 지냈으며 시파로써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나 순조 때 유배되어 사사되었다.

22) 『知瀛錄』(1696)은 숙종 때 제주 목사를 지낸 冶溪 李益泰(1633~1704 : 재임 1694~1696)가 지은 한문 手稿本이다. 책의 후반부에는 孝宗, 顯宗, 肅宗 시대에 제주 해역에서 발생했던 중국인, 네덜란드인, 일본인 등 외국인의 표류 상황을 적은 14가지의 표류기록이 들어 있다. 이 표류기록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하멜 표류기에 관한 西洋國標人記의 대목이다. 원종민, 「『지영

『하멜보고서』의 해외 출간은 하멜이 네덜란드로 귀환하기 2년 전인 1668년에 이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서 출판되어 유럽인들에게 미지의 나라인 조선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그리고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유럽어로 번역되어 유럽인들이 한국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다.[25] 1668년 암스테르담에서 최초로 발간된 벨센 판에는 하멜의 일정만 언급되었으나 로테르담에서 발간된 스티히터 판에는 '조선왕국'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1669년~1670년에 출판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아그만 판에는 조선과 무관한 악어와 코끼리 삽화가 삽입되었고 동남아시아의 어떤 왕의 식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흥미를 높였지만,『하멜보고서』의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하였다.[26] 하멜이 귀환 전에 서둘러 다양한 책이 출판된 이유는 당시 네덜란드가 강력한 해양 국가로 부상하면서 항해와 모험 소설에 대한 인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27]

특히, 주목할 것은 1920년에 네덜란드에서 발간된 후팅크(B.Hoetink) 판이다. 이것은 제일 처음으로 초기 출판본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하멜의 원고를 가장 충실하게 편집했으며, 여러 가지 문헌적인 자료들을 참조하여 주석을 덧붙였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는 판본이다.[28] 그리고 1971년 미국의 게리 레드야드(Gary Ledyard)는 후팅크 판을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하멜보고서』의 해외 주요 출간 이력은 <표1>과 같다.

록』을 통해 본 외국인 표류상황과 의사소통 과정」,『중국연구』48,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0, 95쪽.

23)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硏經齋 成海應(1760~1839)의 총서 전집이다. 성해응은 규장각 검서관, 음성현감 등을 지냈으며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 북학파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학문적 바탕을 이루었다. 56~61권은 筆記類로 蘭室譚叢 390편이 실려 있는데 西洋舶조에 하멜과 벨테브레이의 이야기가 나온다.

24) 정희숙, 앞의 논문, 87~91쪽.

25) 정성화,「하멜보고서의 서지적 해설」,『하멜보고서』, 유동익, 중앙 M&B 출판(주), 2003, 115~120쪽.

26) 정성화, 위의 논문, 2003, 115쪽.

27) 정성화, 위의 논문, 2003, 117쪽.

28) 신동규, 「네덜란드 동인도연합회사의 동아시아 진출에 보이는 한국 · 일본관계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전북사학』30, 전북사학회, 2007a, 156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표1> 『하멜보고서』의 해외 주요 출간 이력(17~20세기)[29]

	연도	출간국	발행인	내용 및 특징
1	1668 (하멜 귀환전 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반 벨센 (Jacob van Velsen)	-하멜의 일정만 언급, 조선왕국기 부분은 빠짐. -2개의 판본을 출판함, 각각 16페이지로 구성 -표류기의 표지 제목 뒷면에는 조선에서 탈출한 8명의 이름을 명시함.
2	1668 (하멜 귀환전 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티히터 (Johannes Stichter)	-전체 32페이지로 구성, 조선왕국에 대해 기술 -뒷장에는 탈출자 8명의 구체적인 이름 삽입 (벨센의 판본 보다 이름의 스펠링이 다름.) -8개의 삽화(목판화)가 삽입됨.
3	1669 ~ 1670 (하멜 귀환후 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사아그만 (Gillis Joosten Saagman)	-조선왕국에 대한 설명 있음. -3개의 판본을 출판함. 각각 40페이지로 구성 -벨센이나 스티히터의 판본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악어나 코끼리의 커다란 삽화가 포함됨. -사아그만 초판본은 하멜 일행의 일본 탈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사키 체류와 하멜 일행이 1668년 7월 20일 암스테르담으로 귀환하기까지를 언급하고 있음. -세 번째 판본은 초판본이나 두 번째 판본에서 그려진 악어와 코끼리 삽화가 완전히 삭제됨. 대신 조선과는 전혀 무관한 동남아시아의 어떤 왕의 식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4	166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몰더스 몽타누스 (Amoldus Montanus)	-『하멜보고서』 축약본이 포함됨. -조선왕국에 대한 설명 없음.
5	1670	프랑스	미뉘톨리 (Minutoli)	-프랑스어판 출간, 스티히터의 판본을 중심으로 사아그만의 판본 참조(코끼리, 악어 삽입) -하멜의 표류 일정과 조선의 일반적인 상황 등 크게 2부분으로 구성해서 출판 -1695년, 1728년에 재판됨.
6	1671	독일	크리스토프 아놀드 (Christoph Anold)	-독일어판 출간, 뉘른베르크 총서에 수록
7	1704	영국	존 처칠 (John Churchill)	-영어판 출간, 전집(총 4권)에 삽입 -미뉘톨리의 프랑스어본을 번역 출간함. -1732년, 1744년, 1745년에 재판됨.
8	1715 ~ 1732	프랑스	장 베르나르(Jean Frederic Bernard)	-프랑스어로 암스테르담에서 발간 -항해기 전집(총 10권) 중에서 미뉘톨리의 프랑스어본을 제4권에 포함시켜 유럽인들에게 널리 알려짐.
9	1745 ~ 1747	영국	존 그린 (John Green)	-『아쉴리 전집』으로 항해 여행기가 출판됨. -처칠의 번역을 그대로 수용
10	1763 ~ 1791	스페인		-영국의 『아쉴리 전집』을 그대로 스페인어로 번역 출판

29) 강준식, 앞의 책, 306~310쪽. ; 정성화, 앞의 논문, 2003, 112~120쪽. ; 정희숙, 앞의 논문, 86쪽. ; 박현진,『17~18세기 네덜란드와 조선의 상호 인식』, 동국대학교 대학원 역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50~54쪽을 참고하여 본고에서 다시 만든 표이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11	1813	영국	제임스 버니(James Burney)	-남해와 태평양의 항해와 탐험의 시대사에서 축약된 『하멜보고서』를 출판(스티히터 판본을 중심으로 번역)
12	1884	미국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	-영국의 처칠 판본을 『조선의 안과 밖(Corea, without and within)』에 실어서 출판함.
13	1920	네덜란드	후팅크(B.Hoetink)	-네덜란드어 주석서 출판(the Linschoten Society) -하멜의 원고를 가장 충실하게 편집했으며, 여러 가지 문헌적인 자료들을 참조하여 주석을 덧붙였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는 대본임.
14	1961	일본	이쿠타 시게루	-『朝鮮幽囚記』라는 제목으로 네덜란드 후팅크판을 일어로 번역함.
15	1971	미국	게리 레드야드(Gary Ledyard)	-『화란인 코리아에 오다』영문판 발간 -후팅크의 연구를 토대로 추가 연구

다음으로 하멜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①『하멜보고서』를 번역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② 하멜의 표착과 탈출 및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 네덜란드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 연구, ③『하멜보고서』와 관련된 역사 외에 여러 주제에 대한 연구, ④ 역사교육과 관련된 연구 등 다방면으로 연구되어 왔다.

우선『하멜보고서』를 번역한 연구를 살펴보자. 최남선은 1917년 최초로『하멜보고서』를 소개하였지만, 최초로 직접 번역한 사람은 이병도이다.[30] 이병도가 1934년에 번역 소개한『蘭船濟州島難破記, 하멜漂流記』는 '朝鮮國記'를 포함하였으며 권말에 벨테브레이(박연)와 하멜에 관한 기록들을 소개하였다.[31]

강준식은 1995년에『우리는 코레아의 광대였다-하멜의 조선기행』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게리 레드야드(Gary Ledyard)의 연구를 목차까지 똑같을 정도로 재인용하고 있다.[32] 이 책은 2002년에 『다시 읽는 하멜표류기』라고 바꾸어 재출판되었는데, 총 10개의 장으로 나누어 하멜의 조

30) 신동규, 앞의 논문, 2007a, 156쪽.
31) 신동규, 앞의 논문, 2007a, 156~157쪽.
32) 신동규, 앞의 논문, 2007a, 185~186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선 생활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써 놓았다. 부록에는 17세기 조선말과 하멜표류기 완역본, 조선왕국기 완역본을 싣고 있다.

김태진은 1996년에 테제수도회의 장폴 바이즈(Jean-Paul Buys) 수사가 네덜란드의 후팅크 판을 근거로 하멜의 원전을 처음으로 영역한 것을 번역하여 『하멜일지 그리고 조선국에 관한 기술, 1653~1666』을 출판하였다. 이 책의 앞부분은 '하멜일지'를, 뒷부분은 '조선국에 관한 기술'을 각각 따로 구분하여 주석과 함께 실었으며, 마지막에 '탈출 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2003년에 『하멜표류기-낯선 조선 땅에서 보낸 13년 20일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재출판되었다.[33]

최두환은 2003년에 『새롭게 고쳐 쓴 신 하멜표류기』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는데 그는 하멜이 제주도에 표착한 것 자체를 부정하고 하멜의 표착지는 중국의 복건성의 복주 지방이라고 하여 기존의 연구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다. 즉 '복건성에 표착하여 섬서성 장안(한성)에 불려갔고, 다시 호남성 · 강서성으로 추방되었으며 거기서 양자강을 타고 일본으로 갔다고 설명한다. 이 일본은 강소성 남부의 남경과 항주만 일대이며 나라가 아니다.'라고 쓰고 있다. 또 조선에 서식하지 않는 악어와 코끼리에 대한 얘기도 쓰고 있는데[34] 이는 그런 내용이 수록된 원본을 번역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과도 전혀 다르다.

지명숙 · 왈라벤은 하멜의 제주 표착 350주년을 기념하여 2003년에 『보물섬은 어디에-네덜란드 공문서를 통해 본 한국과의 교류사』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네덜란드 원문을 토대로 한 번역이었다. 대부분 이미 후팅크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상세한 해설이 추가되었고 VOC의 동아시아 무역 관련된 사료를 싣고 있다.[35]

유동익은 2003년에 네덜란드 원문을 번역한 『하멜보고서』를 출판하였다. 이 번역판은 네덜란드인 헨리 사브나이예(Henny Savenije)가 후팅크 판과 『하멜보고서』의 필사본을 참조하여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번역

33) 신동규, 앞의 논문, 2007a, 159쪽.
34) 최두환 역,『새롭게 고쳐 쓴 신 하멜표류기』, 우석출판사, 2003, 71쪽, 135쪽.
35) 신동규, 앞의 논문, 2007a, 161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한 것으로, 네덜란드어를 직접 번역한, 원문에 가장 충실한 번역서[36]라고 할 수 있으며, 『하멜보고서』 라고 명명한 최초의 번역판이다.[37]

두 번째로 하멜 일행의 표착과 탈출 및 조선 · 일본의 외교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검토를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신동규가 대표적이다. 조 · 일 표류민 송환체제, 조선 · 일본 · 네덜란드의 국제관계사,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활동과 조선 무역 기도 등에 대해 세계사의 시점에서 파악하여 연구하였다.[38] 그리고 17~18세기 조선의 세계관 변화와 네덜란드 이해, 네덜란드와 조선의 상호 인식에 대한 연구도 있다.[39]

세 번째로 하멜과 관련하여 역사가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다. 한국 법문화교육, 나막신 연구, 한국 종교 서술에 대한 고찰, 조선 초기 선교에 미친 영향, 강진 병영성 네덜란드 문화촌 설계, 『하멜보고서』의 편집디자인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40]

마지막으로 역사교육과 관련한 연구이다. 대부분의 논문은 다문화 교육

---

36) 정희숙, 앞의 논문, 86쪽.

37) 신동규, 앞의 논문, 2007a, 161쪽. 본고에서 주로 인용하는 책은 네덜란드 원문을 번역한 ① 유동익, 앞의 책, ② 지명숙 · 왈라벤, 앞의 책임을 밝혀 둔다.

38) 신동규, 「17세기 네덜란드의 조선무역기도에 관한 고찰」, 『사학연구』 55 · 56, 한국사학회, 1998. ; 「네덜란드인 조선표착에 관한 재고찰 : 표착선 · 표착지 · 표착년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8 · 59, 한국사학회, 1999. ; 「근세 일 · 조 · 란 국제관계사 연구」, 入敎大學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네덜란드인의 일본행 '도주사건'과 덕천막부의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14, 한일관계사학회, 2001. ; 「근세 표류민의 송환유형과 '국제관계' : 조선과 일본의 제3국 경유 송환유형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17 · 18, 강원대학교 사학회, 2002. ;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의 조선 무역 시도와 조 · 일 근대화 문제」, 『국제한국학연구』 2,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2004. ; 「"VOC"의 동북아시아 진출에 보이는 조선무역의 단점과 일본무역 유지정책」, 『한일관계사연구』 22, 한일관계사학회, 2005. ; 앞의 논문, 2007a. ; 「일본국립국회 도서관 소장 '아란타인조선강표착지의건'에 대한 고찰」, 『대동문화연구』 5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b.

39) 구만옥, 「16~17세기 조선 지식인의 서양 이해와 세계관의 변화」, 『동방학지』 12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 김문식,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네덜란드 이해」, 『사학지』 39, 단국사학회, 2007. ; 박현진, 앞의 논문, 2016.

40) 문형진, 「『하멜보고서』를 활용한 한국 법문화교육의 의미와 그 효용성」, 『역사문화연구』 43,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2. ; 김문자, 「조선시대 나막신에 대한 연구-하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패션디자인저널』 7-2,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2003. ; 방원일, 「하멜보고서의 한국 종교 서술에 관한 고찰」, 『종교문화비평』 18,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0. ; 이은선, 『네덜란드인들이 조선 초기 선교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강주형, 『강진 병영성 네덜란드 문화촌 설계-하멜 체류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정희숙, 앞의 논문, 2017.

과 관련하여 고대~조선까지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외국인을 분석한 내용 중에서 조선 시대에 벨테브레이와 하멜에 대해 이름 정도만 언급하고 있다.[41] 또한 2016년에는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대안 역사교과서인 『한국사 속의 다문화』가 발행되었다. 이 책은 중등학교에서 역사 부교재 및 역사학습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약 2페이지 분량으로 하멜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42]

이상에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17세기 하멜의 조선 체류와『하멜보고서』의 역사적 의미를 현행 역사교과서 서술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고 Ⅱ장에서는 17세기 중엽 하멜의 조선 체류와 『하멜보고서』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사료와 비교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17세기 중엽 조선의 대외 관계와 서구와의 만남, 하멜 일행의 조선에서의 생활과 『하멜보고서』의 조선국 기술 내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현재 하멜에 대한 기억과 기념 내용을 찾아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한국사 속에 다양한 문화 간 소통의 역사, 세계사와의 상호 관련성 측면에서 현행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역사 교과서 분석을 통해 하멜이 어느 정도,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분석 대상은 중학교『역사』, 고등학교『한국사』, 고등학교『동아시아사』2011,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이다. Ⅳ장에서는 학생들의 하멜에 대한 인식을 수업 실시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해 보고, Ⅴ장에서는 하멜 관련 교과서 서술 개선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과서에서 하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하멜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41) 여혜경, 『다문화교육을 위한 역사교육 방안-한국사의 '대외관계 및 교류'를 중심으로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지홍,『역사 교과서에 보이는 '귀화인'에 대한 서술과 인식 검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웅, 『한국과 세계의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구성한 고등학교 한국사 글쓰기 수업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경혜영, 『17세기 조선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교육정책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42)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기획, 앞의 책, 2016.

Ⅱ. 17세기 중엽 하멜의 조선 체류와 그 기억

1. 17세기 중엽 조선의 대외 관계와 서구와의 만남

1) 조선과 서구와의 만남

하멜의 조선 표착은 조선과 서구와의 만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선은 事大交隣이란 원칙하에 쇄국을 대외관계의 기본정책으로 유지하였다.[43] 明에 대해서는 事大, 日本 · 女眞 · 류큐(琉球)에 대해서는 交隣으로 평화적인 대외관계를 보장받고자 하는 외교 정책이었다.[44]

그러나 17세기 이후 조선은 서양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체제에 서서히 편입되면서 대외 교류가 이루어졌다.[45] 조선인의 공식적인 대외 교류는 북경으로 이어지는 燕行使, 에도로 이어지는 通信使에 의해서이며, 비공식적인 교류는 표류자에 의해 이루어졌다.[46] 조선이 서양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통로는 중국에서 간행된 서적, 赴京 사신의 傳聞, 서양인의 표착이나 이양선의 출몰, 천주교와 프랑스 선교사들의 잠입활동 등을 통해서였다.[47] 그 중에서 서양인의 표착은 대항해시대의 개막으로 극동지역에서 서양인들의 무역활동이 시작되면서부터 나타났다.[48]

조선에 상륙했던 서양인에 관한 국내 최초의 기록은 1582년(선조 15) 제주도에 표착했던 馬里伊(Marie)이고,[49]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從軍神父로 조선에 입국한 스페인 출신의 예수회 신부인 세스

---

43) 국제적인 고립성과 전통사회로서의 폐쇄성은 조선조의 표상으로서 '禁斷의 나라', '隱循의 나라'로 불리어지기도 하였다. 권영건, 「조선조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 -쇄국주의 및 정책의 형성배경을 중심으로-」, 『안동대학 논문집』 12, 1990, 55쪽.

44) 구만옥, 앞의 논문, 8쪽.

45)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19쪽.

46) 김문식, 위의 책, 19쪽.

47) 박성순, 「조선후기 對 서양인식에 관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 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강만길 엮음, 창작과 비평사, 2000, 155쪽.

48) 구만옥, 앞의 논문, 20쪽.

49) 『선조수정실록』 권16, 선조 15년(1582) 1월 1일 경신. 遼東金州衛人趙元祿等 福建人陳元敬 東洋人莫生哥 **西洋人馬里伊** 自海船漂到本國 順付進賀使鄭琢 奏聞皇朝. 그는 한성으로 압송되었다가 곧 명으로 송환되었는데, 포르투갈인으로 추정된다. 박성순, 위의 논문, 153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페데스(Gregorio de Cespedes),[50] 1604년(선조 37) 경남 통영에 표착한 포르투갈 출신 주앙 멘데스(Juan Mendes)[51]가 있다. 하지만 조선이 서양과 직접적인 접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7세기 네덜란드 선박이 제주도에 표착하면서부터이다.[52] 1627년(인조 5)에는 벨테브레이(박연)가 표착하였고, 1653년(효종 4)에는 하멜 일행이었다. 그들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일본과의 무역을 하기 위해 바타비아를 출발하여 대만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도중 조선에 표류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럽의 동아시아 진출은 지리상의 발견 이후 舊敎國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 의해서였다. 두 나라의 아시아에 대한 진출의 배경과 동기는 종교적 이유, 동양에 대한 유럽인의 호기심, 경제적인 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53]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서면서 극동 무역의 주도권은 新敎國인 네덜란드가 차지하게 되었다.[54] 네덜란드는 幕府가 실시한 鎖國政策[55] 이후에도 나가사키(長崎)[56]의 데지마(出島)[57]를 거점으로 무역을 독점하게 되었다.[58] 이러한 진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네덜란드의 동인도연합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VOC)였다.[59] 1649년

---

50) 오현기,「조선과 서양 사이의 문화 중개자들의 저작물에 나타난 조선인의 인상(印象)에 대한 연구-칼 귀츨라프 선교사의 기여를 중심으로-」,『대학과 선교』27, 2014, 206쪽. 그는 조선 내륙에 발을 디딘 최초의 서구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가 조선인에게 서양에 관한 지식을 전하거나 조선인들을 만난 기록은 전혀 없다. 권인혁, 「17세기 조선의 대외인식과 하멜 표착」,『제주도사연구』8, 제주도사연구회, 1999, 17쪽.

51) 기록에는 '지완면제수(之緩面第愁)'로 나와 있다. 박기현, 앞의 책, 137쪽. 그는 캄보디아에서 일본의 나가사키(長崎)로 가기 위해 일본 함선에 승선했다가 조선에 표착했는데, 4개월의 체류 후에 명으로 송환되었다. 박성순, 앞의 논문, 153쪽.

52) 김동전, 「하멜의 제주표착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현재성」, 『동아시아연구논총』14,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3, 223쪽.

53) 김동전, 위의 논문, 219쪽.

54) 문중양 · 염정섭 · 오상학 · 이경구 · 한명기, 앞의 책, 257~261쪽.

55) 1637년에 일어난 '시마바라(島原)의 난'으로 도쿠가와 막부는 '쇄국'을 단행하였다. 1639년 남만(포르투갈)선의 입항 금지에서부터 1854년 미국에 강제 개항한 '미 · 일 화친 조약' 체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6) 일본은 북의 마쓰마에[松前] 창구, 조선과 쓰시마[대마도] 창구, 류큐와 사쓰마 창구, 서양 · 중국과 나가사키(長崎) 창구 등 '4창구'를 통해 제한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 문중양 · 염정섭 · 오상학 · 이경구 · 한명기, 앞의 책, 193쪽.

57) 데지마(出島)는 1636년 에도 막부의 쇄국정책의 일환으로 나가사키에 건설된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이다. 1641년 히라토(平戶)에 있던 네덜란드 상관을 나가사키의 데지마로 옮긴 이후 1859년까지 약 200년 사이에 네덜란드 무역은 오직 이곳에서만 독점적으로 허용되었다.

58) 구만옥, 앞의 논문, 22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인조 27) VOC의 순이익은 대만이나 페르시아에서보다 일본에서 높았으며, 海禁 이후에 아시아 여러 도시와의 교역의 상당 부분을 특히 은에 관한 한 VOC의 선박이 도맡아 하게 되었다.[60] 네덜란드 상인들은 비단과 자기와 같은 고가의 특산품을 통한 중국과의 교역, 금 · 은 등의 귀금속을 대량 생산하는 일본과의 교역을 원하였으나 폐쇄된 조선은 선호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였다.[61]

그렇다면 네덜란드와 조선은 두 사람의 표착 사건으로 이루어진 우연한 만남 외에 더 이상의 접촉은 없었을까? 사실 VOC는 1609년(광해군 1)에 히라토(平戶)에 商館을 설치한 이래 일본과 무역을 하면서 조선과의 무역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조선의 쇄국정책과 쓰시마의 방해로 인해 무역을 추진할 수 없었다.[62] 1637년(인조 14)에도 히라토의 네덜란드 상관장이 조선의 산물과 무역 및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동인도회사에 보고한 기록이 있다.[63] 1668년(현종 9)에 하멜을 제외한 7명의 일행이 네덜란드에 귀환한 후 식민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때 동인도회사는 '의회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조선에 사신을 보내 무역거래를 시작하겠다.'는 서신을 내기로 결심하기도 하였다.[64] 또한 『하멜보고서』의 유럽 출판으로 선풍적인 관심을 모으게 되면서 동인도회사는 조선과의 교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코레아(Corea) 호라는 대형 선박을 건조하였다.[65] 코레아 호는 1669년(현종 10) 5월 20일에 네덜란드를 출발하여 1670년(현종

59) 주경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아시아 교역 : 세계화의 초기 단계」, 『미국학』 28,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05, 2쪽. VOC는 1602년부터 1799년까지 약 200년간 존립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다. 네덜란드 공화국의 총독에게서 특허장을 받아 아시아와의 교역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특히 외교적 협상을 하고 현지 주권자들과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제도적인 수준에서 보면 VOC는 국가 내의 국가였다. 프랑수아 지푸루 지음 · 노영순 옮김, 『아시아 지중해-16~21세기 아시아 해항도시와 네트워크』, 선인, 2014, 187~189쪽.

60) 프랑수아 지푸루 지음 · 노영순 옮김, 위의 책, 145쪽.

61) 레오나드 브루쉐, 「만남과 발견 : 극동 아시아에서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활동」, 『동방학지』 122, 연세대학교출판부, 2003, 106쪽.

62) 신동규, 앞의 논문, 1998, 460~466쪽.

63) 신동규, 앞의 논문, 1998, 460~466쪽.

64) 김태진, 앞의 책, 124쪽.

65) 신동규, 앞의 논문, 1998, 469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11) 4월 2일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에 도착하였지만, 결국 단 한 번도 조선에 가보지도 못한 채 1679년(숙종 5) 11월 15일 바타비아에서 폐선되었다.[66] 그 이유는 네덜란드가 일본과의 무역 이익을 중요시하였고, 쓰시마 내지 막부가 조선 무역을 견제하였으며, 조선이 중국, 일본, 류큐 이외의 밖으로부터의 접촉 시도를 수용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67]

한편, 조선에서는 양난 이후, 직 · 간접적으로 전래된 서양의 문화 · 종교 · 과학 기술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實學의 대두, 西學의 전래, 실학과 서학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조선 후기 사상사의 중요 문제가 되었다.[68] 17세기에 표착한 하멜을 통해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은 국가적 · 정부 차원 보다는 북벌을 염두에 둔 효종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69] 하지만 하멜 일행이 오래 생활하게 되면서 조선 지식인들은 그들과의 접촉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70]

예를 들어 인조 때 東萊府使를 역임하면서 일본과 '耶蘇宗文禁制'[71] 문제를 처리하였고, 효종 때 濟州牧使로서 하멜 표류 사건을 처리했던 李元鎭(1594~1665)은 실학의 시조 磻溪 柳馨遠(1622~1673)의 학문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72] 그는 하멜 일행에게 개방적인 자세로 많은 관심과

---

66) 신동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의 조선 무역 시도와 조 · 일 근대화문제」,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대회』 2003-9,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2003d, 94쪽.

67) 신동규, 앞의 논문, 1998, 470~475쪽.

68) 구만옥, 앞의 논문, 4~5쪽.

69) 구만옥, 앞의 논문, 24~25쪽.

70) 구만옥, 앞의 논문, 25쪽.

71)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12년(광해 4)에 '기리시단(크리스챤) 금지령(=천주교 금지령)'을 내리고 크리스트 교도들을 박해하였다. '耶蘇宗門禁制'는 일본이 1644년(인조 22)부터 수차에 걸쳐 조선에 크리스트 교도를 포함하여 조약 이외의 선박이 조선에 들어올 경우는 모두 붙잡아 왜관으로 압송해 달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조선은 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 그에 대한 共助를 약속하였다. 『인조실록』 권46, 인조 23년(1645) 4월 4일 병진. 차왜 藤智繩이 대마도주가 보낸 서계를 가지고 동래부사 이원진에게 와서 세 가지 일을 요청하였는데, 그 요지는 크리스트 교도들이 唐船을 만들어 타고 조선 지방 해로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들어가려 하니, 조선에서 그들을 수색하여 체포해 달라는 내용이다. 『同文彙考原編』 권78 報島倭所請三事責諭咨歸啓에서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인조실록』 권46, 인조 23년(1645) 5월 21일 임인. 倭書契曰:……其中耶蘇五人, 雜僞隱匿, 果伏其罪。 貴國懇厚之效, 可以嘉焉。執政等諭告我僧, 傳達感奬之趣, 於貴國賞其善隣, 故聘价丁寧演之。권인혁, 앞의 논문, 19쪽. ; 신동규, 앞의 논문, 1998, 467쪽.

72) 구만옥, 앞의 논문, 43~44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배려를 하였으며 서툴지만 대화도 가능하였고 그들이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조정에서 변호하기도 하였다.[73] 또한 전라도 부안에 살고 있는 유형원은 이들을 만나 서양에서 은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74] 숙종 때 관료문인 宋廷奎(1656~1710)가 제주목사 시절에 저술한『海外聞見錄』의 '西洋漂蠻'에는 제주 관아에 보관되어 있던 하멜 일행의 조총과 칼을 직접 살펴보고 그 기술과 특징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외국의 무기류에 대해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며 대양을 건너 무역에 나서는 '蠻人(네덜란드인)'들의 진취적 태도에 감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75]

2) 조선의 청, 일본과의 대외 관계

하멜의 조선 체류 생활과 탈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대외 관계를 알아야 한다. 우선 청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조선의 대외 정책인 '사대교린'은 '華夷觀'을 근간으로 하였는데, '화이관'은 중세적 수직 관계 질서를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은 중국에 대해 夷狄이지만, 다른 민족 · 국가에 대해 小中華였다.[76] 명 · 청 교체를 경험한 이후에는 소중화를 넘어 '홀로 남은' 유교국 조선이 중화를 계승해야 한다는 '조선 중화' 의식이 등장하였다.[77]

하멜 일행이 표착했던 효종~현종 연간(1653~1666)은 조선이 안팎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던 시기였다. 병자호란(1636)을 통해 조선을 굴복시킨 청은 조선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78] 효종은 北伐을 통해 '復讐雪恥(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음)'의 의지를 보였다. 17세기 청나라에 대한

---

73) 유동익, 앞의 책, 28~29쪽.

74) 유형원, 『(국역주해) 반계수록(1)』, 충남대학교, 1962, 625쪽. 向也親**逢西洋漂流人**問之基國尙用銀錢云西洋國盖古西域諸國之南也今我國混稱爲南蠻 ; 보데윈 왈라번,「하멜의 조선표류와 강진 생활이 함축하는 의미」,『다산과 현대』10,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7, 162쪽.

75) 김용태,「漂海錄의 전통에서 본 『海外聞見錄』의 위상과 가치」, 『한국한문학연구』48, 한국한문학회, 2011, 318~326쪽.

76) 구만옥, 앞의 논문, 8쪽.

77) 문중양 · 염정섭 · 오상학 · 이경구 · 한명기, 앞의 책, 189쪽.

78)『효종실록』권5, 효종 원년(1650) 8월 27일 무신, 『효종실록』 권8, 효종 3년(1652) 4월 신유. 한명기, 「하멜 표류 무렵의 조선과 동아시아-당시 조청, 조일관계를 중심으로」,『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대회』2003-9,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2003, 21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복수설치’로부터 ‘북벌’로 용어가 바뀌어 간 것도 중화 의식과 관계가 깊다.[79] 하지만 현실적인 청나라의 군사적 우월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을 다지는 데 우선 순위를 두었다. 당시 효종은 즉위 3년째인 1652년부터 본격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시도하였다.[80] 觀武才(특별히 왕이 명령이 있을 때 실시하는 무과)를 자주 실시하고 禁軍의 강화, 守禦廳과 御營廳의 재정비, 訓鍊都監[81]의 확장 등을 꾀하였고 남방 지역의 지방군에 대한 정비도 착수했다. 또 別馬隊, 別砲陣 등을 설치하여 전력 강화를 꾀하면서 재정과 인력 확보를 위해 奴婢推刷 사업 등을 벌였다.[82] 그리고 강화도 · 남한산성 등 수도권의 요충지를 보수했다.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이(박연), 하멜 등이 훈련도감에서 화포 제작, 조총 개발 및 개량 작업에 참여한 것도 그때의 일이다. 효종은 당시 조선의 조총 기술이 이미 뛰어났지만 표류한 서양인들의 새로운 조총 기술을 이용하여 청에 대항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654년(효종 5) 제1차 나선정벌에서는 약 100여 명의 조총군이 활약하여 승리를 하였는데, 효종은 자신감을 가지고 북벌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효종은 남쪽의 산성 축조에 관심이 많았고 산성에 軍倉 등을 설치하여 물자와 인력을 상비하는 것을 중시하였다.[83] 남한산성의 적정 인원은 최소 1만 6천명~2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최대치는 4만여 명이었는데, 非良人 계층(義僧, 宮奴) 및 특수 인력을 산성으로 유치-전속하여 산성의 방어 인력으로 보충하였다.[84] 따라서 하멜 일행의 남한산성 거취 역시 중국 사신들이 왔을 때 숨

79) 문중양 · 염정섭 · 오상학 · 이경구 · 한명기, 앞의 책, 190쪽.
80)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 연구』, 단대출판부, 1995, 255쪽.
81) 훈련도감은 鳥銃을 주무기로 하는 군대로서 조총 · 화약 · 鉛丸(납) 등 군수물자를 생산하여 군인들에게 보급하였다. 분업과 협업으로 운영되는 무기제조장을 설립하고 그 원료 조달을 위해 屯田, 柴場을 설치하고 철광, 硫黃鑛, 鉛鑛 등 광산 개발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조선후기의 신무기 개발이 이 곳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훈련도감의 중요 임무는 중앙군으로 국왕 侍衛, 서울의 경비와 방위, 지방군의 훈련에도 관여하였으며 捉虎와 濬川, 禁松 등 대민 업무도 담당하였다.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훈련도감의 성립과 사회변동』, 도서출판 혜안, 2003, 196쪽, 349~352쪽.
82) 한명기, 앞의 논문, 24쪽.
83) 구열회, 「인조~숙종대 산성중시와 邑治移設論의 전개」, 『조선시대사학보』 84, 조선시대사학회, 2018, 103쪽.
84) 구열회, 위의 논문, 82~84쪽.

기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남한산성 운영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효종의 북벌과 군비 강화책은 청의 감시와 압박 말고도 거의 매년마다 발생한 기근과 자연 재해 때문에 지속하기 어려웠다.[85] 또한 신하들의 소극적인 추진 자세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그의 죽음과 함께 무산되었다.[86]

현종 대 역시 청의 조선에 대한 압박이 계속 되었다.[87] 그리고 거의 한 해도 빼놓지 않고 혹심한 자연 재해가 발생하였다.[88] 이러한 조선의 피폐한 사회경제적 현실로 인하여 효종의 遺業인 북벌을 실천하는 것은 거의 힘들었다고 할 수 있다.[89]

이러한 효종, 현종 시기 청과의 관계는『하멜보고서』에도 나온다. 조선에 온지 2년째 되던 1655년(효종 6) 하멜 일행 중 일등항해사 헨드릭 얀스(Hendrik Janse)와 할렘(Haarlem) 출신 포수 헨드릭 얀스 보스(Hendrik Janse Bos) 등 2명이[90] 청나라 사신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선 의복 안에 네덜란드 복장을 하고 숨어 있다가 그들을 만나 탈출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선의 왕과 대신들은 청나라 사신에게 많은 돈을 뇌물로 주어 중국 황제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당부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나라 사신이 제주도에서 건져낸 총과 물건을 청에 넘기

85) 『효종실록』권10, 효종 4년(1653) 2월 9일 병오. 今者八路飢饉, 民不聊生, 願聖上特擧親耕之典,……"西路凶荒太甚, 嶺南土賊漸熾, 勤民之政, 最是要務。" ;『효종실록』 권11, 효종 4년(1653) 8월 23일 을유. 但比年凶歉, 宜省其儀節也。" 上曰: "令有司擧行。" 錫胤曰: "凡在家在國, 侈大之害最甚。王子、公主第宅, 各有間架之數, 其意有在。 況今變異疊出, 飢饉荐至, 此宜節損之時也。;『효종실록』권14, 효종 6년(1655) 5월 6일 기축. 全南道地震、忠淸道霜降旱蝗、咸鏡道大風, 飛沙走石, 癘疫大熾, 死者二百餘。

86) 한명기, 앞의 논문, 25쪽.

87) 한명기, 앞의 논문, 26쪽.

88) 『현종실록』1권, 현종대왕 숭릉지. 경자년(현종 원년, 1660)(庚子, 關東、北藟,). ; 신축년(현종 2년, 1661)(辛丑, 三南又旱). ; 임인년(현종 3년, 1662)(壬寅春, 命禮部修麗朝諸陵, 且著令三歲一審。 特遣御史南九萬、李翻等, 蠲湖、嶺雜賦, 且行賑貸). ; 갑진년(현종 5년, 1664)(甲辰, 畿內比歲旱, 秋, 湖南又水).

89) 한명기, 앞의 논문, 26~29쪽.

90) 박현진, 앞의 논문, 76쪽에는 헨드릭 얀스(Hendrik Janse)와 포수 헨드릭 얀스 보스(Hendrik Janse Bos)를 각각 南二安과 南北山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승정원일기』와 강준식, 앞의 책, 107~110쪽에서는 헨드릭 얀스는 남북산, 헨드릭 얀스 보스는 남이안으로 쓰고 있다. 여기서 두 사람 모두 조선 이름을 갖고 있으며 성이 남녘 남(南)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만인 모두가 남씨 성을 하사 받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운 이도 있다. 강준식, 앞의 책, 108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91] 이 탈출 사건은『효종실록』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92] 결국 탈출을 시도한 두 사람은 한양으로 압송되어[93] 감옥에서 죽게 되었다. 나머지 일행들은 왕의 배려로 처벌되지는 않았지만,[94] 이후 청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남한산성으로 피신시키거나 집안에 감금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 효종(재위1649~1659)~현종(재위 1659~1674) 시기 자연 재해와 피폐한 사회경제적 현상으로『하멜보고서』에는 하멜 일행의 고통스런 생활을 서술한 곳이 곳곳에 보인다.[95] 이로 인해 강진에 살았던 22명의 하멜 일행은 여수, 순천, 남원 등지로 분산 배치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일본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병자호란 이후 지식인들 사이에서 '청에게 복수하기 위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일본을 생각하게 되었다.[96] 실제로 청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조선은 일본, 즉 왜관을 통해 對馬島에 접근을 시도하였다.[97] 대마도 역시 조선과의 무역을 확대하고자 청과 조선의 관계를 주시하면서 조선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확대하였다.[98]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대일 정책은 어쩔 수 없이 수세적인 방향

---

91) 유동익, 앞의 책, 41~42쪽.

92)『효종실록』권14, 효종 6년(1655) 4월 25일 기묘. 당초에 南蠻人 30여 인이 표류하여 濟州에 이르렀으므로 목사 李元鎭이 잡아서 서울로 보내었다. 조정에서 늠료를 주고 都監의 軍伍에 나누어 예속시켰다.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에 南北山이라는 자가 길에서 곧바로 하소하여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기를 청하니, 청사가 크게 놀라 본국을 시켜 잡아 두고 기다리게 하였다. 남북산이 애가 타서 먹지 않고 죽었으므로 조정이 매우 근심하였으나, 청나라 사람들이 끝내 묻지 않았다. 初南蠻人三十餘人。漂到濟州, 牧使李元鎭, 執送于京師, 朝廷給廩料, 分隷於都監軍伍。 及淸使來, **南北山**爲名者, 直訴於路上, 請還故國。 淸使大驚, 使本國收繫以待, 北山躁懣不食而死。朝廷甚憂之, 淸人終不問.

93)『승정원일기』책7, 효종 6년(1655) 3월 15일 경자. 鍊都監啓曰, 南蠻之人, 投入勅行, 曾所不意, 聞來極爲驚駭, 欲知某人之投入, 卽聚南蠻人等點考, 則其中**南北山·南二安**二名, 不現矣。得接遠接使狀啓, 始知投入者北山, 逃走者**二安**也。投入者則不須言, 而逃走之人則不可不及時追捕, 故別定旗牌等官, 各率軍人, 彰義門內外諸山, 使之搜覓, 城中要路, 亦爲詗察矣。卽者東營入直軍兵, 逢着**二安**於東小門路上, 執捉來告, 俱枷杻囚禁之意, 敢啓。傳曰, 知道。善爲開諭, 俾安其心, 一邊譏察其行止, 可也。

94) "대신들은 이 두 사람이 외출한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처벌하였다. 판결은 각각 곤장 50대씩이었다. 보고를 받던 왕은 우리가 폭풍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지 도둑질이나 혹은 약탈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그 처벌을 승인하지 않았다." 유동익, 앞의 책, 42쪽.

95) 유동익, 앞의 책, 74~79쪽.

96) 한명기, 앞의 논문, 30쪽.

97) 한명기, 앞의 논문, 30~32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으로 전환되었고, 막부를 등에 업은 대마도의 요구를 거의 들어주게 되면서 1671년(현종 14)에는 왜관의 위치를 草梁으로 이전하기로 하였고[99] 막부의 생일마다 축하 사절을 보내는 등 유화적인 정책을 펼쳤다.[100]

『하멜보고서』에 나타난 일본과의 외교 관계는 조선을 탈출한 하멜 일행이 1666년(현종 7) 9월 14일 나가사키에 도착하여 총독의 심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 5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분석하면 <표2>와 같다.

<표2> 『하멜보고서』에 나타난 1666년(현종 7) 나가사키 총독의 질문 내용 분석[101]

질문 번호	질문 내용 분석
1~10	• **하멜 일행의 조선 표착 과정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질문** → 배 안에 대포의 개수나 배에 싣고 있는 짐의 종류와 현재 소재 여부를 통해 무기에 관심을 보임. 무역이 아닌 다른 의도로 항해했는지를 묻고 크리스트교인이나 다른 외국인의 탑승 여부 등을 질문함.
11~15	• **제주에서 서울(한성) 압송 이후 지역 이동에 대한 질문** → 표착 지점인 제주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통해 조선의 지리에 대해서 물음. 서울에서의 체류 기간과 직무, 수당 등을 자세히 물어 조선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 파악함. 서울에서 썰라도(전라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와 청나라 사신을 만났던 두 명의 생사에 대해서도 질문함.
16~36	• **조선에 대한 정보 수집 질문** → 조선의 지리(크기), 조선에 있는 크리스트교인이나 체류 외국인(벨테브레이)에 대해 질문함. 조선의 군사력과 현재 전쟁 발생 여부, 조선의 정치 · 종교 · 경제, 특히, 무역이나 대외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 중국이나 일본과의 무역 장소에 대해 묻고 은광이나 인삼 등에도 관심. 중국과 조선의 지리적 위치를 통해 국경 지역을 파악함.
37~49	• **하멜 일행의 썰라도(전라도)에서의 유배 생활과 탈출 과정에 대해 질문** → 유배지였던 전라도에서의 생활과 지역의 정보를 수집. 탈출을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 조선의 왕이 그냥 보내준 것인지 아니면 탈출했는지의 여부와 배를 구한 경위 질문. 탈출지인 여수 전라좌수영과 순천을 언급하고 일본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질문함.
50~54	• **일본으로의 도착 과정과 인적 사항에 대해 질문** → 조선을 탈출한 이후 도착한 고토의 일본인들이 표류인을 대하는 태도, 과거 일본을 방문했던 경력 여부, 조선에서 탈출한 하멜을 포함한 8명과 조선에 남아있는 8명이 살던 장소와 인적 사항(이름, 항해할 당시 했던 일, 현재 나이)을 질문함.

98) 한명기, 앞의 논문, 32~34쪽.

99) 초량 왜관은 일본에서 파견된 500~600명의 일본 성인 남자들만이 교대로 근무했고 연간 50척의 무역선이 출입하는 등 외교와 무역의 중심지였다. 1678년(숙종 4)에 초량(현 부산 용두산 공원 부근)에 신관을 지어 초량 왜관으로 옮기게 되었다. 한명기, 앞의 논문, 34~35쪽.

100) 문중양 · 염정섭 · 오상학 · 이경구 · 한명기, 앞의 책, 93~94쪽.

101) 유동익, 앞의 책, 88~100쪽의 내용을 본고에서 주제별로 정리하여 재구성한 표이다.

이러한 심문 과정을 통해 일본은 조선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청과의 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크리스트교 포교 금지를 비롯한 쇄국 정책으로 인해 조선에 있는 외국인과 크리스트교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사전의 신원 조회를 거쳐 잔류자 중 크리스트교 신자가 없다는 확신을 얻은 후, 대마도주를 중재인으로 조선과 잔류자 송환 협상을 벌였다.[102]

당시 대외 정세에 어두웠던 조선은 하멜 일행이 탈출한 이후에야 일본과 외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데, 1666년(현종 7)『현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103] 아란타(네덜란드)는 일본의 屬郡으로 貢物을 가지고 오던 길이었는데,[104] 조선이 표류해 온 자들을 일본에 알려야 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蠻人(네덜란드인)들의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억류하였다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들의 복색이 일본인이 아니고 말도 통하지 않아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일본에 보내지 않았고 이들의 물품에 대해서는 각자 처리하게 하였으니 조선이 잘못하거나 숨기는 것이 없다고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에 잔류한 네덜란드인 7명[105]은 집결지 남원에서 왜관에 보내졌고,

---

102) 지명숙 · 왈라벤, 앞의 책, 155쪽. 조선 · 중국 · 일본 간에는 상호국의 표류민 송환 체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일본과는 15세기 중엽 이후에 대마도주가 송환 업무를 대행하였다. 국립제주박물관 편,『항해와 표류의 역사』, 솔, 2003, 62쪽.

103)『현종실록』권12, 현종 7년(1666) 10월 23일 경오. 東萊府使安纘馳啓言: "差倭 橘成陳等, 密言於譯官等曰: '十餘年前阿蘭陀郡人三十六名, 載三十餘萬兩之物貨, 漂到耽羅, 耽羅人盡奪其貨, 散置其人於全羅道內。其中八人, 今夏乘船潛逃, 來泊江戶。故江戶欲詳其始末, 將欲修契於禮曹。所謂**阿蘭陀,乃日本屬郡來黃老也。曾年相約以有荒唐船漂到卽通者,不趨丁寧,而今者不惟不通**,乃反奪其貨、留其人, 是果誠信之道乎。差倭出來, 則必上京呈書契, 本府及接慰官問答, 與禮曹所答書契, 無異同, 可無錯違之端。且島主與江戶執政有隙, 而今此事幾, 係是重大, 如或相違, 則島主先受其禍。' 云。"上下備局議之。回啓曰: "**狀啓所謂阿蘭陀人,似是頃年漂到蠻人。而服色與倭不同, 且言語不通, 故不知其爲某國人, 何所據, 而入送日本乎。**當初敗船物件, 使漂人輩, 各自區處, 在我旣無所失, 又無可諱之事。差倭之來, 以是答之而已。宜令譯官, 試問其服色及言語, 與倭同否, 觀其所答, 然後備將蠻人實狀言及。以此回移爲便," 上從之。

104) 대마도는 대외 정세에 어두운 조선에게 네덜란드가 屬郡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명기, 앞의 논문, 35쪽.

105) 하멜 탈출 당시에 조선에는 8명이 잔류해 있었으나 최종 송환 인원은 7명이었다. 송환되지 못한 1명에 대해서는 잔류설(지명숙 · 왈라벤, 앞의 책, 166쪽.) 혹은 병사설(신동규, 「서양 이국인 표착과 근세 조선 · 네덜란드 · 일본의 국제 관계사」,『하멜보고서』, 유동익, 중앙 M&B, 2003a, 158~160쪽.)이 있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대마번을 거쳐 나가사키의 奉行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데지마(出島) 네덜란드 상관에 이송되었다가 1년 뒤에 본국으로 송환되었다.[106] 조선측의 송환 의도는 청과의 외교적인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일본에게는 네덜란드인 조선 잔류로 인한 여러 요청들의 원인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07] 막부의 입장에서는 통상국인 네덜란드를 위해, 또 막부의 권위와 면목을 세워 네덜란드에 과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8]

그렇다면 벨테브레이는 왜 일본으로 송환되지 않았을까? 네덜란드와 일본 사이에 표류민 송환 체제[109]가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1643년(인조 21) 이후부터이므로 왜관에서는 1627년(인조 5) 벨테브레이의 송환 인수를 거부했으나,[110] 1666년(현종 7) 하멜 일행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측이 송환 요청을 하였던 것이다.[111]

결국 17세기에 조선은 조선 중화의식이 확대해 나가면서도 내부에서 서양 인식과 세계관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청의 압박 속에서 북벌의 일환으로 하멜 일행의 존재를 숨기면서 서양의 무기와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였고, 일본의 압박 속에서 하멜 일행의 본국 송환을 처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서양, 특히 네덜란드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약 2세기가 흘러가게 되었다.

---

106) 신동규, 앞의 논문, 2001, 116~121쪽. ; 신동규, 앞의 논문, 2002, 306쪽.
107) 신동규, 앞의 논문, 2001, 121쪽.
108) 신동규, 앞의 논문, 2001, 117쪽.
109) 네덜란드인들의 송환은 네덜란드와 조선 사이에 '국제 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덜란드와 일본 사이에 그리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국제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3국 경유로 송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신동규, 앞의 논문, 2002, 308~314쪽.
110) 조선은 서양 등 국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던 국가의 국민이 표착했을 때 중국에 송환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다. 그러나 박연이 표착한 1627년(인조 5)에는 정묘호란의 발생으로 그러한 표류민 송환 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 벨테브레이가 1627년(인조 5) 표착 당시 『접왜사목초록』에는 "최근 부산의 연로한 이들의 말을 들었는데 정유년 연간에 남만선이 있었다. 경주에 표착하여 3명을 붙잡아 왜관에 들여보냈으나 왜관의 왜인 등은 일본의 표류인이 아니라고 수종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만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부산에 머물렀는데 4~5년이 지난 후 조정의 분부에 따라 상경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경주는 제주와 혼동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신동규, 「훈련도감의 신식 무기 개발과 서양 이국인 등용정책」, 『향토서울』 6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3c, 217~219쪽 재인용.
111) 신동규, 앞의 논문, 2002, 313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2. 하멜의 조선 생활과 『하멜보고서』의 조선국 기술

1) 하멜의 조선 생활

하멜의 조선 생활은 크게 제주도 표착 후 10개월(1653년 8월~1654년 6월) → 서울(한성)로 압송 후 1년 8개월(1654년 7월~1656년 3월) → 강진 유배 생활 약 7년(1656년 3월~1663년 3월) → 여수로 이송 후 약 3년 6개월(1663년 3월~1666년 9월) → 탈출로 정리될 수 있다.[112]

먼저 제주도의 표착과 생활을 살펴보자. 하멜 일행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무역선인 스뻬르베르(Sperwer) 호를 타고 1653년(효종 4) 6월 18일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자카르타)를 출발하여 7월 16일 포르모사(Formosa : 대만)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7월 30일 일본의 나가사키를 향해 출발하였으나 거센 비바람과 폭풍으로 표류하다가 8월 16일 제주도에 표착하였다. 선원 64명 중에서 36명만이 살아남았으며 항해사가 위도를 측정하여 껠빠에르츠(퀠파르트=제주도)[113]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멜 일행은 온갖 몸짓언어로 야빤(일본)의 낭가사께이(낭가삭기=나가사키)에 가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제주도의 조선인들과 분명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14] 당시 제주목사였던 이원진은 낯선 조선의 문화에 직면한 하멜 일행과 자주 만나면서 적극 도와주었고,[115] 왕에게 서신을 보내어 답신이 오면 일본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주었으며, 후일 조정에 가는 즉시 그들의 처리 문제에 대해 건의하기도 하였다.[116]

---

112) 지명숙, 앞의 논문, 56쪽.

113) 퀠파르트(Quelpaert)라는 명칭은 1642년경 '갤리선 퀠파르트'라는 배가 항해하다가 제주도를 처음 발견하고 이 사실을 동인도회사에 보고한 이후 그 배의 이름을 따서 퀠파르트 섬이라 불렸다. 이혜은, 「세계지도에 나타난 조선과 제주」, 『항해와 표류의 역사』, 솔, 2003, 338쪽.

114) 『지영록』의 '서양국표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머리를 맞대고 서로 마주하기도 하고, 걸터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여 글로 써서 물었더니, X자 셋에다 나머지 6을 세고는 그 다음에 자기 가슴에다 고개를 숙였고, 또 X자 둘을 그리고 6을 세고는 그 다음 눈을 감고 기울어 쓰러지는 시늉을 하였다. 생긴 모양이 괴이하고 의상이 이상하게 만들어졌다. 비록 얼어는 통하지 않아도 자기 가슴에다 고개를 숙인 뜻은 살아있는 자의 숫자이고, 눈을 감고 기울어 쓰러진 것은 죽은 자의 숫자인 것이다. 그 생사자의 수를 조사하여 비춰본 즉 과연 그러하였다.' 원종민, 앞의 논문, 95쪽 재인용.

115) 지명숙, 앞의 논문, 59쪽.

116) 『비변사등록』 17책 효종 5(1654) 2월 24일. 이 달 23일 인견할 때에 우승지 李元鎭이 아뢰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하멜보고서』에는 그가 선하고 이해심이 있으며 상당히 신망이 있는 인물로 쓰여져 있다.[117] 10월 말에 조정에서는 약 27년 전에 귀화하여 조선인으로 살고 있는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이(박연)[118]를 보내 통역을 하게 하였는데,[119] 그는 거의 모국어를 잃어버린 상태였다가 이들을 통역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벨테브레이는 이들이 南蠻人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일본을 거쳐 본국으로 가는 것을 왕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120] 이들에게도 귀화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효종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濟州牧使 李元鎭**이** 馳啓**하기를,**

"배 한 척이 고을 남쪽에서 깨져 해안에 닿았기에 大靜縣監 權克中**과** 判官 盧錠**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보게 하였더니,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배가 바**

기를 "서양 사람을 구제하여 살리는 문제는, 대신이 입시할 때에 다시 품달하여 처리하라고 전교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대신이 입시하였으니 상의하여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랑캐 땅에 사는 사람이 표류하여 여기까지 왔으니 비록 귀순해 온 것은 아닐지라도 마땅히 살려 주어야 할 것이다. 듣자니 島中에 기근이 들어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하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관가의 곡식으로 먹이는 것은 계속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육지로 거느리고 와서 생계를 꾸려가게 함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성으로 거느리고 와서 訓局(훈련도감)에 그 이름을 소속시켜 편케 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그들의 物貨는 오는 배편에 부치게 하고 그들은 육지로 거느리고 오게 하되 경과하는 각 관에서 供饋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今月二十三日引見時, 右承旨李元鎭所啓, 西洋國人救活事, 有大臣入侍時, 更達處之之敎矣, 今日, 大臣入侍, 相議爲之何如, 上曰, 蠻人漂到, 雖非歸附, 亦當有濟活之道, 而聞島中饑荒, 生理甚難云, 何以爲之, 領議政鄭太和曰, 饋以官稟, 勢所難繼, 率來陸地, 使爲生計, 亦或無姑, 上曰, 率來京城, 隷名訓局, 使得安居可也, 領議政鄭太和曰, 渠之物貨, 則載付來船, 渠等則從陸率來, 而所經各官, 使之供饋何如.

117) 유동익, 앞의 책, 28~29쪽.

118) 벨테브레이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범선인 홀란디아(Hollandia) 호에 승선하여 1627년(인조 5) 5월 12일 우베르케르크(Ouwerkerck) 호로 옮겨 타고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제주도에 표착하였다. 그는 동료 2명과 함께 식수를 구하려고 상륙하였다가 관헌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훈련도감에서 총포 제작 등의 일을 담당하였으며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전쟁에 출전하였다가 벨테브레이를 제외한 두 사람은 전사하였다. 벨테브레이는 조선인으로 귀화한 최초의 서양인으로 조선 이름은 박연이고, 조선인 여자와 혼인하여 남매를 두었다.

119) 벨테브레이의 심문 기록은 먼저 諺文으로 問情(조선 시대에 외국의 선박이 처음으로 입항하거나 외국인이 바다에 표류해 왔을 때 관리를 보내어 그 사정을 알아보던 일) 기록을 작성한 후 다시 한문으로 번역하여 중앙에 보고되었다. 원종민, 앞의 논문, 90쪽, 98쪽.

120)『하멜보고서』에는 벨테브레이가 조선의 왕을 만났을 때 "왕은 우리가 새라면 일본으로 날아갈 수 있지만 어떠한 외국인도 이 땅에서 내보낼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왕이 돈과 의복을 내려줄 것이며, 그렇게 이 땅에서 일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유동익, 앞의 책, 30~31쪽.

다 가운데에서 뒤집혀 살아 남은 자는 38인이며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도 다릅니다. 배 안에는 藥材 · 鹿皮 따위 물건을 많이 실었는데 ㉠木香 94包, 龍腦 4缸, 鹿皮 2萬 7千이었습니다. 파란 눈에 코가 높고 노란 머리에 수염이 짧았는데, 혹 구레나룻은 깎고 콧수염을 남긴 자도 있었습니다. 그 옷은 길어서 넓적다리까지 내려오고 옷자락이 넷으로 갈라졌으며 옷깃 옆과 소매 밑에 다 이어 묶는 끈이 있었으며 바지는 주름이 잡혀 치마 같았습니다. 倭語를 아는 자를 시켜 물기를 ㉡'너희는 서양의 기리시단(吉利是段 : 크리스챤)[121]인가?' 하니, 다들 '야야(耶耶)' 하였고, 우리나라를 가리켜 물으니 高麗라 하고, 本島를 가리켜 물으니 吾叱島라 하고, 中原을 가리켜 물으니 혹 大明이라고도 하고 大邦이라고도 하였으며, 西北을 가리켜 물으니 韃靼이라 하고, 正東을 가리켜 물으니 日本이라고도 하고 낭가삭기(郎可朔其) 라고도 하였는데, 이어서 가려는 곳을 물으니 낭가삭기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서울로 올려 보내라고 명하였다. 전에 온 南蠻人 朴燕이라는 자가 보고 '과연 蠻人이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禁旅(훈련도감)에 편입하였는데, 대개 그 사람들은 火砲를 잘 다루기 때문이었다. 그들 중에는 코로 퉁소를 부는 자도 있었고 발을 흔들며 춤추는 자도 있었다.[122]

위의 자료에서 ㉠에 나타난 목향, 용뇌, 녹피 등을 통해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일본과의 무역품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123], 1666년(현종 7) 일본에 도착한 하멜 일행에 대한 심문 기록에는 설탕과 명반[124]도 기록되어 있다. ㉡에서처럼 크리스챤 여부를 물은 것은 일본의 크리스트교

121) '기리시단'은 포르투갈어인 Christão가 발음 그대로 일본어가 된 것이다. 피에르 엠마뉘엘 후, 「조선 架橋의 재발견 : 16-17세기 천주교 선교사의 조선 진출 전략에 대한 기초연구」, 『연민학지』 16, 연민학회, 2011, 195쪽.

122) 『효종실록』 권11, 효종 4년(1653) 8월 6일 무진. 濟州牧使李元鎭馳啓曰: "有舡一隻, 敗於州南, 閣於海岸, 使大靜縣監權克中、判官盧錠, 領兵往視之, 則不知何國人, 而船覆海中, 生存者三十八人, 語音不通, 文字亦異。 船中多載藥材、鹿皮等物, 木香九十四包、龍腦四缸、鹿皮二萬七千。 碧眼高鼻, 黃髮短鬚, 或有剪髯留髭者。 其衣則長及髀, 而四襟衿旁袖底, 俱有連紐, 下服則襞積而似裳。 使解倭語者問之曰: '爾是西洋**吉利是段**者乎?' 衆皆曰: '耶耶' 指我國而問之, 則云高麗, 指本島而問之, 則云吾叱島, 指中原而問之, 則或稱大明, 或稱大邦, 指西北而問之, 則云韃靼, 指正東而問之, 則云日本, 或云郎可朔其, 仍問其所欲往之地, 則云郎可朔其云。"於是, 朝廷命上送于京師。前來南蠻人朴燕者見之曰:"果是蠻人。"遂編之禁旅, **蓋其人善火炮。**或有以鼻吹簫者, 或有搖足以舞者。

123) 목향은 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며, 용뇌는 龍腦香의 樹皮에 구멍을 뚫거나 목재를 건류하여 龍腦油를 받아서 결정체인 氷片으로 만드는데, 향료 및 안약 · 치통 등의 약재로 사용된다. 녹피는 갑옷과 투구 등의 전투복이나 방화복, 담배함, 종이함, 작은 상자 등의 재료에 사용되었는데, 데지마의 네덜란드 상관은 일본의 수요에 부응하여 대량의 사슴 가죽을 수출하였다. 국립제주박물관 편, 앞의 책, 198~199쪽.

124) 설탕은 당시 일본 식생활에서 가장 선호했던 수입품 중 하나였고, 명반은 직물 염색에서 중요한 매염제로 사용되었는데, 일본풍의 도안과 염색 직물들이 유럽에서 환영받았다. 국립제주박물관 편, 앞의 책, 199쪽.

에 대한 禁敎 시책과 조선에 대한 耶蘇宗門禁制 요청과 관계가 있다.[125] 그러나 『하멜보고서』에는 크리스챤 여부를 직접 묻는 질문은 나와 있지 않고 그들의 행선지를 묻는 물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항해를 막았다"고 대답하고 있어[126] 『효종실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표착 후 4달 뒤에 승지 서원리는 그들의 鹿皮 등을 국가에서 값을 주고 사서 청나라 사신이 요구하는 대로 쓰려는 계획에 대해, 의지할 곳 없는 외국인을 돌봐주기는 커녕 오히려 장삿꾼처럼 취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127] 이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서양인들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8] 제주 목사 이원진이 발령받아 떠난 후, 하멜 일행은 1654년(효종 5) 5월 말에 왕의 답신이 와서 서울로 가게 되었다.

다음으로 서울 생활을 살펴보자. 하멜 일행은 1654년(효종 5) 6월, 제주도를 출발하여 약 보름 만에 서울에 도착하여 2~4명의 조로 편성되어 각각 중국인들 거류지로 분산 수용되었다.[129] 그들은 왕(효종)을 직접 알현했을 때, 일본을 거쳐 고국으로의 송환을 탄원하였다. 그러나 효종은 "이방인들을 이 땅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이 나라의 관습이 아니므로 조선에서 일생을 마칠 것과 대신 생계는 보장해 주겠다."고 대답하였다.[130] 효종은 이들을 잘 대우하였으며 네덜란드식 노래와 춤을 추게 하였고 亞麻布 2필씩을 선물하였는데, 이것으로 그들은 처음으로 조선식 의복을 입게 되었다.[131] 이를 통해 효종은 새로운 유럽의 문화를 접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하멜 일행 역시 점차로 조선의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하멜 일행은 司譯院에 가서 살며 給料를 받았고 군인으로 守直하게 하

---

125) '耶蘇宗門禁制'로 인하여 1645년(인조 23)에 동래부사였던 이원진에게 크리스트 교도들을 체포해 일본으로 보내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1653년(효종 4)에 제주목사로 있던 이원진은 서양인들에게 크리스챤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다.

126) 유동익, 앞의 책, 27쪽.

127) 『효종실록』 권11, 효종 4년(1653) 12월 5일 정묘. 承旨徐元履上疏以爲 : **濟州漂來人所持鹿皮, 自國家給價買來, 將用於淸使之需索云,** 臣恐待遠人之道, 不當如是。彼人等漂來我國, 無所依止, 唯望朝廷軫念懷綏, 今者不此之恤, 而遽相買賣, 有同商賈, 豈不虧國家之大體乎?" 命議于廟堂, 議竟不行。

128) 지명숙, 앞의 논문, 62쪽.

129) 지명숙, 앞의 논문, 62쪽.

130) 유동익, 앞의 책, 38쪽.

131) 유동익, 앞의 책, 38쪽.

였으며[132] 훈련도감에서 기예를 교습 받고 料布를 포수의 예에 준하여 지급받았다.[133] 하멜 일행의 조선 생활을 도와주었던 벨테브레이는 홍이포[134]와 조총의 제작법과 조종법을 알고 있었고[135] 하멜 일행 역시 대포와 조총을 가지고 다룰 수 있었으므로 이들은 서양의 과학 기술을 전파하였다고 할 수 있다.[136] 따라서 효종이 북벌 정책의 실현을 위해 이들의 기술을 이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멜보고서』에는 이들이 왕의 호위부대로 임명되었으며, 그 대가로 한 달에 쌀 70근씩 받고, 조선 말로 이름과 나이, 출생 국가, 왕의 호위 임무를 새겨 왕과 총사령관(훈련대장 : 당시 책임자는 李浣 대장)의 낙인을 새긴 호패를 받았으며, 소총(화승총), 화약, 총알을 받고 新月(초하루)과 滿月(보름날) 때마다 왕을 방문하여 경의를 표해야 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137] 이를 통해 조선 정부에서는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하멜 일행 중에는 조선어를 비교적 잘했던 세 사람이 1655년(효종 6)에 제주도에 난파된 또 다른 서양 표류민을 위한 통역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138] 이를 통해

---

132) 『비변사등록』 17책, 효종 5년(1654) 5월 12일 신축. 啓曰, **朴延**率來諸人, 今已入京, 卽令就舍於**司譯院**, 自今日計口**廩給**, 多定軍人**守直**, 令兵曹, 量宜擧行, 而此後處置之事, 廣議稟定何如, 答曰, 允。

133) 『비변사등록』 17책 효종 5년(1654) 5월 13일 임인. 啓曰, 臣等, 來會賓廳, 招朴延問之, 則此人等, 不可同在一處, 各給保授, 使之散處閭家相近之地, 時或往來相見云, 依前定奪, 隷名訓局, 令朴延, 定將領率, **敎習技藝, 料布則自訓局, 依砲手例支放,** 未及保授之前, 仍留司譯院, 令朴延, 覓得可授者然後, 隨得隨送爲當, 群議如此, 以此分付何如, 答曰, 依啓。

134) 홍이포는 붉은 오랑캐(네덜란드인)의 대포라는 뜻이다. 1604년 네덜란드인과 벌인 전투에서 상대편 대포의 성능에 놀란 명이 네덜란드 대포를 모방해 만들었다. 후금(훗날의 청) 군대도 홍이포 제조법을 배워 주력 대포로 사용했다. 1631년 정두원은 명에서 조선에 돌아올 때 홍이포를 가져왔다. 문중양 · 염정섭 · 오상학 · 이경구 · 한명기, 앞의 책, 260쪽.

135) 벨테브레이에 대해 윤행임의 『석재고』는 "병서에 재주가 있고 화포를 매우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다.……박연은 나라를 위해 재능을 살려, 드디어 홍이포의 制를 전하였다. 기이한 일이다."고 전하였다. 『인조실록』에는 인조 26년(1648) "庭試를 시행하여 문과에 李廷夔 등 9인을, 무과에 朴淵 등 94인을 뽑았다."고 하였다. 신동규, 앞의 논문, 2003c, 232~234쪽.

136) 『효종실록』 권17, 효종 7년(1656) 7월 18일 갑자. "새로운 체제의 鳥銃을 만들었는데, 이보다 먼저 蠻人이 표류하여와 그들에게서 조총을 얻었는데 그 체제가 매우 정교하므로 訓局에 명하여 모방해서 만들도록 하였다" 造新制鳥銃。先是, 蠻人之漂到也, 得其鳥銃, 其制甚巧, 命訓局倣而造之。

137) 유동익, 앞의 책, 38쪽.

138) 유동익, 앞의 책, 42쪽.

조선에서는 이미 표류해 온 표류민의 언어를 통해서 또 다른 외국 표류민과 의사소통을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139]

하지만 조선인들과 다른 생김새로 인하여 신기한 사람들로 여겨져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웃음거리가 되어 구경꾼들 때문에 집에서도 휴식을 취할 수가 없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140] 그러다가 청나라 사신 앞에 탈출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들은 결국 왕(효종)과 왕의 동생(인평대군), 일부 고관들의 동정심으로 전라도 강진에 유배되었다.[141]

세 번째로 강진 全羅兵營에서의 생활에 대해 살펴보자. 1656년(효종 7) 3월 초, 하멜 일행은 서울을 떠나 강진으로 보내져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33명이 다 함께 단체 생활을 하며 7년 동안 지냈다.[142] 강진은 조선 전기 이래 '방어에 가장 긴요한 곳'으로 병마절제사영이 있어 좌 · 우 수영과 일반 군현을 아우르는 도 단위 지역 방어의 수뇌부 역할을 하였고 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일본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 곳이었다.[143] 이들은 왕으로부터 한 달에 쌀 50근 정도만 지급받았고 정기적인 군사 훈련에 참가하였으며 관가 앞에 풀을 뽑고 청소하는 노동에 동원되었다.[144] 생필품과 땔감을 직접 구하였으며 외출을 허락받아 농가나 절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였다.[145]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모험담을 들려주고 돈을 벌게 되었는데, 호기심이 무척 강한 주민들이 진기한 풍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였다.[146] 특히 스님들은 네덜란드와 다른 나라의 관습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 들었는데[147] 전라병영 근처에는 수인사, 무위

139) 원종민, 앞의 논문, 101쪽.
140) 제주도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물처럼 생겼다고 소문을 퍼뜨려 원망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마실 때는 코를 귀 뒤로 돌리고 금발로 인해 바다 동물처럼 생겼다고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썼다. 유동익, 앞의 책, 39쪽.
141) 유동익, 앞의 책, 43~44쪽.
142) 김동전, 앞의 논문, 223~224쪽.
143) 송양섭, 「조선후기 강진병영의 지휘체계와 군수조달」, 『역사학연구』 52, 호남사학회, 2013, 31쪽, 56쪽.
144) 유동익, 앞의 책, 44~45쪽.
145) 유동익, 앞의 책, 46~47쪽.
146) 지명숙, 앞의 논문, 68쪽.

사, 백련사 등의 절들이 있어 자주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1660년(현종 1)~1662년(현종 3) 계속된 흉년과 기근으로 하멜 일행에 대한 수당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정부에서는 분산 배치를 논의하였고[148] 여수(=신성) 전라좌수영에 12명, 수니신(순천)에 5명, 남만(남원)에 5명이 분산 배치되었다. 이때 서로 헤어지는 것을 슬퍼했는데, 그 이유는 '강진병영에서 가재도구와 작은 정원을 가진 집에 살면서 이 나라의 기준에 맞게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쉽사리 새로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49]

이 기간 동안 특이할 만한 것은 하멜 일행이 한국 여자들과 혼인을 맺고 자식이 생겼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는 기록이 있다.[150] 이것은 조선에 1명이 잔류하여 결국 7명이 송환되었다는 내용과 연결될 수 있으며 하멜 일행의 후손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여수 全羅左水營에서의 생활을 살펴보자. 1663년(현종 4) 여수에 도착한 하멜 일행은 집 한 채와 기존에 받던 수당을 지급받았고 많은 부역에 종사하면서 고초를 당하였다.[151] 1664년(현종 5)에는 신임 좌수사인 이도빈[152]을 만났는데, 그는 모든 부역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147) 유동익, 앞의 책, 47~48쪽.

148) 『비변사등록』 22책 현종 3년(1662) 1월 20일 임인. "몇 년 전에 제주도에 표류해 온 蠻人을 서울에 머물러 두는 것이 불편하므로 모두 전남병영으로 옮겨 보내어 관가에서 식량을 주도록 했는데 이미 사고로 죽은 이를 제외하고도 현재 남은 수효가 23명이나 됩니다. 지금 전남감사 李泰淵의 보고를 접해보니, '병영은 바로 강진지방이므로 강진에 회부한 곡식으로 蠻人의 食料를 지급해야 하는데 본 고을은 飢荒이 더욱 심한 지역이어서 받아들일 환곡이 겨우 66석 남짓합니다. 앞으로 구제할 자본이 여전히 부족할까 염려되므로 蠻人의 식량을 이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다른 고을의 조금 나은 곳으로 옮겨야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의 형세가 참으로 보고한 바와 같다면 본도 감사로 하여금 그 多少를 참작하여 좌수영과 좌도 큰 고을에 옮겨두고 착실히 단속하여 마을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오니 이러한 뜻으로 분부함이 어떻겠습니까?하니 啓曰, 年前濟州漂到蠻人, 置之京中不便, 故竝·送于全南兵營, 官給口糧, 除已物故者外時存之數, 尙二十三名矣, 卽接全南監司李泰淵所報, 則兵營, 是康津地方, 以康津會付之米, 題給蠻人之料, 而本縣, 尤甚饑荒, 還上所捧之米, 僅至六十六石零, 將來賑濟之資, 猶患不足, 蠻人所食, 無以爲繼, 此類移置他邑稍實處云, 事勢誠如所報, 令本道監司, 參量多少, 移置於左水營及左道大邑, 而着意防禁, 俾無橫行閭里之弊, 宜當, 以此意分付, 何如.

149) 유동익, 앞의 책, 75쪽.

150) N.Witsen, Noord en Oast Tartarye, 암스테르담, 초판(1602) 23쪽. ; 지명숙, 앞의 논문, 68쪽 재인용.

151) 유동익, 앞의 책, 76쪽. 유동익의 책에는 분산 배치한 해를 1662년으로, 지명숙 · 왈라벤의 책에는 1662(1663)년으로 기록하였으나 김태진, 강준식의 책은 1663년으로 서술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외출을 자유롭게 해 주었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듬직한 우정을 보여 주었다.[153] 좌수사는 “왜 일본으로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는가?”를 물어보았고 이들은 “만일 실패하면 왕은 탈주한 것뿐만 아니라 남의 배를 훔친 것까지 처벌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기도 하였다.[154] 그러나 이후 좋지 않은 지방관들의 강제 노역(날마다 벼를 찧거나 새끼줄을 꼬는 작업)과 학대, 굶주림 등으로 힘들었으며 자신들의 부당한 노동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결국 배를 구하여 1666년(현종 7) 9월 4일 밤 하멜을 포함한 일행 8명이 탈출하였다.

하멜 일행은 일본의 고토(五島)를 거쳐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하였으며, 데지마(出島)에 1년간 머물다가 귀국하였다.[155] 하멜은 1666년(현종 7) 9월부터 바타비아를 향해 출발한 1667년(현종 8) 10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나가사키에 체류하면서 항해 일지를 집필했다.[156]

그렇다면 하멜 일행의 탈출 시도는 몇 번이나 있었을까? <표3>을 보면 총 4번 있었고 결국 치밀한 계획을 세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들은 부모, 형제, 친구들이 있는 고향이 그리웠고[157] 유배지에서 좋지 않은 지방관을

---

152) 강준식, 앞의 책, 124~127쪽. 이도빈은 1664년(현종 5)부터 1666년(현종 7)까지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였는데 좋은 사령관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종실록』 7권 현종 5년(1664) 1월 29일 임진. 李泰淵을 우부승지로, 兪棪을 전라 병사로, 李道彬을 전라 좌수사로 삼았다. 以李泰淵爲右副承旨, 兪棪爲全羅兵使, **李道彬**爲全羅左水使. 『승정원일기』 198책, 현종 7년(1666) 11월 30일 병오. 전임전라좌수사 이도빈은 추호도 법을 어긴적이 없다. 마음을 다하여 자기 직무를 수행했으며, 관사, 성, 보루, 배, 그리고 많은 군사 장비를 일신하여 고치고 수리하지 않은 것이 없다. 더욱이 그는 인자함과 사랑으로 군병을 보살폈다. 해현청을 설치하여 쌀과 포목을 넉넉히 지급하여 이로써 사람을 맞고 배웅하는데 드는 마부와 말 값을 모두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 휘하에 있는 사병과 진영에 속해 있는 모든 군병은 지금도 그를 칭송한다. 兵曹啓目。以御使書啓判下云云, 全羅左道前水使**李道彬**, 不犯秋毫, 竭心職事, 以至官舍城堡, 舟楫軍器, 無不一新繕修, 而尤以惠愛軍兵爲意, 急設解懸廳, 優給米布, 以爲凡使迎送夫馬之費, 鎭下土兵·營屬諸軍, 至今稱頌是如爲白乎旀. 『현종실록』 13권, 현종 7년(1666) 11월 30일 병오. 전라 좌수사 李道彬은 마음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군사들을 사랑한다고 하였는데, 상이 아름답게 여기고 모두에게 加資하라고 명하였다. 全羅左水使**李道彬**, 盡心職事, 惠愛軍兵, 上嘉之, 竝命加資。

153) 김태진, 앞의 책, 49쪽. ; 지명숙 · 왈라벤, 앞의 책, 259쪽.

154) 유동익, 앞의 책, 77쪽.

155) 유동익, 앞의 책, 85~87쪽, 103쪽.

156) 유동익, 앞의 책, 110쪽.

157) 유동익, 앞의 책, 38쪽. ; W.E.그리피스 지음 · 신복룡 역주, 『은자의 나라 한국』, 집문당, 1999, 231쪽에서는 ‘표류자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탈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몰두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고 하여 탈출 기도가 당연하다고 쓰고 있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만나면서 삶이 힘들었으며 젊은 혈기와 여러 명이 단체로 움직였기 때문에 탈출을 계속 생각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3> 하멜 일행의 탈출 시도[158]

	연도	지역	주동자	탈출 내용	결과
1	1654년 (효종 5) 4월말	제주	일등항해사 포함 총 6명	• 밤중에 배를 타고 달아나려는데 일행 중 1명이 상태를 점검하려고 담을 넘다가 발각 • 개가 짖고 경호군의 경비가 삼엄[159]	실패
2	1654년 (효종 5) 5월초	제주	항해사 포함 6명	• 항해사가 외출할 차례에 선원 5명과 함께 배를 발견해서 끌고 옴. •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돛대가 부러짐. • 태형 25대와 외출 금지의 처벌을 받음.	실패
3	1665년 (현종 6) 3월	서울	헨드릭 얀스+헨드릭 얀스 보스	• 청나라 사신이 돌아갈 때 탈출 시도 • 주동자 2명은 감옥에서 병사. 나머지 선원들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곤장 50대를 선고받았으나 왕의 배려로 집행 안 함.	실패
4	1666년 (현종 7) 9월	여수	여수에 있는 하멜 등 5명 +순천에 있는 3명 등 총 8명	• 1664년(현종 5)부터 배를 사려고 노력함. • 1666년(현종 7) 목화를 장만하기 위한 배를 부탁하여 어부의 배를 삼(서양인에게 팔린 것을 알고 취소하려 해 2배의 값을 지불함). • 하멜, 항해에 노련한 얀 삐떠르서(Jan Pieterse) 등은 9월 4일 밤에 이웃 사람들의 의심을 덜기 위해 잔치를 벌이면서 준비를 마치고 돛을 올려 항해를 함.	성공

2) 『하멜보고서』에 기록된 '조선국 기술'

『하멜보고서』에는 하멜 일행의 조선에서의 삶과 탈출이야기를 쓰는 중간 부분에 조선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17세기 조선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서양인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과 조선인들의 서양인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배치 방법은 각 번역본별로 차이가 있는데, 제목 없이 중간에 서술하거나 '조선국 기술' 또는 '조선 왕국기'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중간이나 끝부분에 배치하였으며[160], <표4>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58) 지명숙 · 왈라벤, 앞의 책 ; 유동익, 앞의 책을 참고하여 본고에서 새로 작성한 표이다.

159) W.E.그리피스 지음 · 신복룡 역주, 앞의 책, 231쪽에서는 '유럽인들의 몸에서는 몽골족들과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여 개가 짖은 것이 인기척보다는 인종주의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다.

160) 유동익의 책은 제목 없이 중간에 배치, 지명숙 · 왈라벤의 책은 '조선국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중간에 배치, 김태진의 책은 '조선국에 관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끝에 배치, 강준식의 책은 '조

KOREA UNIVERSITY 1905

<표4> 『하멜보고서』의 '조선국 기술' 내용 분석[161]

분야	주제	주요 내용
지리	1. 지리적 위치	• 8개의 도, 360여개의 고을, 산에는 성채, 해안가에는 병영 존재 • 남동쪽으로 일본, 서쪽으로는 중국해안가, 북쪽으로는 중국의 북부 지역과 산맥을 두고 경계, 북동쪽에는 큰 바다(공해)가 있음.
	2. 북부 지역	• 북쪽 지역 사람들은 보리와 기장 및 그와 같은 곡물로 연명함. • 인삼을 재배하며 청에 조공으로 보냄, 중국 · 일본인들과 거래됨.
정치	3. 왕과 양반	• 조선 국왕은 청나라 왕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절대적 존재임. • 양반들은 약 2000~3000명의 노비를 거느리며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섬과 영지를 소유함. 그들이 죽으면 다시 왕에게 귀속됨.
	4. 군사 조직 및 군역	• 각 지방에는 사령관(병마절도사 또는 관찰사)이 있고 그 밑에는 부사령관(병마절제사 또는 방어사)이 서 너 명 있음.[162] • 장교는 활과 화살을 지님, 일반 군사들은 화약, 탄환 50발 소지 • 사찰 승려는 성곽과 요새를 방어 및 보수, 유사시 군사로 이용 • 60세가 넘은 사람은 병역에서 면제되고 자식들이 다시 복무함. • 해안가의 도시는 선원과 탄약, 그 외 장비를 갖춘 전투용 선박이 있음. 이중 갑판과 20~40개의 노가 있고 200~300명이 탑승함.
	5. 중앙, 지방 관제	• 어전회의는 매일 궁궐에 출근하여 모든 사건을 왕에게 보고함. • 수령의 임기는 1년, 지방 관속들은 지위에 상관없이 3년마다 교체됨.
	6. 국왕의 행차	• 왕의 행차시 모든 대신들이 수행하고 기병과 보병이 행진함. • 백성들의 상소문을 거두어 왕이 처리함.
경제	7. 재정	• 왕은 농산물과 수산물에서 거둬들인 세입으로 재정 수입을 조달 • 모든 마을에는 조세 저장 창고가 있음. 연 10% 이자로 대여됨.
	8. 농업, 한약	• 필요한 모든 식량을 자급자족. 은, 철, 납, 호피, 인삼 뿌리가 남. • 타고난 체질상 아주 건강한 민족으로서 의원 대신 장님과 점쟁이들에게 찾아가며 그들이 귀띔해 준대로 실행함.
	9. 도량형	• 길이와 무게의 단위는 전국이 똑같으나 속임수가 행해짐. • 은화는 무게에 따라 크고 작은 조각으로 발행되며 일본과 같음.
	10. 동물	• 말, 소, 호랑이, 곰, 사슴, 개, 고양이 등과 많은 조류가 있음.
법	11. 사법 (형벌)	• 국왕이나 국가에 반역죄 처벌은 가혹하며 가문은 멸족 당함. • 남편이 부인을 죽였을 때 간통,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 X • 여자 노비를 죽인 사람은 주인에게 3배의 값을 지불함. 주인을 죽인 노비는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함. 주인은 사소한 이유로 노비를 죽일 수 있음. • 살인자는 죽인 사람의 몸을 씻은 후 그 물을 마심. 절도범은 죽을 때까지 발바닥을 때림. 간통한 남녀는 볼기에 50~60대 맞음. •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한 달에 두 세 차례 완납할 때까지 정강이를 맞음. 세금을 내지 않고 죽으면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냄.
종교	12. 종교	• 고관, 양반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함. •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죽으면 승려들이 염불식을 올림. • 승려는 하급 신분, 주지승은 학식이 높아 존경 받고 국사라 함.
사회	13. 거주	• 고관들의 집은 매우 호화로우나 일반 백성들은 초라함. • 방바닥 밑은 오븐 같은 온돌 있음. 방바닥은 유지를 바름. • 양반들의 집 앞쪽 별채에서 손님을 접대함. 큰 뜰, 연못, 화단에 여러 꽃들과 나무, 바위가 있음. 부녀자들은 안채에서 생활함.

선왕국기'라는 이름으로 끝에 배치하고 있다.

161) 지명숙 · 왈라벤, 앞의 책, 229~256쪽. ; 유동익, 앞의 책, 48~74쪽. ; 김태진, 앞의 책, 83~117쪽을 요약 정리하여 본고에서 재구성한 표이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14. 혼례	• 4촌 이내의 친척과는 혼인할 수 없음. 부모나 친척들의 뜻에 따라 여덟살, 열 살, 열두 살 혹은 더 나이가 들면 혼인을 함. • 남자는 그의 부인을 내쫓을 수 있고 다른 여자를 맞이할 수 있으나 여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한 다른 남자를 맞아들일 수 없음. 남자는 많은 아내를 둘 수 있고 기생집에 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 남에게 욕을 먹지 않음.
	15. 교육	• 양반과 평민들은 자식을 아주 잘 교육시키려고 함. • 해마다 각 도의 두세 지역에서 과거 시험이 열림. • 부모는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자식도 부모를 소중히 여김.
	16. 장례, 상속	• 아버지가 죽으면 3년, 어머니가 죽으면 2년을 애통해 함. • 초상이 나면 가족들은 머리카락을 뜯으며 울며 구슬픈 곡을 함. • 지관은 산에 장지를 정하고 매장은 봄, 가을 추수 후에 함. • 남겨진 유산이 있으면 맏아들이 그 집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을 차지함. 토지와 나머지 물건들은 아들들 사이에서만 나누어짐. 아들이 있는데도 어떤 유산의 일부를 딸들이 물려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음.
	17.국민성	•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며 속이는 경향이 강해 믿으면 안 됨. • 마음씨가 좋고 남의 말을 아주 쉽게 곧이듣는 경향이 있음. • 외국 사람들을 좋아하여 잘 따르며 특히 승려들이 그러함. • 전염병 환자를 꺼려해 마을 밖의 초막에 살게 하고 돌보지 않음.
대외관계	18. 상업 및 대외관계	• 대마도에서 온 일본인들을 제외한 어떠한 나라 사람들도 그곳에서 교역을 할 수 없음. 부산에 왜관은 대마도 도주가 관할함. • 북경과 중국 북쪽 지역에서 약간의 무역을 함. 양반들과 거상들은 은으로 거래하지만 농민이나 평민들은 쌀과 곡물로 함. • 조선인들은 12개 국가만 알고 있음. 옛 문헌에 84,000여 나라가 있다고 기록되었으나 조선인들은 우화로 여김. • 일본을 통해 담배가 들어왔고 은이나 물건을 지불하여 삼.
	19. 중국 사신	• 청나라 사신이 오면 왕은 대신들과 서울 교외까지 나가 사신을 맞이하고 예를 표하고 숙소로 안내하고 잘 대접하여 사신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하게 함.
문화	20. 언어, 문자, 계산법	• 언어는 다른 언어들과 다르고 배우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기 때문임. • 세가지 방식으로 글을 쓰는데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의 것과 같으며, 두 번째의 것은 흘려 쓰는 것으로 네덜란드식 필기체와 같음. 세 번째는 가장 간단한 서체로 여자들이나 평민들이 사용함. 그 서체는 매우 쉽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글자를 통하여 알려지지 않은 일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들을 다른 서체보다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음. • 사본과 활자판은 화재로 전소되는 것을 막으려 여러 곳에 보관 • 계산은 긴 나무판(주판)으로 하며, 아무도 상업부기를 알지 못함.

각 분야별로 조선에 대한 기술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국명과 위치에 대해 '우리가 코레이(Coree)라 부르고 조선인들은 조선국(Tiocen Cock:[됴센 곡])이라 불리는 이 나라[163]는 북위 34.5도와 44

162) 지명숙 · 왈라벤의 책에는 사령관을 병마절도사, 부사령관을 병마절제사 혹은 방어사로 기록하여 군사 조직으로 표현하였으나 유동익의 책에는 사령관을 관찰사, 부사령관을 도사, 판사, 중군 등으로 기록하여 행정조직으로 표현하였다. 병마절도사와 관찰사가 겸직이 가능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같이 썼고 부사령관은 병마절제사 혹은 방어사 표현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163) 17~18세기 세계 지도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명칭은 조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Comrai,

도 사이에 위치'한다 하여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조선이 섬이 아닌 반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또한 쓰시마가 임진왜란 때 일본 땅이 되었고 그 대가로 제주도가 반환되었다는 기록[164]은 사실 오류이다.

군사, 사법(형벌), 종교, 혼례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주목할 것은 조선인의 국민성에 대한 인식이다. "훔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습성이 지극히 농후하여 그들을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된다."[165]고 불신하였다. 또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는 그게 마치 무슨 자랑인 양 우쭐대며, 그런 정도는 그들 간에는 아예 수치로 여기지도 않는다."[166]라고 부정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음씨가 좋고 남의 말을 아주 쉽게 곧이 듣는 경향이 있어, 우리는 원하는 대로 뭐든지 그들을 속여 먹을 수 있었다."[167]라고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자신들이 속였던 사실도 고백하였다. "달단인(청나라인)들이 그 나라를 점령했을 때는 적에게 붙들려 죽임을 당한 자들보다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은 자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으며, 그들은 그 같은 자결 행위를 죄악으로 여기지 않을 뿐아니라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며 역성을 들고 동정을 표하였다."[168]라고 하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자존심이 강한 민족으로 표현하고 있다.[169]

대외인식에 대해서는 "외국 사람들을 좋아하여 잘 따르며 특히 중들이 그러하다."[170]고 쓰고 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단지 12개의 국가만 알고 있으며, 세상에 84,000여개의 나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들은 그것을 우화로 여긴다. 그들은 모든 섬과 절벽 그리고 바위들까지 계산한

Conrai, Cory, Corea 등으로 표시되고 있어 고려 시대 아랍인에 의해 알려진 것이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44년 아시아 지도에서는 조선(Chao Sien)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멜보고서』에 표기된 '됴센 곡(지명숙 · 왈라벤, 앞의 책, 229쪽.) 또는 툐센 쿡(김태진, 앞의 책, 146쪽.)'은 17세기 중엽 조선말이다. 그리고 이전에는 지도에 반도보다는 섬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주로 반도국으로 표현되어 있어 17세기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서양에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혜은, 앞의 논문, 338~341쪽.

164) 유동익, 앞의 책, 49쪽.
165) 지명숙 · 왈라벤, 앞의 책, 249쪽.
166) 지명숙 · 왈라벤, 앞의 책, 249쪽.
167) 지명숙 · 왈라벤, 앞의 책, 249쪽.
168) 지명숙 · 왈라벤, 앞의 책, 249쪽.
169) 지명숙, 앞의 논문, 81쪽.
170) 지명숙 · 왈라벤, 앞의 책, 249쪽.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태양이 한나절동안 그렇게 많은 나라를 비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가 몇 나라의 이름을 나열하자 그들은 우리를 비웃으며 그것들은 도시와 도읍의 이름이라고 말했다."[171]라고 하여 좁은 세계관과 편협한 시야를 가지고 있음을 비판하였다.[172] 이러한 표현들은 19세기 그리피스의 책[173] 등 서양인들의 한국 서술에 영향을 주어 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에 조선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우수성을 파악한 부분도 있다. "그들의 언어는 다른 언어들과는 다르고 배우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기 때문이다."[174]라고 하여 조선어의 특징을 잘 파악하였고, "세 번째로 제일 하급의 문자(언문)는 아녀자들과 서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배우기 아주 쉽고 그것으로 모든 사물을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름도 아주 수월하게 그리고 앞에 말한 문자들보다 더 정확히 음을 표시해 낼 수 있다."[175]고 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교육에 대해서는 "양반과 평민들은 …… 교육을 잘 시키려는 성향이 있으며 부드럽고 좋은 방법으로 실시된다. 항상 앞서간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에 대한 지식을 배우며 자신들이 본보기로 삼는다.……그렇게 나이 어린 소년들이 현인들의 저서를 읽고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176]라고 하여 그 시절에도 교육적 열의가 많았음을 서술하였다.

이렇게 『하멜보고서』는 사료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교과서에는 그 의의조차 서술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고 서술되었더라도 어떤 내용이 어떻게 실려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하멜보고서』의 내용들을 교과서에 사료로 제시해 준다면 내용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71) 지명숙 · 왈라벤, 앞의 책, 251~252쪽.
172) 지명숙, 앞의 논문, 85쪽.
173) W.E.그리피스 지음 · 신복룡 역주, 앞의 책.
174) 유동익, 앞의 책, 72쪽.
175) 유동익, 앞의 책, 72쪽.
176) 유동익, 앞의 책, 63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3. 하멜에 대한 기억과 기념

하멜 일행이 거쳐 갔던 제주도, 강진, 여수에는 365년이 지난 지금 기억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먼저 하멜이 약 7년간(1656~1663) 가장 오래 머물렀던 전남 강진군 전라병영성에는 '하멜기념관'이 조성되었다(<그림1> 참조). 강진군청에서 1998년 하멜의 고향 네덜란드 호르큼 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문화적 교류를 하면서 2007년 12월 3일에 개관한 것이다. '하멜기념관'의 타원형의 전시관 건물은 하멜이 표착한 남도의 섬을 상징하며, 맞은편 사각형 건물은 망망대해에 표류한 선박 스빼르베르 호를 상징한다. 전시실 내부는 각 주제별로 5개의 전시실(① 헨드릭 하멜, 그는 누구인가? ② 17세기 네덜란드, 과연 어떤 나라인가? ③ 헨드릭 하멜, 그는 왜 조선으로 오게 되었는가? ④ 헨드릭 하멜, 그가 조선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⑤ 강진이 이어가는 한국 · 네덜란드 교류사)로 나뉘어져 있고 『하멜표류기』 사본을 비롯하여 150여 점의 유물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기념관은 하멜이 조선에 표착한 역사적 의미 및 17세기 국제 교류사의 조사 연구, 유물 전시를 통한 교육, 나아가 한국 · 네덜란드 간의 문화적 교류 증대를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177]

또한 병영성 일대에는 하멜의 역사적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병영마을 옛 담장은 담장이 크고 길다하여 '한 골목'이라 불렸다. 황토와 돌을 빗살무늬방식으로 쌓아서 만들었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담과는 다른 네덜란드식 담장이며, 아마도 하멜 일행이 노역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178] 성동리에는 수령이 약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고 근처에 수인사란 절이 있는데 하멜 일행은 이곳에 스님들과의 교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진군청은 하멜 캡슐시스템 웹사이트[179]도 운영하고 있다. 하멜정보관, 체험관, 관광관, 학문관, 통상관, 어린이 하멜관, 커뮤니티 등 다양한 콘텐츠로 하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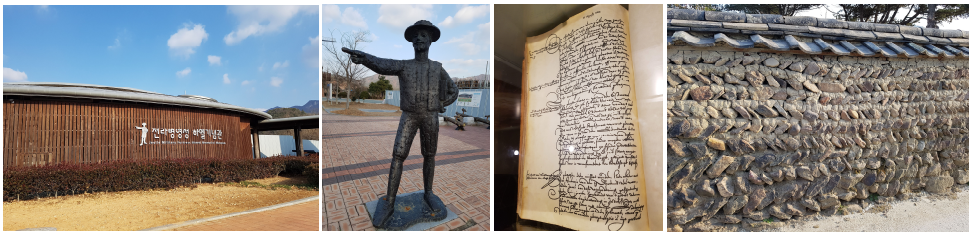
177) 강진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팜플렛 자료
178) 강진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팜플렛 자료
179) http://www.hamel.go.kr/index_new.html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고 매년 4월에는 '병영성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2019년까지 하멜 문화촌이 건립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연구도 있다.[180]

한편, 하멜의 고향인 네덜란드 호르큼 시에도 '헨드릭 하멜 박물관(Hendrick Hamel Museum)'이 2015년에 개관하였으며 강진군과 지속적인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81]

<그림1> 강진 전라병영성의 하멜기념관



강진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 하멜 동상 | 하멜보고서 사본 | 병영성 한골목의 빗살무늬 벽담장

둘째, 하멜이 마지막 3년 6개월간 체류한 곳이며 탈출지였던 전남 여수에는 2012년에 개관한 '하멜전시관'이 있다(<그림2> 참조). '하멜 전시관' 1층에는 17세기 네덜란드, 하멜, 조선의 연대표가 있으며 엑스포 기간 네덜란드관에서 기증한 지구본과 함께 탈출에 성공한 15명의 이름으로 조형물을 만들었다. 『하멜보고서』 사본과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연합회사 및 조선의 상황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있으며, 하멜의 표착부터 탈출까지의 생활상을 순서대로 재미있는 삽화와 사료를 통해 알기 쉽게 전시하였다. 특별전시실을 포함해 5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는데 제1전시실은 회상, 제2전시실은 귀환, 제3전시실은 실현, 제4전시실은 비전을 주제로 운영되고 있다.[182] 전시관 밖으로는 여수 앞바다가 바로 보이고 방파제 끝에는 빨간색의 하멜 등대가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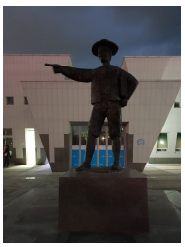
180) 강주형, 앞의 논문, 2008.
181) http://www.hendrickhamelmuseum.nl/
182) 여수 하멜전시관 팜플렛 자료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그림2> 여수 하멜전시관과 하멜 등대



여수 하멜전시관


하멜 동상



전시관의 지구본과 조형물



하멜 등대

셋째, 하멜의 최초 표착지였던 제주도에는 '하멜기념비'와 '하멜상선전시관'이 건립되었다(<그림3> 참조). 최초 난파 상륙 지점으로 추정되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앞 용머리해안[183] 언덕에 높이 4m, 너비 6.6m의 크기로 '하멜기념비'가 있다. 1980년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이 하멜 일행의 표류를 기념하고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세웠다.

기념비 아래쪽 해안가에는 '하멜상선전시관'이 있는데, 당시 난파된 '스빼르베르 호'를 재현하고 내부에 관련 자료를 전시한 것으로 하멜 표착 350년을 기념하여 2003년 8월 15일 준공되어 개관한 것이다. 규모는 전장 36.6m, 폭 7.8m, 갑판높이 11m(돛대높이 32m)이며, 상선의 모델은 네덜란드에 재현된 17세기 상선 '바타비아 호'이다.[184]

배에 올라가서 3층부터 1층으로 내려오면서 관람하게 되어있으며 당시의 선상 회의실과 창고를 재현해 놓았다. 그리고 하멜 일행의 여정과 『하멜보고서』에 대한 내용 해설은 동영상으로 처리하고 영어와 중국어 자막을 활용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도의 특징을 살린 전시 방법일 것이다. 그에 비해 상선전시관에는 그 흔한 팜플렛도 없었으며 전반적인 관리와 홍보는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한편, 하멜 일행의 넋을 기리는 '하멜 일행 난파 희생자 위령비'가 2017년 8월 16일에 건립되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 2리 해안에서 제

183) 사계리 용머리 해안은 최초 표착지가 아니다. 유동익, 앞의 책, 106쪽.
184) 제주 하멜상선전시관 해설문 자료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막식을 열었는데, 신도 2리(일명 도원포구)는 최초의 표착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2003년 하멜 일행의 제주 표착 350년 기념으로 국립제주박물관이 주관한 '항해와 표류의 역사' 특별전 도록에서 『지영록』과 과거 문헌, 고지도 등을 근거로 표착지가 대정읍 신도리 해안 일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185] 『지영록』의 '西洋國標人記'에는 '大靜縣地方 遮歸鎭下 大也水 沿邊'[186]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해 준다.[187]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하멜 기념 시설과 홍보는 교과서에서 서술된 하멜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설과 홍보가 가치를 가지려면 각 지역별로 당시 하멜의 생활을 엿볼 수 있도록 특색있게 자료가 전시되어야 하며 전시관을 찾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Ⅲ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하멜과 『하멜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현행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그림3> 제주 하멜상선전시관과 기념비



제주 하멜상선전시관



제주 하멜 동상



하멜기념비



하멜일행난파
희생자위령비

185) 연합뉴스 2017. 8. 16일자.

186) "당시 목사는 이원진, 판관은 노정, 대정현감은 권극중이었다. 계사(주 : 효종 4년(1653)) 7월 24일 서양국 만인 핸드릭얌센 등 64명이 한배에 함께 탔다가 **대정현지방 차귀진 아래 대야수** 근처에서 파선되었다. 익사자 26명, 병사자 2명, 생존자 36명이었다. 옷 입은 것은 검정, 흰색, 빨강의 세 가지 색이 서로 섞였다.……중략……." 牧使 李元鎭 判官 盧錠 大靜縣監 權克中 癸巳 7月24日 西洋國蠻人 핸드릭얌센 64名 同乘 一船 致敗于 **大靜縣地方 遮歸鎭下 大也水 沿邊** 溺死者 26名 病死者 2名 生存者 36名 所着衣黑白赤三色相雜聚首相向或立以書間之……中略…….

187) 채바다,「하멜(Hendrick Hamel) 표류기의 역사적 재조명과 표착지에 관한 연구」,『제주도사연구』7, 제주도사연구회, 1998, 128~132쪽.

Ⅲ. 하멜 관련 현행 역사교과서 서술 분석

1. 중학교 『역사』 교과서 서술 분석

1)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하멜 관련 단원 체제 분석

현재 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역사』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2011년에 부분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2013년도에 만들어진 교과서이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역사』과목의 목표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추구하는 인간상과 구체적인 목표 중에서 다양한 문화 간 소통의 역사, 세계사와의 상호 관련 있는 내용은 <표5>와 같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표5> 중학교『역사』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구체적인 목표[188]

추구하는 인간상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구체적인 목표	⑤ 오늘날의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의 역사적 배경과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여 현대 세계와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확대한다. ⑥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달라지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2011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중학교『역사』교과서는 총 9종이 검정에 통과하였다.[189] 이 중에서 하멜 관련 내용은『동아출판』,『비상교육』,『천재교육』 등 3개의 교과서에만 실렸다. 우선 단원명을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자.

---

188)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 - 41호, 2009.12.23. ; 교육과학기술부, 2011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 361호, 2011. 08. 09 발표, 2013년부터 시행.

189) 2011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역사』 교과서 2013년 판 9종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표6> 하멜 관련 중학교『역사』교과서 단원명(Ⅵ단원만) 비교

	동아출판(2013년)	비상교육(2013년)	천재교육(2013년)
대단원	Ⅵ. 조선 사회의 변동		
중단원	1. 붕당 정치와 탕평 정치의 전개 2. 실학사상의 발달 3. 세도 정치와 농민의 저항 4. 조선 후기의 문화 변동	1. 조선 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 2. 새로운 사회 개혁론의 등장 3. 조선 후기 문화의 변화 4. 농민 의식의 성장과 농민 봉기	1. 조선 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 2. 세도 정치와 농민의 봉기 3. 새로운 사회 개혁론의 등장 4. 문화의 새로운 변화
소단원	(1) 과학 기술과 국학이 발달하다 -서양의 문물이 수용되다 -새로운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국학 연구에 관심을 쏟다 (2) 문화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다 -서민 문화가 꽃피다 -다채로운 문화가 발달하다	(1) 국학과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국학의 발달 -과학 기술의 발달 ('알쏭달쏭.궁금증해결!-한국사와 세계사의 만남) "17세기 조선에 온 서양인들" 삽화 : 하멜 일행이 효종을 알현하는 모습 (2) 조선 후기 문화의 특징은 무엇일까? -서민 문화의 발달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 -판소리와 탈춤 -예술의 변화	(1) 국학과 과학 기술에 고조되는 관심 -국학의 발달과 역사 연구 -지리 및 한글 연구 -서양 문물의 수용과 과학 기술의 발달 ('세계사와의 만남') '조선, 서양과 만나다' 사진 : 하멜기념비 (2) 문예 활동의 새로운 경향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 -판소리와 탈춤 -그림과 공예 (3) 새로운 종교의 유행 -예언 사상의 유행 -천주교의 확산 -동학의 발생

동아출판	이문기, 장동익, 윤희면, 김희곤, 허종, 강태원, 유경아, 이상분, 정은주, 김돈호, 남정호, 문경호, 김영화, 황대현, 이성원, 송영심, 남한호, 조한경, 조영선, 이은주 총 20명
비상교육	조한욱, 이병인, 이종서, 이건홍, 안형주, 최태성, 최현희, 신승원, 권효신, 안선미, 이은석 총 11명
천재교육	주진오, 구난희, 김인호, 김성규, 신주백, 나인호, 백유선, 안효숙, 박귀미, 윤종배, 박수성, 경규칠, 오정현, 윤세병 총 14명
천재교과서	김덕수, 이근명, 서영희, 염정섭, 윤선태, 정기문, 김민정, 강진아, 이은정, 김병철, 김효준, 원유상, 박상필, 노현임 총 14명
(주)교학사	양호환, 최상훈, 신성곤, 김보림, 신유아, 김성자, 심종석, 김효정 총 8명
(주)금성출판사	김형종, 강종훈, 노대환, 허수, 박진훈, 김규대, 김정희, 조예진, 김홍환, 장문석, 박범희, 김정겸, 김해용 총 13명
(주)미래엔	정선영, 송양섭, 이예선, 이환병, 이종대, 한성욱, 김지연, 전병철, 심원섭 총 9명
좋은책 신사고	한철호, 강승호, 김나영, 김정수, 남종국, 박진한, 박효숙, 방대광, 송치중, 왕홍식, 전영준, 조왕호 총 12명
(주)지학사	정재정, 김태식, 박근칠, 최병택, 강신태, 구본형, 장종근, 박찬석, 강성주, 김종현, 김지현 총 11명

<표6>을 보면 세 교과서 모두 '대단원 Ⅵ. 조선 사회의 변동'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중단원명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동아출판』은 '중단원 4. 조선 후기의 문화 변동'에서, 『비상교육』은 '중단원 3. 조선 후기 문화의 변화'에서, 『천재교육』은 '중단원 4. 문화의 새로운 변화'에서 하멜을 언급하였다. 모두 '문화의 변화나 변동'이라는 주제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하멜의 등장은 문화 변동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단원에서 하멜을 다루고 있는 부분도 차이가 있다. 소단원명은 모두 '(1) 국학과 과학 기술의 발달' 이지만,『동아출판』은 '주제1. 서양의 문물이 수용되다'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다.『비상교육』은 '주제2. 과학 기술의 발달'의 <읽기자료>에서 한국사와 세계사의 만남을 강조하면서 언급하였다. 『천재교육』은 '주제3. 서양 문물의 수용과 과학 기술의 발달'의 <읽기자료>에서 세계사와의 만남을 강조하면서 언급하였다. 따라서 『동아출판』은 서양의 문물에,『비상교육』과 『천재교육』은 한국사와 세계사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하멜 관련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서술 내용 분석

<표7> 하멜 관련 중학교『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비교

동아 출판 (2013년)	(172쪽 : 본문) 서양 문물의 수용에는 벨테브레이(박연), 하멜 등 조선에 표류해 온 외국인들의 영향도 있었다. 특히, 벨테브레이(박연)는 서양식 화포를 만드는 법과 사용법을 가르쳤다. 서양의 과학 기술은 조선 지식인들의 세계관과 우주관에 영향을 끼쳤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 중심의 성리학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비상 교육 (2013년)	(202쪽 : 알쏭달쏭. 궁금증해결!-한국사와 세계사의 만남)**"17세기 조선에 온 서양인들"** 1654년 6월 : 그 뒤 왕 앞에 불려갔는데, 국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벨테브레이가 우리말을 통역하였다. 우리는 정중한 태도로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는 풍랑에 배를 잃은 사람이니 일본으로 보내 달라."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대해 국왕이 대답하기를,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을 내보내는 것은 이 나라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너희는 이 나라에 살아야 하며, 그동안 필요한 물건을 내주었다."라고 하였다. -『하멜표류기』- 윗글은 하멜이 쓴 『하멜표류기』중 일부입니다. 네덜란드 상인 하멜은 1653년 일행 36명과 함께 제주도에 표류하여 13년 동안 조선에 억류되었어요. 이후 하멜 일행은 일본으로 탈출하여 네덜란드로 돌아갔답니다. 『하

	멜표류기』에 등장하는 벨테브레이는 하멜보다 앞서 제주도에 상륙하였다가 관헌에게 붙잡혀 조선에 정착하였어요. 그는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이름을 박연이라고 고치고 조선 여성과 결혼하였습니다. -사진 : 하멜 일행이 효종을 알현하는 모습(로테르담 간, “스테히터”판, 1668)
천재 교육 (2013년)	(203쪽 : 읽기자료-세계사와의 만남) **‘조선, 서양과 만나다’** 조선이 본격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접한 것은 중국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였다. 그밖에 조선에 표류해 온 서양인들을 통해 서양 문물을 접하였다. 1627년, 네덜란드 사람인 벨테브레이(박연)가 일본으로 가던 중 표류하다 동료 2명과 함께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그는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 제작법을 가르쳐 주었다. 병자호란 때에는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여자와 결혼하여 조선에서 생을 마쳤다. 1653년에는 네덜란드 사람 하멜과 일행 36명이 일본으로 가던 중 표류하다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벨테브레이가 이때 통역을 맡기도 하였다. 하멜 일행은 훈련도감, 전라좌수영 등에서 잡역에 종사하였다. 하멜은 조선을 탈출하여 일본을 거쳐 네덜란드로 돌아간 후, “하멜표류기”를 지었다. 이 책은 서양 사회에 조선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사진 : 하멜기념비(제주 서귀포)

<표7>에서 『동아출판』은 서양의 과학 기술 특히 서양식 화포 만드는 법과 사용법에 대해 벨테브레이가 기여했음을 설명하였고 하멜은 서양 문물 수용에 영향을 준 표류인으로만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하멜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예시가 없어 너무 막연하며, 이들이 네덜란드인인지 파악할 수도 없다.

『비상교육』은 <본문>이 아닌 <읽기자료>에서 ‘한국사와 세계사의 만남’으로 “17세기 조선에 온 서양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하멜표류기』에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하멜의 표류와 즉각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하멜의 직업을 선원이 아니라 상인으로 적었으며, 조선에서 활동한 내용이나『하멜표류기』가 조선을 서양에 처음으로 알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서 흥미 위주로 쓰고 있다. 그리고 벨테브레이에 대해서 하멜을 통역,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침, 조선 이름(박연)으로 바꿈, 조선 여성과의 결혼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그가 귀화했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서 하멜의 본국 귀환과의 차이점을 알 수가 없다. 또한 당시 효종을 알현하는 일

행의 삽화를 제시하였는데, 이 삽화는 조선의 왕을 마치 서양의 왕처럼 묘사한 것이어서 서양인의 동양(조선)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상당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서양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왜곡된 자료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천재교육』 역시 <읽기자료>에서 '세계사와의 만남'으로 "조선, 서양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벨테브레이의 표류와 정착, 훈련도감에서의 활약, 병자호란에 참여, 조선 여자와의 결혼과 죽음까지 설명하였다. 하멜 역시 표류 사실, 훈련도감과 전라좌수영에서 잡역 종사, 탈출과 네덜란드로 귀환, 『하멜표류기』가 조선을 서양에 알린 의의 등을 설명하면서 현재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하멜기념비 사진까지 실어 흥미를 유발하였다. 3개의 교과서 중에 비교적 자세히 관련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낯선 서양인을 바라 본 조선 사람들의 인식이나 조선인을 묘사한 서양인의 인식 등을 설명하였다면 생활사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며 시대적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2.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 서술 분석

1) 고등학교『한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하멜 관련 단원 체제 분석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한국사』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2011년에 부분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2014년도에 만들어졌다.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는 우리나라 역사가 형성·발전되어 온 과정을 세계사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역사적으로 사고하고 현대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목이라고 규정하였다.

내용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습한 역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사, 사상사 및 대외 관계사를 연계하여 한국사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독창적이면서도 개방적인 문화를 형성하였음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해 주체적인 한국인으로서 세계화에 부응하여 인류 역사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데 학습의 주안점을 둔다고 명시하였다. 구체적인 목표 중에서 아래에 제시된 '나와 다'의 내용은[190] 한국사를 세계사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외국과의 다양한 교류 속에서 정체성 유지에 초점을 두고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나. 오늘날 우리의 삶은 과거 역사의 산물임을 이해하되, 각 시대 우리나라 역사의 전개 과정을 세계사의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 다. 우리 역사가 외부 세계와 교류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사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음을 이해한다.

2011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는 총 8종이 검정에 통과하였다.[191] 그러나 하멜과 관련해서는 『㈜지학사』와 『(주)리베르스쿨』 단 2종에서만 언급되어 있다.

<표8> 하멜 관련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 단원명(III단원만) 비교

	(주)지학사(2014)	(주)리베르스쿨(2014)
대단원	**Ⅲ.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중단원	01.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02. 성리학적 유교 사회의 성장 03. 조선의 대외 관계 04. 조선 후기 정치와 제도의 변화 05. 근대 사회를 향한 움직임 06. 조선 후기 학문의 새 경향 07. 서민 문화의 형성	1.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 정비 2. 신분제와 양반 문화 3.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와 양난 4. 정치적 변동과 제도 개혁 5. 조선 후기 경제와 사회의 변동 6. 조선 후기 사회 개혁론의 대두 7. 문화의 새 경향
소단원	(1) 실학 성립의 배경	(1) 서민 문화의 발달

190)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 - 41호, 2009.12.23. ; 교육과학기술부, 2011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 361호, 2011. 08. 09 발표, 2013년부터 시행.

191) 2011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한국사』 교과서 2014년판 8종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비상교육	도면회, 이종서, 이건홍, 김향미, 김동린, 조한준, 최태성, 이희명 총 8명
(주)미래엔	한철호, 강승호, 권나리, 김기숭, 김인기, 박지숙, 임선일, 조왕호 총 8명
(주)교학사	권희영, 이명희, 장세옥, 김남수, 김도형, 최희원 총 6명
(주)금성출판사	김종수, 정숭교, 여호규, 박종린, 임화영, 김용석, 임명희, 이종대 총 8명
동아출판	왕현종, 이인석, 정행렬, 박중현, 박범희, 이형우, 임행만 총 7명
천재교육	주진오, 구난희, 김인호, 신주백, 백유선, 조동근, 박수성, 경규칠, 오정현 총 9명
(주)지학사	정재정, 김태식, 강석화, 최병택, 장종근, 박찬석, 김태훈, 박귀미 총 8명
(주)리베르스쿨	최준채, 윤영호, 안정희, 남궁원, 박찬영 총 5명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모색하다 -양명학이 들어오다 -서양 과학을 수용하다 (2) 실학의 발달 -농민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다 -상공업 진흥을 주장하다 (3) 국학의 발달 -우리의 역사를 활발히 연구하다 -우리 문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다 -자세한 지도가 만들어지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다 -지식을 망라한 백과전서가 편찬되다 (4) 서학의 유입과 동학의 창도 -천주교가 전래되고 박해를 받다 -동학이 창도되고 확산되다	-문화의 주체가 다양해지다 -판소리와 탈놀이가 서민 문화의 중심이 되다 -서민들 사이에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가 유행하다 (2) 예술과 건축 -예술에 새 경향이 나타나다 -건축이 변화하다 (3) 과학 기술의 발달 -서양 문물의 영향으로 과학이 발달하다 -의학과 농학이 발달하다 (대외관계사 한눈에 보기) 조선의 대외교류와 동아시아의 변동

<표8>을 보면 두 교과서 모두 '대단원 Ⅲ.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에서 다루고 있다. 중단원명 역시 『(주)지학사』는 '중단원 06. 조선 후기 학문의 새 경향'에서, 『(주)리베르스쿨』은 '중단원 7. 문화의 새 경향'에서 언급하고 있어 하멜의 이야기를 문화의 새로운 경향으로 파악하였다. 소단원명은 『(주)지학사』는 '소단원 (1) 실학 성립의 배경' 중에서 '주제3. 서양 과학을 수용하다'의 <본문>에서 언급하였고, 『(주)리베르스쿨』은 '소단원 (3) 과학 기술의 발달' 중에서 '주제1. 서양 문물의 영향으로 과학이 발달하다'의 <본문>에서 언급함으로써 두 교과서 모두 서양 과학의 수용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읽기자료>인 '대외관계사 한눈에 보기-조선의 대외교류와 동아시아의 변동'에서 벨테브레이와 하멜 등 표류인들이 서양 문물을 전해주었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

2) 하멜 관련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분석

<표9> 하멜 관련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비교

㈜지학사 (2014)	(181쪽 : 본문) 17세기 조선 정부는 벨테브레이와 하멜 등 표류한 서양 선원을 훈련도감에 소속시켜 서양식 대포와 조총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네덜란드로 돌아간 하멜 일행은 표류기를 지어 조선의 사정을 서양에 알리기도 하였다.

	-삽화 : 하멜 표류기에 실린 삽화-제주도에 난파한 스페르웨르 호와 하멜 일행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 : 화포(홍이포)(실학 박물관)-명이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 수입한 장거리 화포이다. 성을 포위한 전투가 벌어질 때 위력을 발휘하였다.
㈜ 리베르스쿨 (2014)	(190쪽 : 본문) 17세기에 우리나라에 표류해 온 벨테브레이는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작법을 조선군에게 가르쳤고, 하멜 일행은 네덜란드로 돌아간 뒤 “하멜표류기”를 발표하여 조선을 유럽에 소개하였다.
	(193쪽 : 대외관계사 한눈에 보기) **조선의 대외교류와 동아시아의 변동 / 표류인과 이양선의 등장** 17세기에는 벨테브레이와 하멜 등 표류인들이 나타나 서양 문물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서양 열강이 제국주의적 세력 진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조선과의 교역을 요구하는 이양선이 해안에 자주 출몰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국내의 사회적 불안감이 커져 갔다.

<표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교과서의 본문 서술 내용은 하멜과 관련해서 모두 서양 과학 문물의 수용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주)지학사』에서는 표류한 서양인 벨테브레이와 하멜이 훈련도감에 소속되었고 서양식 대포와 조총을 제조하였으며 사진에서 화포(홍이포)를 연결시켰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네덜란드인이라는 사실도 없고, 하멜 일행이 서양식 대포와 조총을 제조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힘든 내용이다.[192] 화포(홍이포) 사진 설명도 조선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래도 “하멜표류기”의 의의에 대해서 쓰고 있으며, 당시 난파되었던 배의 삽화를 넣어서 흥미를 유발하였다.

『(주)리베르스쿨』에서는 벨테브레이가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작법을 조선군에게 가르쳤다는 사실과 하멜이 네덜란드로 돌아가 표류기를 써서 조선을 유럽에 소개한 것을 구분하여 서술함으로써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역시 두 사람 모두 네덜란드인이라는 사실은 없고 너무 간략하다. <읽기자료>에서 17세기에 서양 문물을 전해준 두 명(벨테브레이, 하멜)의 서양인과 19세기 서양 제국주의 출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연결시켜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17세기 이후 약 200년의 시간 동안 서양 세력의 진출이 없었음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친절

192) 강준식, 앞의 책과 신동규, 앞의 논문, 2003c에서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 설명이 없어 연결이 쉽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는 8종 중에 단 2종 만이 벨테브레이와 하멜 등 서양인들을 언급하였는데, 이 2종은 비교적 채택률이 낮아서[193] 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의 사료 탐구에 이용할 수 있는『하멜보고서』에 기록된 조선인들의 서양인들에 대한 인식, 서양인들의 조선인들에 대한 인식, 하멜 일행의 조선에서의 생활 모습이나 17세기 조선 사회의 상황 등을 제시하지 않아서 사고력 확대나 생활사 접근이 어렵다. 또한 청과 일본과의 대외 관계 등도 서술하고 있지 않아 대외 관계사나 세계사와의 연결 과정을 파악하기 힘들다.

3. 고등학교『동아시아사』교과서 서술 분석

1) 고등학교『동아시아사』2011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1) 고등학교『동아시아사』2011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하멜 관련 단원 체제 분석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동아시아사』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2011년에 부분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2014년도에 만들어진 교과서이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2017년도에 만들어진 교과서가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2011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하도록 한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동아시아사』과목은 동아시아 지역

193) 2014년 10월말 출판사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선정 학교 수는 아래표와 같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1&docId=248882794&qb=6rWQ6rO87ISclOyxhO2Dneulo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1wMLspySEKssb0%2B4IRssssssT4-060924&sid=UC4DMyII60u7M032kDe7iw%3D%3D

출판사	㈜ 미래엔	비상 교육	천재 교육	㈜ 금성출판사	㈜ 지학사	㈜ 리베르스쿨	동아 출판	㈜ 교학사
선정 학교수	759	672	366	172	139	93	81	3

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것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상호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 개설되었다고 하였다. 『동아시아사』는 한국사와 세계사의 중간에 위치하는 역사 단위이다.

구체적인 목표 중에서 다양한 문화 간 소통의 역사, 세계사와의 상호 관련성이 있는 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다와 라'이다.[194]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다.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탐구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 라. 각 시기에 전개된 교류와 갈등 요소를 탐구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과 상호 발전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진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는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학사』 등 3개 출판사의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하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195]

<표10> 하멜 관련 고등학교『동아시아사』교과서 단원명(Ⅳ단원만) 비교(2011 개정 교육과정)

	비상교육(2014)	천재교육(2014)	㈜교학사(2014)
대단원	Ⅳ. 동아시아 사회의 지속과 변화		
중단원	3. 학문과 과학 기술, 서민 문화	3. 학문과 과학 기술, 서민 문화	4. 교역관계의 변화와 서구와의 교류
소단원	(1) 16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학풍 -사회의 발전과 양명학의 발달 -경제 실용 사상의 발달 -고증학의 발달 -국학의 발달	(1) 학문의 발전 -양명학과 고증학 -실학 -고학과 국학 (2) 과학 기술의 발전과 동서 교류	(1) 16세기 중반의 동아시아 -책봉·조공 관계 속에 조선과 명·청의 교류가 전개되다 -왜관과 통신사, 조·일 교류의 통로가 되다 -일본,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194) 교육과학기술부,『사회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7], 2012, 113쪽.

195) 2011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동아시아사』 교과서 2014년판 3종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비상교육	황진상, 김응기, 손민호, 서세원, 김병찬, 이다지 총 6명
천재교육	안병우, 김형종, 이근우, 신성곤, 함동주, 김정인, 박중현, 정연, 황지숙 총 9명
(주)교학사	손승철, 조법종, 김보한, 한명기, 신주백, 한기모, 김해용 총 7명

	(2) 서양 학문의 수용과 과학 기술의 발달 -서양과의 접촉 이전의 동아시아 과학 기술 -서양 학문과 과학 기술의 전래 -서양 문물의 수용과 반응 (3) 서민 문화의 발달 -대중 문학의 발달 -공연 문화의 발달 -회화의 발달	-명 · 청 대 -조선 후기 -에도 시대의 일본 -베트남 (읽기자료)아시아에 온 유럽인들과의 만남 (3) 서민 문화의 발전 -명 · 청 -베트남 -조선 후기 -에도 시대의 일본	명 · 청과 교류하다 (2) 동아시아 3국의 은 유통 -은이 중국으로 몰려들다 -은, 중국 사회를 바꾸다 -조선, 일본 은으로 중계 무역을 벌이다 -일본, 은을 매개로 동서양과 교역하다 (3) 서구와의 교류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새로운 지식을 전하다 -조선, 서학을 통해 서양과 만나다 -일본, 서구와 활발히 교류하다

<표10>에서 보면 세 교과서 모두 '대단원 Ⅳ. 동아시아 사회의 지속과 변화'에서 다루고 있다. 중단원명은『비상교육』과 『천재교육』은 '중단원 3. 학문과 과학 기술, 서민 문화'에서 하멜을 언급하고 있지만 『㈜교학사』는 '중단원 4. 교역관계의 변화와 서구와의 교류'에서 언급하고 있다. 소단원명도 『비상교육』은 '소단원 2. 서양 학문의 수용과 과학 기술의 발달'에서 '주제 2. 서양 학문과 과학 기술의 전래'의 <본문>에서 다루었다.『천재교육』은 '소단원 2. 과학 기술의 발전과 동서 교류'의 <읽기자료>에서 '아시아에 온 유럽인들과의 만남'에서 소개하고 있다.『㈜교학사』는 '소단원 3. 서구와의 교류'에서 '주제 2. 조선, 서학을 통해 서양과 만나다' 의 <본문>에서 하멜을 언급하였다. 결국『비상교육』과 『㈜교학사』는 <본문>에서 서양 학문과 과학 기술의 전래에 주목하여 하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천재교육』은 <읽기자료>에서 유럽인들과의 만남으로 제시하였다.

(2) 하멜 관련 고등학교『동아시아사』2011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서술 내용 분석



<표11> 하멜 관련 고등학교『동아시아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비교(2011 개정 교육과정)

비상 교육 (2014)	(149쪽 : 본문) 조선에서는 벨테브레이, 하멜과 같은 표류 서양인들에 대해 서양 문물이 도입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베이징에 파견된 사신단 등을 통해 도입되었다.
㈜ 교학사 (2014)	(143쪽 : 본문) 병자 전쟁 당시 볼모로 끌려갔던 소현 세자는 베이징에서 아담 샬과 교유하면서 다양한 서양 문물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1627년 벨테브리이, 1653년 하멜 등 네덜란드 사람들이 표류해 와서 조선에 머물렀던 것 또한 조선 사람들의 세계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천재 교육 (2014)	(155쪽 : 읽기자료-'아시아에 온 유럽인들과의 만남') 벨테브레이는 네덜란드인으로, 인조 때 조선에 귀화하여 '박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제주도에 표착하였는데, 한양으로 호송된 후 귀화하여 훈련도감에서 근무하며 무기를 제조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병자 전쟁에 참전하였고, 명에서 수입한 홍이포의 제작법과 사용법을 지도하였다. 그는 조선 여성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낳았으며,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하였을 때 하멜 등을 한양으로 호송하고 감독하는 한편, 조선의 풍속을 가르쳐 주며 통역하였다고 한다. 그는 한국에 처음으로 유럽을 소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표11>을 보면 『비상교육』은 '벨테브레이와 하멜에 의해 서양 문물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서양 문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그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교학사』는 '벨테브리이와 하멜이 표류해 와서 조선 사람들의 세계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다. '벨테브리이' 표기도 다른 책에서 표기한 '벨테브레이'와 차이가 있다.『천재교육』은 <읽기자료> '아시아에 온 유럽인들과의 만남'에서 벨테브레이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있으며 하멜은 벨테브레이의 활동 내용 중에 조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벨테브레이를 한국에 처음으로 유럽을 소개한 사람이라고 서술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멜은 조선을 탈출하여 결국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벨테브레이는 조선에 귀화하여 조선 사람으로 살다가 후손을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벨테브레이의 조선에서의 역할에 대해 집중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실린 인물들은 벨테브레이를 포함해서 마테오 리치, 알렉상드르 드로드 신부, 윌리엄 애덤스 등 4명을 소개하고 있어 각국에서 서양인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서양 문물 도입이나 조선인들의 세계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쓰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련 사료가 제시되지 않아서 암기식 서술에 머물고 있어 사고력 향상을 꾀할 수 없다. 또한 하멜의 조선 생활이나 대외관계 등도 서술되지 않았으며『하멜보고서』를 통해 조선이 유럽에 처음 소개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의미도 나타나지 않아서 한국사와 세계사의 중간 단위에 있는 『동아시아사』교과서의 성격에도 부합되지 않는 단편적인 서술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고등학교『동아시아사』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1) 고등학교『동아시아사』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하멜 관련 단원 체제 분석

2019년부터 학교에서 쓰이게 될 『동아시아사』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제작된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의 양성'이다. 개정 배경에는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의 전환에 있으며 개정 방향은 학교교육 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교실수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제시한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196]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과목의 성격과 목표는 2011 개정 교육과정과 거의 비슷하며 약간의 표현을 바꾸어 달라졌는데 <표12>와 같다.[197] 따라서 2011년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96) 남택범,『2015년 개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과목의 교육과정 분석-2011년 개정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33~36쪽.
197) 교육과학기술부,『사회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7], 2012.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09.23.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표12> 고등학교『동아시아사』2011, 2015 개정 교육과정 성격과 목표 비교

2011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 한국사와 세계사의 **중간에 위치**하는 과목	•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결**하는 성격을 갖는 과목
•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를 도모하고 상호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기름으로써 **상호 협력의 전통**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세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통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와 분석 능력을 키워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데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 **우리를 비롯하여 타자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기르도록 한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며,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 · 활용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 의식을 기르도록 한다.

*진하게 밑줄 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비상교육』,『천재교육』,『미래엔』,『금성교과서』등 총 4개 출판사의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하여 2019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이다.[198] 이 중에서 하멜 관련 내용이 없는『금성출판사』를 제외한 3종 교과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비상교육』과『천재교육』은 2011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모두 검정에 통과하였다.

<표13> 하멜 관련 고등학교『동아시아사』교과서 단원명(III단원만) 비교(2015 개정 교육과정)

	비상교육(2018)	천재교육(2018)	미래엔(2018)
대단원	**Ⅲ. 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중단원	1.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2.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1.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2.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1.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2.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198)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동아시아사』 교과서 2018년판 4종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비상교육	이병인, 이재석, 이정완, 김웅기, 손민호, 서세원, 김병찬 총 7명
천재교육	안병우, 김형종, 이근우, 신성곤, 함동주, 김정인, 박중현, 정연, 황지숙 총 9명
금성출판사	최현삼, 김태훈, 박범희, 신선호, 이용석, 추명엽 총 6명
미래엔	김태웅, 이근명, 이준갑, 박수철, 강승호, 이종대, 박귀미 총 7명

	3. 사회 변동과 서민 문화의 발달	3. 사회 변동과 서민 문화	3. 사회 변동과 서민 문화
소단원	(1) 명의 해금 정책과 동아시아의 조공 무역 체제 -명 중심의 조공 무역 질서 -명의 해금 정책과 밀무역의 성행 -조선과 주변국의 교역 (2) 유럽인의 동아시아 진출과 교역망의 확대 -유럽 상인의 동아시아 진출 -교역망의 확대와 동서의 문화 교류 (3) 동아시아 각국의 은 유통과 교역의 변화 -중국의 은 유통과 경제의 변화 -일본의 교역과 은 유통 -조선의 은 유통과 교역의 변화 (4) 서양 문물의 전래 -명 · 청 시대 서양 문물의 수용 -일본의 서양 문물 수용 -조선의 서양 문물 수용	(1)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관계 -명 · 청의 해금 정책과 조공 무역 -조선의 무역 -일본의 무역 (2) 유럽의 진출과 교역망의 확대 -유럽 상인의 동남아시아 진출 -청의 공행 무역과 영국의 진출 -교역망의 확대와 서양과의 교류 (읽기자료)서구 문물을 전한 유럽인들 (핵심탐구)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창구 (3) 은 유통의 활성화 -명 · 청의 은 본위 경제 체제 확립 -은 유통의 확대와 조선 -일본과 아메리카 은의 유통	(1) 동아시아의 대외 교역 -동아시아의 조공 무역과 해금 정책 -조공 무역 속의 조선과 일본 -중계 무역 기지 류큐 (2) 유럽인의 진출과 동아시아의 은 유통 확대 -유럽인의 아시아 진출과 교역망의 확대 -명 · 청대 은 유통의 확대 -동아시아 은 유통망 속의 조선과 일본 (3) 17~19세기의 동아시아 교역 -청의 대외 교역 정책 변화 -조선의 대외 교역 -일본과 유럽의 교역 (4) 동서양의 문물 교류 -명 말, 청 초 이후의 선교사의 활동 -조선의 서양 문물 수용 -일본의 서양 접촉 -서양에 전해진 동아시아 문물

<표13>을 보면 세 교과서 모두 '대단원 Ⅲ. 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에서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은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단원 'Ⅳ. 동아시아 사회의 지속과 변화'에서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소주제가 4개에서 3개로 축소되면서 성취기준의 수도 줄어들어 단원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다.[199]

중단원명은 세 교과서 모두 '중단원 2.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에서 하멜을 언급하였다. 소단원명은『비상교육』은 '소단원 4. 서양 문물의 전래'의 '주제 3. 조선의 서양 문물 수용'의 <본문>에서, 『천재교육』은 '소단원 2. 유럽의 진출과 교역망의 확대'의 '주제 3. 교역망의 확대와 서양과의 교류'의 <읽기자료>에서,『미래엔』은 '소단원 4. 동서양의 문물교류'의 '주제 2. 조선의 서양 문물 수용'의 <본문>에서 다루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서양 문물의 수용에 주목하고 있다.

199) 남택범, 앞의 논문, 33~36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2) 하멜 관련 고등학교『동아시아사』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서술 내용 분석

<표14> 하멜 관련 고등학교『동아시아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비교(2015 개정 교육과정)

비상 교육 (2018)	(105쪽 : 본문) 조선에서는 벨테브레이, 하멜과 같이 표류한 서양인들에 의해 서양 문물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중국에 간 사신단을 통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다.
천재 교육 (2018)	(104쪽 : 읽기자료-'서구 문물을 전한 유럽인들') 벨테브레이는 네덜란드인으로, 인조 때 조선에 귀화하여 '박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제주도에 표착하였는데, 한양으로 호송된 후 귀화하여 훈련도감에 근무하며 무기를 제조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병자호란에 참전하였고, 명에서 수입한 홍이포의 제작법과 사용법을 지도하였다. 그는 조선 여성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낳았으며,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하였을 때 그들을 한양으로 호송하고 감독하는 한편, 조선의 풍속을 가르쳐 주며 통역하였다고 한다. 그는 한국에 처음으로 유럽을 소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엔 (2018)	(105쪽 : 본문) 조선은 1627년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이(박연)가 제주도에 표착한 것을 계기로 서양인과 처음 접촉하였다. 벨테브레이는 훈련도감에서 서양식 총포 제작에 참여하였다. 1653년에는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 선원이었던 하멜과 그 일행이 제주도에 표류하였다. 하멜은 1666년에 일본으로 탈출하여 두 해 뒤 본국에 도착하였고, 「하멜표류기」로 알려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삽화 :「하멜표류기」삽화-14년간에 걸친 하멜 일행의 조선 억류 생활을 기록한 책이다. 유럽에 조선의 지리와 풍속, 각종 제도 등을 최초로 소개하였다.

『비상교육』과 『천재교육』은 2011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모두 검정에 합격하였지만, <표11>과 <표14>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제작 시기가 몇 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이 서술되었다. 이는 개선의 여지가 분명하다.

『천재교육』은 <읽기자료>의 제목이 '아시아에 온 유럽인들과의 만남'에서 '서구 문물을 전한 유럽인들'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유럽인들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실린 인물들 역시 이전에 4명(벨테브레이, 마테오 리치, 알렉상드르 드로드 신부, 윌리엄 애덤스)에서 3명(벨테브레이, 마테오 리치, 윌리엄 애덤스)만을 소개하였다. '벨테브레이'에 대해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하멜

내용 역시 표착 사실에 대해서만 쓰고 있으며, 병자전쟁이 병자호란으로 바뀌었을 뿐이다.[200] 특이할 만한 것은 바로 옆페이지인 105쪽 <핵심탐구>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창구'에서 일본의 나가사키(데지마)와 조선의 부산(초량 왜관)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이 두 곳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동아시아 무역과 하멜의 조선 탈출 및 본국 송환 과정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중요한 지역이지만, 하멜에 대해 교과서에서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연계하여 공부할 수가 없다.

『미래엔』은 <본문>에서 벨테브레이와 하멜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멜에 대해 표류했다가 탈출하여『하멜표류기』라는 보고서를 썼으며, 제주도 표착 당시를 그린 삽화를 제시하고 삽화 설명을 덧붙여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돕고 있다.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도록 서술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멜의 탈출과 본국 송환 과정, 청 · 일본과의 대외 관계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결하는 『동아시아사』 과목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술 분석을 종합하여 각각의 교과서에 실린 하멜 관련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표15>와 같다.

<표15> 하멜 관련 현행 역사 교과서 서술 내용에 대한 요약 비교 분석[201]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9종 중에 **3종**만 언급	-8종 중에 **2종**만 언급	<2011> 3종 중에 **3종** 언급 <2015> 4종 중에 **3종** 언급
<동아출판> -㉠**서양 문물 수용 :** 벨테브레이가 서양식 화포를 만드는 법과 사용법을 가르친 것만 언급, 하멜은 이름만 넣음.	<(주)지학사> -벨테브레이와 하멜 등 표류한 서양 선원, ㉢**훈련도감에 소속시켜 서양식 대포와 조총 제조하도록 함.** -㉡**네덜란드로 돌아간 하멜**	<2011-비상교육> -벨테브레이와 하멜 같은 ㉠**표류 서양인에 의한 서양 문물 도입** <2015-비상교육> - 상 동

200) 2007년『동아시아사』 과목이 신설된 때부터 현재까지 '임진왜란'은 '임진전쟁'으로, '병자호란'은 '병자전쟁'으로 서술되어 왔다. 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한국사적인 시각만 반영된 용어로 가치중립적이지 못한 명칭이라는 점과 한 · 중 · 일 3국이 연결된 국제전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역사』 교과서나 고등학교『한국사』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바꿔서 쓰고 있다. 남택범, 앞의 논문, 33~36쪽.

-**네덜란드인 쓰지 않음.**	**일행은 표류기를 지어 조선의 사정을 서양에 알림.** -**삽화 : 난파한 배와 하멜 일행** -**사진 : 화포(홍이포)**	
<비상교육> -<읽기자료 : **한국사와 세계사의 만남**> -**『하멜표류기』사료** 제시 : 일본으로 보내달라는 하멜 일행의 요청에 대해 효종은 외국인을 내보낼 수 없으니 이 나라에서 살라는 대답만 함. -> **하멜이 표착했고 13년간 억류되었고 일본으로 탈출해 네덜란드로 돌아감.** -**삽화 : 효종을 알현하는 모습**		<2011-천재교육> -<읽기자료 : 아시아에 온 유럽인들의 만남> 벨테브레이만 서술, **하멜을 통역**했다고만 언급 <2015-천재교육> -<읽기자료 : 서구 문물을 전한 유럽인들> 상 동
	<(주)리베르스쿨> -벨테브레이는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작법을 조선군에게 가르침. -하멜 일행의 표류 생활에 대한 얘기는 없고 **㉡네덜란드로 돌아간 뒤 『하멜표류기』를 발표하여 조선을 유럽에 소개하였다는 내용만 있음.** -<읽기자료 : 대외관계사 한눈에보기>17세기 벨테브레이와 하멜 등 표류인이 **㉠서양 문물을 전해줌.** → 그러나 19세기 서양 제국주의의 출현으로 조선과 교역을 요구하는 이양선이 출몰하여 불안감을 조성함.	<2011-(주)교학사> -벨테브레이와 하멜 등 네덜란드 사람들이 표류해 와서 조선에 머물렀던 것 자체가 **㉣조선 사람들의 세계인식 변화에 영향을 줌.**
<천재교육> -<읽기자료 : **세계와의 만남**> -**㉠서양 문물과의 접촉** -벨테브레이와 하멜의 표착 내용 균등히 서술 -하멜에 대해 **제주도 표착, 벨테브레이가 통역, ㉢훈련도감과 전라좌수영 등에서 잡역에 종사, 일본으로 탈출, 네덜란드로 돌아감.** -**㉡하멜표류기 저술, 서양에 조선을 알리는 역할** -**사진 : 하멜기념비**		<2015-미래엔> -1627년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이의 표착으로 서양인과 처음 접촉 -1653년 **하멜 일행의 제주도 표착, 1666년 일본으로 탈출, ㉡『하멜표류기』로 알려진 보고서를 작성** -**삽화 : ㉡『하멜표류기』** **-14년간 조선 억류 생활과 유럽에 조선의 지리, 풍속, 각종 제도 등을 최초로 소개함.**

*진하게 밑줄 친 부분이 비교 대상이다.

교과서에서 하멜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은 ① 서양 문물의 수용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며,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와 조총을 제조하였다고 서술된 곳은 한군데이다. 그리고 서양인이라고만 하고 네덜란드인을 밝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학생들은 하멜의 국적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기존에 서양 강대국으로만 생각할 수 있으며 17세기 네덜란드의 강성이라는 세계사와 연결시킬 수 없다.

201) 중학교『역사』9종 중에서 3종, 고등학교『한국사』8종 중에서 2종, 고등학교『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3종, 2015 개정 교육과정 3종의 내용을 본고에서 요약 분석하여 표로 재구성한 것이다.

② 『하멜표류기』의 의의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다(㉡). 제주도에 표착했고 네덜란드로 돌아간 후에 저술하였으며 서양에 조선을 알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표류기가 아니라 '보고서'이며 조선을 '최초'로 소개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곳은 한군데였다. 따라서 이 책이 하멜 일행이 조선에 체류했던 약 13년 동안 동인도회사에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한 '보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17세기 동양(조선)에 대한 서양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여러 가지 판본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 동양(조선)에 대한 관심이라는 세계사의 흐름을 연결시킬 수 없다.

③ 조선에서의 생활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훈련도감에서 서양식 대포와 조총을 만들고 전라좌수영에서 잡역에 종사했다고 쓰고 있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생활한 사실은 아예 파악할 수 없다. 조선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았음을 알 수 없다.

④ 조선 사람들의 세계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었음에 대해 쓰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쓰지 않아 너무 막연한 서술이다. 이것을 언급했던 『교학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검정에서 탈락하여 인식 부분에 대해서 쓴 책은 현재 없다.

⑤ 가장 큰 문제점은 하멜에 대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 급별,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과목 사이에 내용의 깊이나 범위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 역사 과목의 오래된 문제점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바로 중 · 고등학교의 국사 교육은 범위와 깊이만 약간 달리한 채 비슷한 내용을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202]

따라서 이러한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실제 하멜 관련 수업을 실시하여 수업 전 후의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02) 김한종, 「역사교육 계열화를 위한 고등학교 국사교육 내용구성 방안」, 『호서사학』 40, 호서사학회, 2005, 80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Ⅳ. 하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

1. 수업 전 인식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하멜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근무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수업 전 사전 조사를 해보았다. 실시 대상은 인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9명[203]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성적 90~100%의 학생들로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와 관심, 능력의 차이가 일반 학교 학생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학습에 대한 열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역사 상식 또한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학교가 있는 인천 지역은 개항기 근대 역사 문화의 산물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강화도 조약(1876)에 의해 1883년 인천항의 개항으로 청·일 조계 및 각국 조계가 형성되고 외국인들이 왕래하면서 한국 근대화의 문물이 형성된 곳이다. 차이나타운이 있는 근대 개항장 거리는 개항기에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살았던 지역이다. 설문은 '한국사 과목에 대한 인식'과 '한국사 속에서 활약했던 서양인 관련 인식' 등 2가지에 대해서 시행하였다.[204]

먼저, '한국사 과목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 및 분석이다. 93%(27명)의 학생들이 한국사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 특성상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선호하는 수업 방식은 66%(19명)의 학생들이 ICT 활용학습(동영상, ppt자료, 인터넷)을 선택하였다.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90%(26명)의 학생들이 사건과 인물을 뽑았다. 사건은 대부분 원인, 과정,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

203) 연구자가 수업하는 5개 반은 대안학교, 교내 대안교실, 장기 결석자, 학적 변동 등으로 수업 참여 가능 학생은 약 34명 정도이며 설문조사와 하멜 수업에 모두 참여한 학생은 29명이다. 연구자가 근무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최근 2~3년 사이에 학급 및 학생 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의 비선호, 학교의 유인책 부족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204) 수업 전 설문지, 수업 후 설문지는 별첨 참고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며, 이러한 사건의 중심에는 인물이 있다. 그러므로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는 96%(28명)의 학생들은 수업이 있는 날 외에는 한국사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69%(20명)의 학생들이 한국사에 대한 지식을 수업시간에만 얻고 있었다. 따라서 눈높이에 맞는 수업 구상이 필요하며 교과서나 기타 자료의 선정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사 속에서 활약했던 서양인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 결과 및 분석이다. 표류했다가 귀화한 서양인은 45%(13명)의 학생들이 '하멜'이라고 가장 많은 답을 했는데, 본국으로 돌아간 서양인 역시 31%(9명)의 학생들이 '하멜'을 가장 많은 답으로 선택하여 하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다. 『하멜표류기(하멜보고서)』에 대해 들어보거나 읽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55%(16명)의 학생들이 전혀 모르고 37%(11명)의 학생들은 들어보았으나 자세히 모른다고 답하였다. 하멜 관련 유적지 방문은 96%(28명)의 학생들이 방문해 본 적이 전혀 없었다.

하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은 대부분 오답이 많았다. 하멜의 국적에 대해 73%(21명)의 학생들이 영국이나 미국으로 답하였고 네덜란드는 7%(2명)에 불과하였고, 처음 도착한 지역 역시 83%(24명)의 학생들이 서울(한성)이나 인천, 목포 등으로 답하였으며 제주도는 7%(2명)였다. 그나마 정답을 맞춘 학생들도 모른 상태에서 찍었다라고 말하였다. 하멜의 직업은 59%(17명)의 학생들이 천주교 신부로 답하였고 조선에서 했던 일은 65%(19명)의 학생들이 선교사나 세계지도를 제작하였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서양인하면 개항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생각하며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에서 활약했던 서양인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48%(14명)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하였지만,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들도 38%(11명)나 되었다. 배워야할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하였음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역사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결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다. 자신이 알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답을 못한 학생들이 많았고 답을 쓴 학생들 중에 절대 다수가 인천상륙작전의 맥아더 장군을 쓰고 있어 인천 지역의 특성과 전쟁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하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선 시대에 서양인이었던 하멜과 『하멜보고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하멜 관련 수업의 실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별 수업을 하였다. 양난 이후 일본과 청나라의 관계를 배운 후에 주제 학습으로 '하멜의 표류를 통해 본 17세기 중엽 조선의 대외 관계와 사회 모습'을 2차시로 구성하여 수업하였다.[205] 1차시는 강의식 탐구 수업(ICT 활용 수업)을 하고 2차시는 역사 신문 만들기를 하였다. 1차시 수업 전개는 <표16>과 같다.

<표16> 하멜 관련 수업 지도안(약식)

단계	학습 활동	학습 자료
도입 (10분)	▶전시 학습 확인 : 1. 인조의 대외 정책은? 2.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사건은? 3. 효종의 청나라에 대한 정책 이름은? ▶동기 유발 : 하멜 관련 동영상	-ppt -동영상
전개1 (20분)	▶본시 학습 설명-1. 하멜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멜의 조선 체류 생활에 대해 설명한다.	-ppt -학습지
	▶본시 학습 설명-2. 17세기 중엽 조선과 청, 일본의 대외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ppt -학습지
전개2 (15분)	▶본시 학습 탐구 활동-1. 백지도(한국 지도, 세계 지도)에 하멜의 표류 과정과 조선에서의 이동 과정을 지도에 그려보고 네덜란드 국기를 그려본다. ▶본시 학습 탐구 활동-2. 사료 탐구를 통해 『하멜보고서』에 나타난 조선의 외국인 정책, 조선인들과 서양인들에 대한 인식, 하멜 탈출 사건으로 초래된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ppt -동영상 -학습지 -학습지
정리 및 평가 (5분)	▶내용 정리 ▶형성 평가 ▶차시 안내	-ppt

205) 도면회 외 7명,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14, 152쪽. 대단원 Ⅲ.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중단원 3. 조선의 대외 관계와 양난의 극복-소단원 4. 양난 이후 일본, 청과의 관계는 어떠하였을까?를 공부한 이후에 실시하였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50분 수업의 진행은 <도입>(10분) → <전개 1>(20분) : 강의식 수업과 학생들의 문답 학습 → <전개 2>(15분) : 학생들을 모둠으로 나누어 탐구활동 1, 2를 진행 → <정리 및 평가>(5분)로 진행하였다. <도입> 단계의 전시 학습 확인에서는 인조의 친명배금정책, 병자호란의 발생, 효종의 북벌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흥미 유발을 위해 하멜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전개 1> 단계에서는 ppt를 이용하여 하멜은 누구이며 어떻게 조선에 왔고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공부하였다. 그리고 양난 이후 조선과 청, 일본과의 대외 관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전개 2> 단계의 탐구 활동 1에서는 한국 백지도에 하멜이 조선에서 거쳐 간 경로를 그려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네덜란드 국기의 색을 알아보고 세계 백지도에서 네덜란드를 표시해 보고 조선 표착까지의 항로를 그려보라고 하였다. 탐구 활동 2에서는 사료 탐구를 통해 조선의 외국인 정책, 조선인들과 서양인들에 대한 인식, 하멜 탈출 사건으로 초래된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 등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발표를 시켰다.

수업을 이렇게 구상한 이유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성상 50분 내내 수업에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는 것도 어려워한다. 그리고 문장 이해력도 매우 부족하며 역사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 학교에서 역사를 깊이 있게 입시 위주로 가르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동영상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교사의 강의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게 한 후에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보게 함으로써 집중력을 높이고 과제 풀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학생들의 수가 적어서 혼자 또는 옆에 짝과 풀어보라고 하고 연구자가 답을 확인해 주었다. 사료 탐구 부분의 해석과 정답 도출은 사료상 용어가 어려워 해석하기 힘든 점도 있었고 수업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에 집중력의 한계를 느끼는 학생도 많아서 반별로 학생별로 차이가 많이 났고 대부분 연구자의 도움으로 답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은 일반 학교와 차이가 나는 우리 학교만의 수업 전개상 힘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차시 강의식 탐구 수업을 마치고 나서 설문 조사를 통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해 하멜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변화를 물어보았다.

2차시는 학생들이 컴퓨터실에 가서 '하멜 신문'을 만들어보게 하였다. 컴퓨터에 역사 신문 틀과 사진 목록 파일을 미리 세팅해 놓고 안내지를 설명한 후 만들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수가 적고 자료를 거의 준 상태에서 직접 타이핑을 하면서 1명 또는 2명이 짝을 이루어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열심히 참여하였다. 약 60%(17명)의 학생들은 역사 신문을 처음 만들어 보기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귀찮아하기도 하였다. 역사 신문 틀에 제시된 기본 주제 이외에 다양한 주제로 신문을 구성하게 하였지만, 그런 학생들은 없었고, 퀴즈, 광고, 하멜에 대한 2행시 등 창의력이 필요한 컷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한글 편집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꽤 있어서 연구자가 돌아다니면서 편집을 도와주었다. 하지만 점점 한 페이지의 신문 형태를 갖추자 나름 신기해하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또한 수업 도중에 역사 신문을 만들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사진 찍은 후, 편집후기 란에 넣어서 다음 수업 시간에 완성된 신문을 한 장씩 나누어 주었더니 나름 신기해하면서도 뿌듯해 하였다. 이 수업은 학생들의 출결 상황과 학교 사정상 시간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업의 연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 1차시와 시간 차이가 있었음을 밝혀 둔다.

2차시에 걸친 수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과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다.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반도 있고 잘 따라오는 반도 있어서 반응에도 차이가 뚜렷하였다. 낯선 주제 학습에 대해 실험반, 비교반 없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적인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에 대해 연구자 스스로도 실험해 보고 싶었다. 이를 통해 교과서 서술 및 수업 방법의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4>는 수업에서 실제 사용한 학습지이다.

<그림4> 하멜 관련 역사 수업 학습지

인천○○○ 고등학교	단원명	Ⅲ-3. 조선의 대외 관계와 양 난의 극복 하멜의 표류를 통해 본 17세기 조선의 대외 관계와 사회 모습	학과: 학번: 이름:

기초학습



▲ 하멜 동상과 '하멜 보고서' 원본 (강진군)

1. 하멜(Handrick Hamel, 조선 체류 기간 : 1653~1666)과 『하멜보고서』

(1) 하멜의 국적은 (　　)이다. 직업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직원인 (　　=　　)임.

(2) '스베르베르 호'를 타고 대만에서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태풍을 만나 1653년(효종 4) 8월 16일 (　　)에 표착함.

(3) 조선에서 (　　) 간의 체류 생활 끝에 (　　)으로 탈출에 성공함. → (　　)(=하멜표류기)를 작성하고 네덜란드로 귀환함.

(4)『하멜보고서』의 가치 : ① 조선을 (　　)에 알린 최초의 보고서이다. ② (　　) 중엽 조선의 상황을 알 수 있다. ③ 17세기 유럽인이 본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5) 현재 하멜에 대한 기억과 기념 : (　　) 하멜 상선 전시관, (　　)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　　) 하멜전시관

2. 하멜 일행의 조선에서의 생활

(1) 제주도 : 거친 바람과 태풍으로 64명의 선원 중에서 36명만 살아남음, 제주의 지방관(목사) 이원진과 통역 업무를 맡은 (　　)를 만남.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

(2) 서울(한성) : 전라도, 충청도를 통과하여 서울로 압송 → 효종을 알현함, 본국으로 송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함 → (　　)과 (　　)에 소속되어 병사로 활약, 호패나 화승총 소지, 한복을 입음 → 사람들의 호기심 대상과 웃음거리로 힘들게 생활 → (　　) 사신이 왔을 때 2명의 탈출 시도 실패 후, 심한 감시를 받아 (　　)에 갇히기도 함.

(3) 강진 : 약 7년간의 생활, 나름 안정된 삶을 살게 됨, 1660년 전후의 (　　)과 (　　)에도 잘 견딤, 그러나 신임지방관(목사)들의 횡포와 부역에 시달림, 1662년 이후 국가에서 이들을 관리하기 힘들게 됨. → 여수, 남원, 순천으로 분산 이주함.

(4) 여수 : 신임 지방관(목사)의 횡포와 고역 노동, 기근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8명이 탈출에 성공하여 (　　) 도착→조선에 잔류자 7명까지 본국 송환이 이루어져 총 15명이 네덜란드로 귀국함.

3. 하멜 일행의 표착 무렵 17세기 중엽 조선의 대외 관계

(1) 조선과 청의 관계 : (　　)(1636년) 이후 청의 간섭이 심해짐, 효종은 (　　) 정책으로 국방력 강화에 힘씀, 네덜란드인이었던 벨테브레이(박연)와 하멜을 이용하고자 함.

(2)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 : (　　)는 조선 무역 독점, 하멜의 탈출 이후 조선에 잔류한 7명의 네덜란드 본국 송환 처리를 주도하여 (　　)와의 무역에서 이익을 봄.

(3) 조선과 서양의 만남 : (　　)국적의 동인도회사 선원 출신인 벨테브레이(박연)와 하멜 일행이 제주도로 표류해 옴으로써 서양인과 조선인과의 직접적 장기간 접촉이 이루어짐.
→ 박연은 (　　)를, 하멜은 (　　)의 삶을 선택함.

(4) 한계 : 조선의 (　　)정책과 (　　)의 방해로 인해 조선의 서양인과의 본격적인 접촉은 200 여 년이 흐른 (　　)에 가서야 이루어짐.

인천○○○ 고등학교	단원명	Ⅲ-3. 조선의 대외 관계와 양 난의 극복 하멜의 표류를 통해 본 17세기 조선의 대외 관계와 사회 모습	학과: 학번: 이름:

탐구활동 - 1

* 아래 지도에 하멜의 이동 경로를 찾아 표시한 후 선을 연결해 보자. (㉡~㉦까지 연결)

㉠ 청나라 ㉡ 네덜란드(나라가 위치한 방향만 표시) ㉢ 제주도 ㉣ 한성 ㉤ 강진 ㉥ 여수 ㉦ 일본





* 네덜란드국기의 색을 알아보자.



* 세계 지도에서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찾아 표시한 후 바닷길을 연결해 보자.
(네덜란드표시->바타비아(인도네시아)->대만(중국) -> 일본(나가사키)로 가는 도중 제주도에 표착)

탐구활동-2 : "하멜의 조선 체류와 17세기의 중엽의 조선"

(가) • 전에 온 남만인(南蠻人) 박연(朴燕)이라는 자가 보고 '과연 만인(蠻人)이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금려(禁旅:훈련도감)에 편입하였는데, 대개 그 사람들은 화포(火砲)를 잘 다루기 때문이었다. 그들 중에는 코로 퉁소를 부는 자도 있었고 발을 흔들며 춤추는 자도 있었다. -『효종실록』1653년(효종 4년)-

• 하멜 일행이 한양으로 이동해서 왕(효종)을 만났을 때, "이방인들을 이 땅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이 나라의 관습이 아니므로 여기에서 평생 살아야 하며 대신 너희들을 부양해 주겠다."고 말했다.
-『하멜보고서』-

(나) • 우리는 많은 고관들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과 부인들 그리고 아이들이 매우 신기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또 제주도 사람들이 우리 생김새가 사람보다는 괴물처럼 생겼다는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마실 때는 코를 귀 뒤에 돌린다는 말까지 있었다. 머리카락 색이 금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보다는 바다동물처럼 보인다는 말까지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보다 신체적으로 더 좋은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흰색 피부를 가졌으며 그들은 그 피부색을 매우 좋아하였다. ……처음에 우리는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 없었으며 구경꾼들 때문에 집에서도 휴식을 전혀 취할 수가 없었다.

• 이 나라 사람들이 호기심이 매우 많고 이국적인 것을 기꺼이 듣고 싶어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구걸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당시 우리는 스님들과 사이가 좋았으며, 스님들은 우리에게 매우 관대했고 우호적이었다. 특히 네덜란드와 다른 나라의 관습에 대해 듣는 것을 매우 흥미로워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삶이 어떤지 알고 싶어 하였으며…… -『하멜보고서』-

(다) • 그들은 훔치고 거짓말하고 사기 치는 습성이 지극히 농후함. 따라서 그들을 지나치게 믿어서는 아니됨.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는 그게 마치 무슨 자랑인 양 우쭐대며, 그런 정도는 그들 간에는 아예 수치로 여기지도 않는 형편임. 그래서 그곳에서는 누가 어떤 상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으면 다시 물려도 되는 것이 통례임.

• 제일 하급의 문자(언문)는 아녀자들과 서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배우기 아주 쉽고 그것으로 모든 사물을 다 표현할 수 있음. 그리고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름도 아주 수월하게 그리고 앞에 말한 문자들보다 더 정확히 음을 표시해 낼 수 있음. -『하멜보고서』-

(라) 동래 부사 안진(安縉)이 치계하여 아뢰기를,

"**차왜(差倭)** 귤성진(橘成陳) 등이 은밀히 역관들에게 말하기를 '10여 년 전에 아란타(阿蘭陀) 군민(郡民) 36명이 30여 만 냥(兩)의 물건을 싣고 표류하여 탐라에 닿았는데, 탐라인이 그 물건을 전부 빼앗고 그 사람들을 전라도 내에 흩어 놓았다. 그 가운데 8명이 금년 여름에 배를 타고 몰래 도망와서 강호(江戶)에 정박했다. 그래서 강호에서 그 사건의 본말을 자세히 알고자 하여 **서계(書契)**를 예조에 보내려 한다. 아란타는 바로 일본의 속군(屬郡)으로 공물(貢物)을 가지고 오던 길이었다. 황당선(荒唐船)이 표류해 오면 즉시 통지해 주기로 전에 굳게 약속하였는데, 지금 통지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억류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성실하고 미더운 도리인가. **차왜**가 나오면 반드시 서울에 올라가 **서계**를 올릴 것인데, 본부(本府)와 접위관(接慰官)의 문답이 예조가 답한 **서계**와 다르지 않아야 일이 어긋나는 단서가 없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종실록』1666년(현종 7년)-

*차왜 : 일본의 대마도에서 조선에 수시로 파견한 외교사절 *서계 : 조선시대 일본과 내왕한 공식외교문서

(1) (가)를 통해 조선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말해 보자.

(2) (나)를 통해 하멜 일행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은 어떠하였는지 설명해 보자.

(3) (다)를 통해 조선인들에 대한 하멜의 인식은 어떠하였는지 설명해 보자.

(4) (라)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선의 대외 정책에 대해 토론해 보자.

(5) 자신이 하멜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상상해서 서로 토론해 보자.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3. 수업 후 인식 분석

1차시 수업을 실시한 후에 ‘하멜 및 외국인(서양인) 학습’에 대한 설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멜에 대한 국적, 표류해 온 시기, 도착 지역, 직업 등 단순 지식을 묻는 질문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답으로 답하여 완전 학습에 가까울 정도로 수업 전보다 월등히 향상되었다. 그러나 대외관계를 묻는 문제는 45%(13명)의 학생들만이 정답을 선택하여 내용 파악 능력과 종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하멜과 같은 상황이나 처지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탈출한다’에 60%(17명), ‘적응 또는 귀화’에 40%(12명)의 학생들이 답을 하였다. 하멜이 탈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향이 그리워서’라는 답변이 42%(15명)로 가장 많았지만, ‘지방관들이 가혹하게 다루거나, 먹고 살기 힘들다’는 답변도 어느 정도 있었고,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였기 때문에’라는 답을 17%(6명)의 학생들이 택하였다. 하멜 일행이 젊었고 단체였기 때문에 벨테브레이와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당신이 조선 시대 사람이었다면 하멜과 같은 서양인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보라는 질문에는 ‘신기해하면서 잘 대해 줄 것이다’를 선택한 학생들이 45%(13명)로 가장 많았고 ‘타국에서 표류해 온 불쌍한 사람들이므로 배려할 것이다’ 도 선택하였다. 그러나 ‘모두 똑같은 사람이므로 관심 없다’에도 14%(4명)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하멜표류기(하멜보고서)’를 읽어보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52%(15명)의 학생들이 ‘읽어보고 싶다’로 답변을 하였고 읽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선을 유럽(서양)에 알린 최초의 보고서’와 ‘17세기 중엽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모습에 대해 잘 알 수 있어서’를 선택하였다. 방문하고 싶은 유적지로는 여수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제주도, 강진, 남한산성까지 골고루 선택하였다. 하멜 관련 공부를 한 후에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에 대해서는 ‘조선에 13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서양인이다.’와 ‘하멜표류기(하멜보고서)를 통해 조선을 서양에 알린 최초의 서양인’이 많았다.

그렇지만 서양인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있다’라는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답변이 48%(14명)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수업 전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어떤 학생은 굳이 교과서에 없는 서양인을 배워야 하느냐?고 묻기도 하며 귀찮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인에 대해 교과서에 서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44%(13명)의 학생들은 그렇다, 45%(13명)의 학생들은 보통이다를 선택하였다. ICT 활용 수업 방법의 효과에 대해 40%(12명)의 학생들은 그렇다, 52%(15명)의 학생들은 보통이다를 선택하였다. 학생들은 하멜에 대해 현재 교과서에는 서술되지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다루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서술될 필요가 있고 동영상과 ppt 자료, 세계지도 활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2차시 역사 신문 만들기 수업을 한 후에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문해 보았다. 본인이 작성하기에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해서 79%(23명)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하였다. 본인이 열심히 참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96%(28명)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하였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수업한 후에 자료를 거의 제시해 주고 만들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았던 것 같다. 역사 신문 제작이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82%(24명)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하였다. 강의식 수업에 비해 신문 제작 수업이 흥미로운가에 대해서는 72%(21명)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강의식 수업 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역사 신문 제작 수업이 흥미롭고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하멜 관련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하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하멜의 처지를 공감하여 고향이 그리워 탈출을 시도할 것이며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조선 시대에 살아서 서양인을 처음 만났다면 신기해 하거나 또는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멜표류기(하멜보고서)를 읽고 싶은 이유는 조선을 유럽(서양)에 알린 최초의 보고서이며 17세기 중엽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모습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그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사료를 분석하거나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서는 좀 힘들어 했지만 스스로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지도에 표시해 보고 신문을 만들어보는 데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하멜보고서를 읽고 싶지 않다는 답변(48%, 14명)과 한국사에서 서양인에 대해 배울 필요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답변(51%, 15명)이 절반 정도여서 아직 학생들은 이 수업을 낯설어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교과서에 서술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특별 수업을 하고, 기존에 하멜이라는 인물 수업이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부에 크게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는 것을 선뜻 택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서양인에 대해 1~2시간의 수업으로 이해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학생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언급해 둔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이해[206]를 바탕으로 외국인(서양인)을 주제로 그들의 역사 속 중요한 장면을 선택해 다양한 질문을 엮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한다면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에게도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다양한 수업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설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 역사 지식을 획득하고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교과서의 서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역사 수업에서 내용 선정과 조직의 토대가 되는 것은 교과서이다. 교과서를 하나의 자료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오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수업은 교과서에 의존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과서 내용이 사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역사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그렇지만 수업 내용은 교과서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교사들이 이를 재구성한다.[207] 그렇다면 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수업 자료가 필요함을 유추할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Ⅴ장에서는 교과서 서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

206) 김한종, 「역사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역사 수업에 미치는 영향」, 『역사교육』 89, 역사교육연구회, 2004, 3~13쪽. 이 글에서는 교사의 인지적 특성에는 역사교과에 대한 지식, 역사교육관, 학생에 대한 이해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중에서 교사는 학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료에서 적절한 내용을 선택하거나 재조직하며 교수·학습 활동을 구상한다고 하였다.

207) 김한종, 위의 논문, 2004, 16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Ⅴ. 하멜에 대한 교과서 서술 개선 방안

지금까지 Ⅱ장에서 살펴본 17세기 중엽 하멜의 조선 체류와 『하멜보고서』의 의미, Ⅲ장에서 살펴본 현행 역사교과서 서술 분석, Ⅳ장에서 파악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역사교과서의 서술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하멜보고서』가 조선에 직접 장기간 체류한 서양인이 유럽에 조선을 알린 최초의 보고서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료 학습에서 종래 주로 이용된 사료로는『조선왕조실록』,『비변사등록』같은 공식 문서들이 많았지만, 근래에는 상소문, 보고서, 재산분할기록 등 각종 고문서나 문집, 일기 등 개인이 남긴 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사료 활용이 모색되고 있다.[208]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멜보고서』에 기록된 17세기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은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및 각종 사료 등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므로 그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책의 명칭을『하멜표류기』보다는『하멜보고서』가 좋지 않을까 제안한다. 흥미위주의 표류기 차원이 아닌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임금을 받기 위해 써진 보고서이며 네덜란드 원문 번역본들이 보고서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기존의 표현을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 않다면 명칭에 대해서 비교하여 써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하멜보고서』에 쓰여진 하멜이 조선인들을 바라본 인식 그리고 조선인들이 하멜 일행을 바라본 인식에 대해 서술할 필요가 있다. 인물 학습은 인물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정신 세계, 또는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209] 정신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인물을 둘러싸고 있던 조건들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그 인물이 남겨놓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208) 김한종,「역사교육의 교재」,『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최상훈 외, 책과 함께, 2008, 143쪽.
209) 강선주,「역사 수업의 방법」,『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최상훈 외, 책과 함께, 2008, 248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당시 비슷한 조건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210] 따라서 단순히 조선인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준 것이라고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예를 써줄 필요가 있다.

17세기에 하얀 피부의 유럽 사람을 본적이 없는 조선인들에게 하멜 일행은 신기함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멜 일행이 13년 28일간 조선에 머물면서 조선어에도 익숙해지고 자신들의 문화와 경험을 저자거리에서 돈을 받고 팔게 되면서 조선인들은 서양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멜 일행 역시 조선이라는 동아시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를 경험하면서 조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를 『하멜보고서』에 처음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서로가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자료를 제시해야만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중학교에서는 읽기자료로 간단히 다루거나, 고등학교에서는 탐구 활동의 사료로 이용하여 감정이입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Ⅱ-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양인들이 괴물처럼 생겼고 바다 동물처럼 보이고 코를 귀 뒤로 돌린다."는 표현의 글을 예시로 들어준다면 조선인들이 처음 본 서양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호기심이 많고 이국적인 것을 듣고 싶어 했으며 스님들은 네덜란드와 다른 나라의 관습에 대해 듣는 것을 흥미로워했다.'는 내용을 통해 조선인들이 서양 문화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인식을 경험하게 된다면 19세기 개항기 단원에서는 다양한 외국인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하멜보고서』의 다양한 판본으로 인해 나타난 서양인 관점에서의 왜곡된 표현은 사실 오류이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해설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668년 로테르담판에 실린 삽화 중에서 효종을 알현하는 일행의 옷이나 왕의 복장 묘사, 강제 노역을 하는 주변 환경의 묘사는 지극히 서양인의 관점에서 조선 생활을 그린 것이다. 현재 교과서에서

210) 강선주, 앞의 논문, 2008, 248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는 해설 없이 삽화를 삽입하였지만 앞으로 자세한 해설을 달아 주고 지도서에서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하멜보고서』를 통해 형성된 서양인들의 조선(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했나를 알아보자.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조선에 대한 묘사는 상당히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지만[211] 17세기 출판 당시 유럽인들이나 19세기 한국을 서술한 서양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데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그 이전 시기에 조선은 어떤 모습으로 서양인들에게 알려져 있었을까? 16세기 후반 일본과 17세기 전반 중국에서 활동한 예수회 선교사들의 기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212]

16세기 후반 일본에서 선교한 가스빠르 빌레라(Gaspar Vilela : 1525/6~1572, 스페인)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꼬레아라는 나라가 있으며 건장한 남자들과 전사들은 활을 쏘고 창과 칼을 잘 쓰는 훌륭한 기마병', '조선인들은 백인', '사자와 호랑이 사냥을 즐긴다.'라고 기록하였다.[213] 안토니오 프레네스티노(Antonio Prenestino : 1542~1589, 이탈리아)는 '코리아는 일본보다 미개한 달단(만주) 사람이 사는 섬', '야만적이고 잔인한 백성이 사는데, 다른 나라 사람과 통상을 원하지 않는다.', '흉악한 주민들은 배에 탄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전원이 학살되지 않기 위해 고생했다.'라고 서술하여 야만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214] 이러한 인식과 오류는 일본인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왜곡시켜 유럽인들과의 독점무역과 접촉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215] 루이스 프로이스(Luís Fróis : 1532~1597, 포르투갈)는 임진왜란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조선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국가이며, 매년 300명의 일본인들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과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

211) 김학준,「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제1회) : 개항 이전의 시기」,『한국정치연구』 18-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9, 283쪽.

212) 정성화,「한국 관련 지식의 유럽적 기반과 내용-17세기 전반기 예수회 중국 선교사들의 기록을 중심으로-」,『대구사학』97, 대구사학회, 2009, 112쪽.

213) 오인동,『꼬레아, 코리아 : 서양인이 부른 우리나라 국호의 역사』, 책과 함께, 2008, 78~79쪽.

214) 박천홍,『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 현실문화, 2008, 96쪽.

215) 박철,『예수회 신부 세스뻬데스 : 한국 방문 최초 서구인』,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7, 224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하여 폐쇄적인 상황을 전하였다.[216]

17세기 전반기에 중국에서 활동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 1551~1610, 이탈리아)는 적응주의적 선교 방식과 중국 중심적 세계관을 수용하였는데, '조선은 중국의 조공국가이며 임진왜란은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며 중국이 왜군을 패배시켰다.'고 쓰고 있다.[217] 알바로 세메도(Alvaro Semedo : 1585~1658, 포르투갈)는 중국의 문화와 유럽 문화와의 동격성을 강조하여 중국 선교 후원을 받고자 하였으며, '조선은 군사적으로 열악하고 패배주의적이며 문화적 독창성이 결여된 국가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변방지역으로 중국의 속국에 불과하다'고 전하였다.[218] 마르티노 마르티니(Martino Martini : 1614~1661, 이탈리아)는 명말 청초의 정치 사회적 혼란과 만주족의 승리를 유럽에 알렸으며 중국은 문화는 물론 과학 기술에서도 최소한 유럽과 동격이거나 유럽보다 오래되고 뛰어난 문화권으로 이해하였다.[219] 그는 '한국인들은 일본인보다 덜 하지만 호전적인 민족이고 한국은 중국의 조공국으로 만주족이 명나라에 승리한 후에는 '목숨을 근근히 유지할 수 있게 된' 완고하고 보수적인 국가이며 일본, 중국 이외에 어떠한 나라와도 교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220]

반면에 예수회에 비판적이었던 후안 데 팔라폭스 멘도사(Juan de Palafox y Mendoza : 1600 ~ 1659, 스페인)는 만주족에 대한 유럽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데 영향을 끼쳤고 극동 지역의 국가들을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동등하게 이해하였다.[221] 그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독립국이었지만 힘의 열세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국에 조공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서 긍정적인 서술을 하였다.[222] 로드리게스(Tsuzu Joao Rodrigues : 1561~1633, 포르투갈)는 중국과 일본을 모두

216) 박천홍, 앞의 책, 97~98쪽.
217) 정성화, 앞의 논문, 2009, 113~117쪽.
218) 정성화, 앞의 논문, 2009, 119~121쪽.
219) 정성화, 앞의 논문, 2009, 123~132쪽.
220) 정성화, 앞의 논문, 2009, 124~131쪽.
221) 정성화, 앞의 논문, 2009, 133~135쪽.
222) 정성화, 앞의 논문, 2009, 137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방문한 후 양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책을 썼는데 서양인들이 한국사를 보는 시각을 왜곡시키는데 기여하였다.[223]

이처럼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까지 예수회 선교사들의 조선에 대한 기록은 직접 조선을 방문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지만, 유럽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고 조선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중국에 종속적이고 야만적이며 폐쇄적인 이미지의 조선이 이미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 조선에서 갖은 고초를 당하며 오랜 기간 생활하다가 탈출해서 쓴 『하멜보고서』가 유럽에서 출판되었을 때 조선에 대한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세기 『하멜보고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독일인 의사 시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는 비(非)그리스도교적 야만인이라는 두려운 이미지를 만들어버렸고 조선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심어주었다고 하였다.[224]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서양 세력에 문을 연 바로 그 시점에서 결국 조선을 '은둔의 나라'라는 전형적 이미지로 고착시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225]

셋째, 효종의 북벌 정책과 관련해서 하멜을 쓸 필요가 있다. 인물 학습에서 행위결정분석모형은 인물 행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추론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226] 청에 당한 수치를 씻기 위해 추진한 효종의 '북벌'은 그 실현가능성과는 별도로 호란 이후 광범위하게 확산된 사회적 관념으로서 동시기 사회 현상이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 중의 하나였다.[227] 효종은 북벌을 표방하고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세력을 규합하였다.[228] 또한 군비강화책을 실시하여 군사력과 군사 시설을 확

223) 정성화, 『서양의 한국 : 이미지의 탄생과 변화』,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5, 84쪽.
224) 시볼트 지음 · 유상희 역, 『시볼트의 조선견문기』, 박영사, 1987, 50쪽.
225) 피에르 엠마뉘엘 후, 앞의 논문, 226쪽.
226) 강선주, 앞의 논문, 2008, 246~247쪽.
227) 송양섭, 「효종의 북벌 구상과 군비증강책」, 『한국인물사연구』 7, 한국인물사연구회, 2007, 170~171쪽.
228) 송양섭, 위의 논문, 2007, 172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충하였다. 효종은 상무적 기질이 강했고 8년간(1637~1645)의 인질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명과의 전투에 참여하면서 중국에 대한 군사, 지형, 도로 등 다양한 정보를 갖출 수 있었을 것이다.[229]

벨테브레이나 하멜 일행을 본국으로 보내지 않고 훈련도감에 배속시켜 활동하게 하거나 청에게 그들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여 남한산성에 머무르게 한 것, 강진 전라병영으로의 유배지 선택은 바로 북벌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효종은 북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에서 온 표착인 벨테브레이와 하멜 등을 이용하였다."고 서술한다면 전체적으로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며 조선 시대 서양인의 활동을 연결시킬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역사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효종은 하멜 일행을 직접 서울에서 만났고 호의를 베풀었으며 청나라 사신을 통한 탈출 사건 이후 사형을 시키라는 신하들의 말을 무시하고 유배를 결정하였다.[230] 이러한 결정은 효종이 이들을 표류해 온 이국인으로 불쌍히 여겨 목숨은 살려준 것이다. 또한 유배 생활 동안 이들의 수당은 모두 임금 개인의 수입에서 지급[231]된 것으로 보아 효종과 조선 정부는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교과서가 서양 문물의 도입과 과학 기술의 발달 측면에서 화포(홍이포)의 제작법과 조작법, 조총 제작법 등을 알리는데 벨테브레이는 대부분 언급하였지만 하멜 일행은 단지 표류한 사실만을 서술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어린 선원이 많았고 청나라 사신을 통한 탈출 기도 사건 이후에 감시와 유배 생활로 인하여 조선의 병기 개발 과정에 하멜 일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하멜보고서』에는 훈련도감에서 왕의 호위 부대로 임명되었다고 서술되어 있으며, 강준식의 책과 신동규의 논문에서 기술 개발 과정에 참여는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하멜은 이전에 포수로 활약한 적이 있으며[232] 배에는 서양식 대포

229) 송양섭, 앞의 논문, 2007, 176쪽.
230) 효종은 일행의 처지를 적극 옹호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8년간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던 외국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지명숙, 앞의 논문, 65~66쪽. ; 강준식, 앞의 책, 66쪽.
231) 유동익, 앞의 책, 75쪽.
232) 채바다, 앞의 논문, 132쪽.

가 있었다. 화포를 잘 다루었기 때문에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화승총으로 군사 훈련을 하였고 일행 중에는 포수, 항해사, 조타수, 갑판원, 서기 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의 서양 기술과 문물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신무기를 제작하던 훈련도감에서 조총을 만들 때 소극적인 참여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17세기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펴면서 우연히 만나게 된 하멜 일행의 서양 기술과 문화를 흡수하여 발전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조선 스스로 세계사에 편입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이다. 신복룡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들을 이용하여 총포술이나 해양술을 익히지 못하였고, 주자학적 세계관에 눈이 어두워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233] 권인혁은 하멜 일행 역시 서양 선교사들처럼 조선인들에게 구체적인 서양 지식을 가져다주지는 못하였다고 하였다.[234] 또한 교과서에는 일본은 조선과는 다르게 표착인을 이용하여 조선보다 먼저 서양 문물 수입에 적극적이었다고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235]

이 점에 대해 당시 우연히 표착한 네덜란드인들과의 만남으로 조선의 정책이 하루 아침에 개방 정책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하는 것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청과 일본을 둘러싼 대외 정세 속에서 조선은 어쩔 수 없이 서양인에 대한 정책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하는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선교사들이 16세기 이후부터 꾸준히 탐색과 준비를 하면서 19세기에 이르러 동아시아로 활발히 진출한 것과는 다른 만남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는

233) 신복룡, 『신복룡 교수의 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 풀빛, 2002, 24쪽.
234) 권인혁, 앞의 논문, 18쪽.
235) 일본은 조선처럼 표착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용하여 조선보다 먼저 서양 문물 수입에 적극적이었다. 윌리엄 애덤스라는 영국 출신의 네덜란드 항해사가 배에 수로 안내자로 탔다가 일본에 표착하였다. 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외교 고문을 지내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막부 관료들에게 기하학, 수학, 항해술 등 서양 지식을 가르쳤으며, 영국식 선박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 후 귀화하여 '미우라 안진'이라는 일본 이름을 쓰면서 일본 여인과 결혼하였으며, 막부로부터 영지까지 받았다. 또한, 칼을 허리에 찰 수 있도록 허락받아 유럽인 최초의 사무라이가 되었다. 결국 일본은 애덤스 일행의 요구를 받아 들여 네덜란드 학문을 들여왔다. 주진오 외 13명, 중학교 『역사』, 천재교육, 2013, 149쪽.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유럽 중심의 세계사 이해에서 벗어나서 '독자적 문명을 가진 지역의 역사'로 이해할 때 동아시아와 그 밖의 다른 지역과의 상호 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36]

따라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조선의 입장에서 표류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떠해야 했을지 학생들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탐구 활동이 있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주제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하기 힘들고 고등학교『한국사』,『동아시아사』등에서 탐구 활동을 통해 단계별 질문으로 구성한다면 학생들의 사고력, 상상력, 판단력을 키워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교과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서양과 조선의 만남이라는 대외관계사 측면을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읽기자료>의 제목을 '서양과 조선의 만남'으로 하면서 서양인인 하멜 일행이 조선에 왔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만남'이란 보다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사 교과서는 고립된 역사로만 정리하지 말고 이웃나라와의 관련성과 세계사의 흐름을 반영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기에 국내·외에서 비슷하게 일어난 사건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237] 조선 사회를 세계사의 변화 추이 속에서 살펴보고 전지구적 변화의 흐름 속에 있었고, 고립된 일국사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서양과 동양을 同時代史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238]

먼저 동아시아 은 교역 체제를 통해 중국·일본·조선의 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세기 이후 은은 지역 간 화폐, 즉 국제 무역의 결제 수단 역할을 하였는데,[239] 세계 최대 은 수입국인 중국과 아시아 최대 은

236) 유용태, 「다원적 세계사와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김한종 외, 책과 함께, 2005, 338쪽.
237) 천은수,『국사와 세계사 교육의 통합 방안 모색』,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2쪽.
238) 김백철, 「조선시대 역사상과 공시성의 재검토-14~18세기 한국사 발전모델의 모색」, 『한국사상사학』44, 한국사상사학회, 2013, 286쪽.
239) 권내현,「동아시아 은 교역과 조선」,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미야지마 히로시·배항섭 엮음, 너머북스, 2015, 150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수출국인 일본 사이에 위치했던 조선은 은의 국가 간 이동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240] 17~18세기 조선은 한 · 중 · 일 삼각 무역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으며, 일본에서 은을 수입하고 중국에서 비단을 들여와 재수출해 이윤을 남겼다.[241] 17세기 말 조선과 쓰시마의 교역은 나가사키의 교역과 물량적으로 비교해도 더 적지 않았다.[242] 『하멜보고서』의 '조선국 기술'에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거상들이 은을 사용했고 일본과의 담배 수입 과정에서 은을 지불하였으며 은화가 일본의 것과 같다고 서술하고 있다.[243]

다음으로 하멜 일행과의 만남은 17세기 유럽과 아시아 무역을 주도적으로 이끈 네덜란드 동인도연합회사(VOC)와의 만남이었음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VOC는 바타비아에 거점을 설치하고, 유럽으로 귀국하는 중간기착지이자 동아시아 역내의 무역[據點貿易]에도 관여하였다. VOC의 무역은 동남아시아 거점에 도착한 배들이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인근 해역을 벗어나 보다 동쪽으로 항해를 하였다.[244] 여기서 VOC와 일본 나가사키의 데지마 무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만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해 도중 하멜이 표류하였음을 연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당시 VOC는 페르시아, 샴, 일본, 한국에 보세창고(entrepôts)와 상관(factoreries) 네트워크를 두고 있었는데,[245] 1609년(광해군 1)과 1637년(인조 5) 히라토(平戶)의 네덜란드 상관이 조선과의 무역을 기도하였다는 사실과 1668년(현종 9) 네덜란드에서 코레아 호를 건조했다는 사실도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도의 결말은 일본은 조선 무역 독점을 위해 네덜란드의 조선 무역 개입을 허락하지 않았고, 네덜란드 역시 무역국으로서 이득이 일본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더 이상의 교류는 없었으며, 조선 역시 세계 정세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도 지적할 수

240) 권내현, 앞의 논문, 165쪽.
241) 존 던컨,「한국사 연구자의 딜레마」,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미야지마 히로시 · 배항섭 엮음, 너머북스, 2015, 121쪽 재인용.
242) 프랑수아 지푸루 지음 · 노영순 옮김, 앞의 책, 148쪽.
243) 유동익, 앞의 책, 69~71쪽.
244) 김유정, 『17세기 일본 도자의 등장과 무역 시장 변동의 동학-기술과 문화 전파의 국제정치경제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85~88쪽.
245) 프랑수아 지푸루 지음 · 노영순 옮김, 앞의 책, 189쪽.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탐구 문제로 제시하거나 앞에서 언급했던 조선의 쇄국 정책의 한계와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하멜 일행의 본국 송환 과정에서 나타난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15 개정 교육과정 천재교육『동아시아사』104쪽에서는 <읽기자료-동아시아 사람들> '서구 문물을 전한 유럽인들'(벨테브레이만 서술)을 제시하고 바로 옆페이지인 105쪽 <핵심탐구>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창구' 에서 '에도시대 나가사키 데지마의 네덜란드 상관'을 다루었다. Ⅲ장에서도 지적했듯이 여기서 벨테브레이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멜 자료를 넣어서 간단한 생각해보기 질문이나 탐구 문제를 제시한다면 조선, 일본, 네덜란드 3국의 외교 관계와 무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사고력 및 탐구력을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미래엔『동아시아사』101쪽 <주제 탐구>에서 '홍어 장수 문순득의 동아시아 견문'도 눈에 띈다. 문순득은 18~19세기에 살았던 인물로 류큐로 표류하여 필리핀, 마카오, 난징, 베이징을 거쳐 3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 지역을 돌면서 문순득이 보았던 서양인들의 동아시아 진출 배경을 생각해 보고, 가상의 견문록을 써 보도록 탐구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17세기 하멜 일행의 조선에서의 이동 경로와 생활 모습 및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멜보고서』의 선풍적 인기 몰이를 한 과정은 문순득의 예보다 훨씬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하멜에 대한 기억과 기념에 관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 365년 전의 역사인데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에는 하멜의 발자취가 남아 있으며, 제주도, 강진, 여수에는 이방인이었던 하멜에 대한 전시관, 기념관,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칫 그 역사의 중요성이나 교과서 서술 비중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예산 투입과 홍보 전략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멜 일행이 과거에 살았던 역사가 숨쉬고 유적이 남아 있는 역사적 현장에서 그들이 남기고 간 역사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성을 기념하려는 노력에 대해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좀 더 내실화를 기하고 실용적인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면 역사교육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역사교육은 문화 콘텐츠 발굴에 고심하고 있으며 교과서 안에 서술된 딱딱하고 건조한 역사가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체험학습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역사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과 박물관은 책이나 강의를 통해 평면적으로 익힌 역사 지식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으며, 학교와는 다른 인지적, 정의적 자극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역사 지식을 확장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246] 또한 박물관의 역사 전시와 교육은 특정한 역사 내러티브가 깔려 있으며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역사 내러티브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역사 수업을 계획할 수 있다.[247]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왕조 중심, 중요 인물에 대한 역사 외에도 지역사와 민중의 생활과 역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금 하멜과 관련된 기념관이나 흔적들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하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 학습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 활동을 운영하여 학교에서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행평가 과제로 제시한다면 그 예시로 첫째, 하멜 일행의 조선 체류 기간 동안 이동 경로를 따라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작성해 보라는 과제를 낼 수 있다. 둘째, 제주도, 강진, 여수 지역 학생들에게는 전시관, 기념관, 기념비 등을 탐방하면서 미리 배포한 학습지를 완성해서 제출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방학 과제로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가 잘 되어 있는 전시관도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공부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교과서 서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언급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고에서 기존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바로 학교 급별, 교과목

246) 강선주, 「역사교육과 박물관 역사 전시의 만남」, 『역사교육연구』 16, 한국역사교육학회, 2012, 11쪽.
247) 강선주, 위의 논문, 2012, 18~24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별 서술의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의 계열성 차원에서의 구성 방법이다. 교육과정 구성에서 계열화 논의 중에는 내용 구성의 系列化가 있다. 이 논의는 주로 한국사를 대상으로 전개되었는데, 한국사 교육은 범위와 깊이를 달리한 채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되풀이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계열화 논의는 주로 어떻게 하면 초 · 중 ·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의 차이를 둘 것인가에 모아졌다.[248]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1 역사 교육과정 개정 정책연구위원회는 초등학교는 통사 체제를 유지하되 내용을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쉽게 구성하고, 중학교는 정치사와 문화사를 중심으로 한 통사로 하며, 고등학교는 사회경제사, 사상사, 대외 관계사를 중심으로 하는 통사로 구성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 안에 따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이 이루어졌으며, 교과서 집필에도 반영되었다.[249]

이러한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계열화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5 개정 역사교육과정 개발진들이 제시한 한국사 교육의 학교 급별 특징은 초등학교는 아동의 발달 단계 및 흥미를 고려한 쉽고 재미있는 역사 내용으로, 중학교는 중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꼭 알아야 할 주제(토픽) 중심으로 구성하고, 고등학교는 정치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경제 · 사회 · 문화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250]

그러므로 계열성 차원에서 학교 급별 '하멜 관련' 서술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열화란 선행의 내용을 기초로 후속 내용을 전개하되, 점차적으로 내용이 확대, 심화,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의 학습과 연결되면서 아울러 차별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251] 본고에서는 한국사 교육 내용 계열화의 여러 방법 중에서 '주제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방법'

248) 이병희, 앞의 논문, 102쪽.
249) 김한종, 「교육과정 구성 논리로 본 2015 개정역사교육과정의 쟁점」, 『역사교육연구』 23, 한국역사교육학회, 2015, 24~25쪽.
250) 진재관 외,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 2015, 14쪽 ; 김한종, 위의 논문, 2015, 26쪽.
251) 이병희, 앞의 논문, 103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을 선택하였다.[252]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다루더라도 단순히 더 많은 사실을 추가하는 횡적인 확대가 아니라 접근 방식, 개념, 주안점에서 차이를 두어[253] 하멜 관련 교과서 서술 내용을 <표17>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동아시아사 교과서 서술 내용을 <표18>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표17> 계열성에 근거한 하멜 관련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 서술 내용 제안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 하멜의 제주도 표착 이야기 • 서양 문물과 수용에서 과학기술 전파(조총, 서양식 대포(홍이포)) • 조선인의 서양인에 대한 인식 확대 • 조선을 유럽에 알린 최초의 보고서인『하멜보고서』	• 조선을 유럽에 알린 최초의 보고서인『하멜보고서』 •『하멜표류기』와『하멜보고서』의 차이 •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동아시아 진출 시기 일본과의 무역 과정에서 발생한 하멜의 표류 • 효종의 북벌 정책과 벨테브레이와 하멜의 등용 •『하멜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이용하여 17세기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 대외관계사 파악하기 • 하멜의 조선 체류시 이동경로와 생활 모습 파악하기 • 하멜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과 조선인들의 서양인에 대한 인식 파악하기 • 조선의 대외 정책의 한계(쇄국 정책)와 외국인 정책 • 조선의 표류민 송환 체제와 중국, 일본과의 관계 • 17세기에 쓰여진 『하멜보고서』의 내용과 19세기 개항기 외국인이 쓴 자료의 분석을 통해 본 조선인에 대한 인식과 서술 비교

<표18> 하멜 관련 『동아시아사』 교과서 서술 내용 제안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 조선을 유럽에 알린 최초의 보고서인 『하멜보고서』 •『하멜표류기』와『하멜보고서』의 차이 •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동아시아 진출 시기 일본과의 무역 과정에서 발생한 하멜의 표류 • 17세기 네덜란드와 일본의 무역 내용, 네덜란드의 조선 무역 기도를 방해한 일본 • 일본의 나가사키(데지마) 무역과 난학의 발전 • 하멜의 심문을 통해 본 일본의 조선 정보 획득 방법 • 청, 일본의 대외 관계와 무역 전쟁 • 청, 조선, 일본의 해금(쇄국) 정책 • 조선의 표류민 송환체제와 중국, 일본과의 관계 • 동아시아 은 교역 체제를 통해 본 중국 · 일본 · 조선의 무역

252) 이병희, 앞의 논문, 128~130쪽. 국사교육 내용을 계열화하는 방안으로 ① 시대 순으로 배열하여 가르치는 방법, ② 주제 · 분야를 달리하는 방법, ③ 주제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방법, ④ 내용과 서술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 ⑤ 세계사와 관련시키는 방법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253) 김한종, 앞의 논문, 2005, 113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이처럼 교과서 내용 조직의 계열화가 이루어진다면, 학교 급별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교 급별 특성을 살릴 수업까지도 변화를 시켜 역사 수업 계열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역사 수업의 계열화의 핵심적 부분은 학습 활동이다. 특히 학습자의 역사 이해나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학습 활동은 수업 계열화에서 중요하다.[254]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2019년에 검정을 하게 될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에 대한 서술 제안을 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과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역사과 핵심(교과) 역량은 ① 역사 사실 이해, ②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③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④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⑤ 정체성과 상호존중이 있다. 특히, 정체성과 상호 존중은 우리 역사와 세계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오늘날 요구되는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순한 지식 전달 및 암기형 수업에서 벗어나야 하며 학습량의 적정화를 제시하였다.[255] 구체적 목표 중에서 다양한 문화 간 소통의 역사, 세계사와의 상호 관련성이 있는 내용은 '라. 현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역사적 연원과 세계사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학습자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27일 개정된 고등학교『한국사』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중에서 조선 시대와 관련해서는 <표19>와 같이 변화하였다. 특이할만한 변화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주제와 소주제로 나누고 조선에 대한 내용은 '조선 시대 세계관의 변화'와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 화폐 경제' 2가지만 제시한 것이다.

254) 방지원, 앞의 논문, 11~22쪽.
255) 진재관 외, 앞의 논문, 11~13쪽.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한국사)』,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별책4](교육부고시 제2015-74호의 일부 개정), 2018.7.27., 164~165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표19> 고등학교 『한국사』 2011, 2015 개정 교육과정
'조선 시대' 내용 체계 비교

2011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2018.7)	
영역	내용 요소		대주제	소주제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 조선의 신분제와 양반문화 • 조선의 대외 관계와 양난의 극복 • 조선 후기 정치 변동과 제도 개편 • 조선 후기의 사회 · 경제적 변동 • 조선 후기 사회 개혁론의 등장 • 서민 문화의 전개와 영향	→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 조선 시대 세계관의 변화** **○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 화폐 경제**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과 학습 요소 중에서 조선 시대와 관련해서는 <표20>과 같이 제시되었다.

<표20> 고등학교 『한국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조선 시대' 성취기준과 학습요소

성취 기준	학습 요소
[10한사01-05] 조선 시대 세계관의 변화를 국내 정치 운영과 국제 질서의 변동 속에서 탐구한다.	**○ 조선 시대 세계관의 변화** 사대교린, 정치 운영의 변화, 왜란과 호란, 북벌론과 북학론
[10한사01-06] 조선 시대 신분의 구성과 특성을 살펴보고, 양난 이후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신분제에 변동이 나타났음을 이해한다.	**○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 화폐 경제** 양천제와 4신분제, 향촌 지배 체제, 농업, 상공업, 농민층 분화, 농민 봉기

주목할 것은 기존에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라는 큰 제목에서 '조선 시대 세계관의 변화'라는 낯선 제목을 달았다는 것이다. 조선을 다양한 대외 관계와 교류가 있었던 역동적인 시대였으며 근대 개항기와 연결시키기 위한 제목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동아시아사』, 『세계사』 교육과도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하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에 표착하여 낯선 이방인으로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하멜에 관하여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 역사교과서 서술 분석과 학생들의 인식 분석을 토대로 교과서 서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다.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하멜의 조선 체류와 『하멜보고서』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하멜의 조선 체류는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동아시아 진출 과정에서 일본과의 무역을 위해 항해하던 선박이 좌초되면서 제주도에 표착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동아시아는 명 · 청 교체로 인한 혼란을 맞이하였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까지도 충격을 주면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조선은 청과 일본의 간섭과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효종은 청에 대한 복수를 위해 북벌을 추진하였다. 표착한 하멜 일행은 북벌 정책의 일환으로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그들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다. 조선에 먼저 온 벨테브레이의 도움을 받았으며, 조선 정부는 하멜 일행에게 직업, 급료, 식량, 의복, 집 등을 주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우해 주었다. 하멜 일행 역시 조선어를 익히며 일반 백성들과의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조선의 사회와 문화에 적응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행 중 일부가 청나라 사신을 통한 탈출을 시도하면서 강진으로 유배 생활을 가게 되었고 여기서 조선 사회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다. 호의적인 지방관도 있었지만 괴롭히던 지방관으로 인해 먹을 것을 구하고 강제 노역에 종사하기도 하면서 힘들어 했다. 효종~현종 연간에 계속된 자연 재해로 인해 이들 역시 고통을 당하였고 여수, 남원, 순천 등으로 분산 배치되어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3년 뒤에 여수에서 하멜을 비롯한 8명이 탈출하여 13년 28일간의 체류 생활을 마쳤다. 그들은 일본의 고토섬에 도착하고 나가사키로 이송되어 심문을 받았다. 데지마의 네덜란드 상관에서 생활하다가 1년 뒤에 본국으로 송환되었고 조선에 잔류한 7명에 대해서도 일본이 주도하여 송환 협상이 진행되면서 총 15명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이 네덜란드로 귀환하였다. 하멜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하멜보고서』를 썼는데, 이것이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다양한 언어의 판본으로 출판되었고 유럽인들의 조선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하였다. 하멜은 조선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최초의 서양인이 되었으며『하멜보고서』는 17세기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잘 알 수 있도록 조선을 서양에 최초로 소개한 책이 되었다. 현재 제주도, 강진, 여수에는 전시관과 기념비가 있어 하멜을 기억하고 있다.

Ⅲ장에서는 현행 역사교과서를 분석하였다. 17세기 중엽 하멜의 '조선 체류'와 관련된 서술은 중학교『역사』교과서 9종 중에서 3종에만, 고등학교『한국사』 교과서 8종 중에서 2종에만 언급되어 있다. 반면에 고등학교『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3종 중에서 3종,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4종 중에서 3종에 언급되어 있다. 중학교『역사』와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에는 그 종수에 비해 서술된 교과서의 수가 적으며, 특히『한국사』교과서는 채택률이 많은 교과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배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하멜에 대한 서술 내용은 서양과 조선의 만남으로 조선에 표착한 이야기, 서양 문물의 수용과 과학 기술의 전파(벨테브레이와 연결), 조선을 서양에 알린 (최초의) 표류기(보고서),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와 조총 제조(벨테브레이와 연결) 등이다. 그러나 중학교『역사』, 고등학교『한국사』, 고등학교『동아시아사』는 학교 급별, 과목별 특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준과 비슷한 내용이 서술되어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동아시아사』교과서 중에는 2011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서술한 내용이 똑같아 저자들의 내용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멜에 대한 역사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역사 의식에는 연령별로 발달 단계[256]가 있

256) 역사의식 발달 단계에서 중학교는 시대의식(시대관련의식, 시대구조의식) → 고등학교는 발전의식이라고 하였다. 발전의식에는 시대구조와 시대관련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역사적 사상의 발전적 파악이 가능하다. 양호환 외, 『역사 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1999, 350쪽.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지만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학교 급별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가 근무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어려서부터 이루어진 학습 결손으로 인해 학생들의 역사 이해 수준과 관심은 너무 낮다. 그리고 역사 지식 획득 방법이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실리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입시와 직결되지 않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시도할 수 있지만 수업에 집중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하멜 관련 내용을 ICT 활용과 역사신문 만들기 수업을 통해 흥미와 관심을 제고하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학력이 낮거나 창의력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역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 수업의 목표는 입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사의 연구와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끊임없는 자기 연찬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제시한 수업 연구는 일반 학교에서 훨씬 더 유용한 결과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되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Ⅴ장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교과서 서술의 개선 방향을 5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하멜보고서』가 조선에 직접 체류한 서양인이 유럽에 조선을 알린 최초의 보고서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하멜보고서』에 나타난 하멜이 조선인들을 바라본 인식 그리고 조선인들이 하멜 일행을 바라본 인식에 대해 사료 제시를 통해 서술할 필요가 있다. 조선에 대해 긍정적인 면도 서술되었으나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다면 비교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효종의 북벌 정책과 관련해서 쓸 필요가 있다. 즉, “효종은 북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에서 온 표착인 벨테브레이와 하멜 등을 이용하였다.” 라고 서술한다면 전체적으로 맥락적 이해가 가능한 서술이 되어 학생들의 역사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교과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선과 서양의 만남이라는 대외 관계를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강조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동아시아 은 교역 체제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으며 하멜 일행의 표착은 네덜란드 동인도연합회사(VOC)와 나가사키의 데지마 무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바타비아에서 대만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항해 도중 발생하였음을 연결시켜야 한다. 다섯째,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하멜에 대한 기억과 기념에 관하여 서술한다면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선점들은 단순히 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진, 삽화, 지도 등을 함께 넣어서 표현의 다양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정된 교과서 지면 안에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을 쓰더라도 문장 속에 들어가야 할 내용 요소로서 위에 제시된 것들이 포함되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서술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편, 내용 구성은 '계열성' 차원에서 교과서에 싣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기존 교과서나 역사 교육의 문제점이 바로 학교 급별, 교과목별 서술의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주제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방법'을 이용하여 내용 구성을 제안하였다. 중학교 『역사』에서는 흥미와 단순한 사실을 가르치면서도 『하멜보고서』의 의의를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하멜보고서』에 나온 내용과 논란이 있는 내용들을 사료 제시와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한다면 사고력과 판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에서는 새롭게 연구된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본국 송환 과정에서 막부의 개입과 조선 무역의 방해를 연결하거나 동아시아의 은 교역 체제, 네덜란드와 일본의 데지마 무역을 설명하면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한국사를 교육하면서 세계사와의 만남은 더욱 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단원별로 내용을 엮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한국사와 세계사와의 심도 있는 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16~17세기 항해의 시대에 조선은 쇄국 정책이었지만 그 안에서 부분적인 서양과의 만남이 있었고 대외 인식이 있었다. 이후 2세기에 걸친 공백기가 있었으나 이것을 단순히 지배층의 세계 인식 부족과 무능함으로 치부하기에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유럽 중심주의로 바라보는 시각 역시 이제는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 항해와 교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사는 이러한 역사의 연속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역사 학습은 지역 사회와 학교와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좀 더 실용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에 관심을 두고 365년 전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오늘날 다문화 시대에 우리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서양인에 대한 교육이 낯설지 않도록 교과서에서부터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지식전달, 암기식 서술에서 벗어나서 사료제시, 탐구과제 등 다양한 자료와 형태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서술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업의 개선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을 최초로 서양에 알렸던 하멜에 대한 인물 학습, 사료 학습 등이 이루어지면서 맥락을 통한 역사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다양한 형태로 수업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검정교과서를 만들 때, 저자들은 교수나 현직 교사들이 대부분이며 교육과정과 편찬지침을 보고 집필하지만, 내용 책임은 온전히 저자들의 몫이다.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언급되는 이야기이지만, 역사 과목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설명, 학계의 논쟁이 있는 부분 언급, 유적과 유물 발굴로 인한 내용 수정 등에 대한 자료집이 있어야 하며 매년 업데이트해서 교과서 내용이 사실 확인 면에서 가장 정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작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국사편찬위원회나 각종 학회, 연구회 등에서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연결되어 역사 교과서의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구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계열성에 근거한 『역사』와 『한국사』 그리고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내용 제안 역시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역사 교과서의 변화를 통해 역사 교육의 변화 발전을 기대해 본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Ⅶ. 참고 문헌

1. 교과서 및 교육과정

이문기 외 19명, 중학교 『역사』, 동아출판, 2013.

조한욱 외 10명, 중학교 『역사』, 비상교육, 2013.

주진오 외 13명, 중학교 『역사』, 천재교육, 2013.

김덕수 외 13명, 중학교 『역사』, 천재교과서, 2013.

양호환 외 7명, 중학교 『역사』, ㈜교학사, 2013.

김형종 외 12명, 중학교 『역사』, ㈜금성출판사, 2013.

정선영 외 8명, 중학교 『역사』, ㈜미래엔, 2013.

한철호 외 11명, 중학교 『역사』, 좋은책 신사고, 2013.

정재정 외 10명, 중학교 『역사』, ㈜지학사, 2013.

도면회 외 7명, 고등학교『한국사』, 비상교육, 2014.

한철호 외 7명, 고등학교『한국사』, ㈜미래엔, 2014.

권희영 외 5명, 고등학교『한국사』, ㈜교학사, 2014.

김종수 외 7명, 고등학교『한국사』, ㈜금성출판사, 2014.

왕현종 외 6명, 고등학교『한국사』, 동아출판, 2014.

주진오 외 8명, 고등학교『한국사』, 천재교육, 2014.

정재정 외 7명, 고등학교『한국사』, ㈜지학사, 2014.

최준채 외 4명, 고등학교『한국사』, ㈜리베르스쿨, 2014.

황진상 외 5명, 고등학교『동아시아사』, 비상교육, 2014.

안병우 외 8명, 고등학교『동아시아사』, 천재교육, 2014.

손승철 외 6명, 고등학교『동아시아사』, ㈜교학사, 2014.

이병인 외 6명, 고등학교『동아시아사』, 비상교육, 2018.

안병우 외 8명, 고등학교『동아시아사』, 천재교육, 2018.

최현삼 외 5명, 고등학교『동아시아사』, 금성출판사, 2018.

김태웅 외 6명, 고등학교『동아시아사』, 미래엔, 2018.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ice.re.kr)
교육과학기술부,『사회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4호 [별책7], 2012.
교육부,『고등학교 교육과정(한국사)』,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별책4] (교육부고시 제2015-74호의 일부 개정), 2018.7.27.

2. 사료

『비변사등록』,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승정원일기』,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3. 단행본

강준식,『다시 읽는 하멜표류기』, 웅진지식하우스, 2007.
국립제주박물관 편,『항해와 표류의 역사』, 솔, 2003.
김문식,『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김종수,『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훈련도감의 성립과 사회 변동』, 도서출판 혜안, 2003.
김태진,『하멜일지 그리고 조선국에 관한 기술 1653~1666』,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문중양 · 염정섭 · 오상학 · 이경구 · 한명기,『17세기-대동의 길』, 민음사, 2014.
박기현,『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 역사의 아침, 2007.
박천홍,『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 현실문화, 2008.
박철,『예수회 신부 세스뻬데스 : 한국 방문 최초 서구인』,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7.
시볼트 지음 · 유상희 역,『시볼트의 조선견문기』, 박영사, 1987.
신복룡,『신복룡 교수의 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 풀빛, 2002.
양호환 외,『역사 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1999.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오인동,『꼬레아, 코리아 : 서양인이 부른 우리나라 국호의 역사』, 책과 함께, 2008.
유동익,『하멜보고서』, 중앙 M&B 출판(주), 2003.
정성화,『서양의 한국 : 이미지의 탄생과 변화』,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5.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기획, 『한국사 속의 다문화』, 도서출판 선인, 2016.
지명숙 · 왈라벤,『보물섬은 어디에(네덜란드 공문서를 통해 본 한국과의 교류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차문섭,『조선시대 군제 연구』, 단대출판부, 1995.
최두환 역,『새롭게 고쳐 쓴 신 하멜표류기』, 우석출판사, 2003.
프랑수아 지푸루 지음 · 노영순 옮김,『아시아 지중해-16~21세기 아시아 해항도시와 네트워크』, 선인, 2014.
W.E.그리피스 지음 · 신복룡 역주,『은자의 나라 한국』, 집문당, 1999.

4. 학술지 및 단행본 논문

강선주,「역사 수업의 방법」,『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최상훈 외, 책과 함께, 2008.
_____,「역사교육과 박물관 역사 전시의 만남」, 『역사교육연구』16, 한국역사교육학회, 2012.
구만옥,「16~17세기 조선 지식인의 서양 이해와 세계관의 변화」,『동방학지』12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구열회,「인조~숙종대 산성 중시와 邑治移設論의 전개」,『조선시대사학보』84, 조선시대사학회, 2018.
권내현,「동아시아 은 교역과 조선」,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미야지마 히로시 · 배항섭 엮음, 너머북스, 2015.
권영건,「조선조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 -쇄국주의 및 정책의 형성배경을 중심으로-」, 『안동대학 논문집』12, 1990.
권인혁,「17세기 조선의 대외인식과 하멜 표착」,『제주도사연구』8, 제주도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사연구회, 1999.
김기봉,「다문화 사회의 한국인 정체성과 한국사 다시 쓰기」,『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동녘, 2009.
김동전,「하멜의 제주표착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현재성」, 『동아시아연구논총』14,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3.
김문식,「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네덜란드 이해」,『사학지』39, 단국사학회, 2007.
김문자,「조선시대 나막신에 대한 연구-하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패션디자인저널』7-2,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2003.
김백철,「조선시대 역사상과 공시성의 재검토-14~18세기 한국사 발전모델의 모색」,『한국사상사학』44, 한국사상사학회, 2013.
김용태,「漂海錄의 전통에서 본 『海外聞見錄』의 위상과 가치」,『한국한문학연구』48, 한국한문학회, 2011.
김현덕,「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국제이해교육의 역할」,『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동녘, 2009.
김학준,「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제1회) : 개항 이전의 시기」, 『한국정치연구』18-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9.
김한종,「역사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역사 수업에 미치는 영향」, 『역사교육』89, 역사교육연구회, 2004.
_____,「역사교육 계열화를 위한 고등학교 국사교육 내용구성 방안」,『호서사학』40, 호서사학회, 2005.
_____,「역사교육의 교재」,『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최상훈 외, 책과 함께, 2008.
_____,「교육과정 구성 논리로 본 2015 개정역사교육과정의 쟁점」, 『역사교육연구』23, 한국역사교육학회, 2015.
레오나드 브루쉐,「만남과 발견 : 극동 아시아에서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활동」, 『동방학지』122,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문형진,「『하멜보고서』를 활용한 한국 법문화교육의 의미와 그 효용성」, 『역사문화연구』43, 한국외국어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2012.
박성순,「조선 후기 對 서양인식에 관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조선 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강만길 엮음, 창작과 비평사, 2000.
방원일,「하멜보고서의 한국 종교 서술에 관한 고찰」,『종교문화비평』18,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0.
방지원,「역사교육 계열화의 개념과 원리」,『역사교육연구』3, 한국역사교육 학회, 2006.
보데윈 왈라번,「하멜의 조선표류와 강진 생활이 함축하는 의미」,『다산과 현대』10,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7.
송양섭,「효종의 북벌 구상과 군비증강책」,『한국인물사연구』7, 한국인물사 연구회, 2007.
_____,「조선후기 강진병영의 지휘체계와 군수조달」,『역사학연구』52, 호남사학회, 2013.
신동규,「17세기 네덜란드의 조선무역기도에 관한 고찰」,『사학연구』55 · 56, 한국사학회, 1998.
_____,「네덜란드인 조선표착에 관한 재고찰 : 표착선 · 표착지 · 표착년을 중심으로」,『사학연구』 58 · 59, 한국사학회, 1999.
_____,「네덜란드인의 일본행 '도주사건'과 덕천막부의 대응」,『한일관계사 연구』14, 한일관계사학회, 2001.
_____,「근세 표류민의 송환유형과 '국제관계' : 조선과 일본의 제3국 경유 송환유형을 중심으로」,『강원사학』17 · 18, 강원대학교 사학회, 2002.
_____,「서양 이국인 표착과 근세 조선 · 네덜란드 · 일본의 국제 관계사」, 『하멜보고서』, 유동익, 중앙 M&B, 2003a.
_____,「하멜을 통해 본 조선 · 네덜란드 · 일본의 국제 관계」,『항해와 표류의 역사』, 국립제주박물관, 2003b.
_____,「훈련도감의 신식 무기 개발과 서양 이국인 등용정책」,『향토서울』 6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3c.

_____,「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의 조선 무역 시도와 조 · 일 근대화 문제」,『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대회』2003-9,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2003d.

_____,「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의 조선 무역시도와 조 · 일 근대화 문제」,『국제한국학연구』2,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2004.

_____,「"VOC"의 동북아시아 진출에 보이는 조선무역의 단점과 일본무역유지정책」, 『한일관계사연구』22, 한일관계사학회, 2005.

_____,「네덜란드 동인도연합회사의 동아시아 진출에 보이는 한국 · 일본관계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전북사학』30, 전북사학회, 2007a.

_____,「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아란타인조선강표착지의건'에 대한 고찰」,『대동문화연구』5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b.

오현기,「조선과 서양 사이의 문화 중개자들의 저작물에 나타난 조선인의 인상(印象)에 대한 연구-칼 귀츨라프 선교사의 기여를 중심으로-」,『대학과 선교』27, 2014.

원종민, 「『지영록』을 통해본 외국인 표류상황과 의사소통 과정」, 『중국연구』48,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0.

유용태, 「다원적 세계사와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김한종 외, 책과 함께, 2005.

이병희,「중 · 고등학교 국사교육 내용의 계열화」,『역사교육』76, 역사교육연구회, 2000.

이원택,「조선전기의 귀화와 그 성격」,『서울국제법연구』8-2, 서울국제법연구원, 2001.

이혜은,「세계지도에 나타난 조선과 제주」,『항해와 표류의 역사』, 국립제주박물관 편, 솔, 2003.

정성화,「하멜보고서의 서지적 해설」,『하멜보고서』, 유동익, 중앙 M&B 출판(주), 2003.

_____,「한국 관련 지식의 유럽적 기반과 내용-17세기 전반기 예수회 중국 선교사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대구사학』97, 대구사학회, 2009.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존 던컨,「한국사 연구자의 딜레마」,『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미야지마 히로시 · 배항섭 엮음, 너머북스, 2015.
주경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아시아 교역 : 세계화의 초기 단계」,『미국학』28,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05.
지명숙,「하멜 일행의 한국 체류, 적응 및 이해」,『동방학지』122,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진재관 외,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 2015.
채바다,「하멜(Hendrick Hamel) 표류기의 역사적 재조명과 표착지에 관한 연구」,『제주도사연구』7, 제주도사연구회, 1998.
피에르 엠마뉘엘 후, 「조선 架橋의 재발견 : 16-17세기 천주교 선교사의 조선 진출 전략에 대한 기초연구」,『연민학지』16, 연민학회, 2011.
한명기,「하멜 표류 무렵의 조선과 동아시아-당시 조청, 조일관계를 중심으로」,『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대회』2003-9,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2003.

5. 학위 논문

강주형,『강진 병영성 네덜란드 문화촌 설계-하멜 체류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경혜영,『17세기 조선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교육정책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김유정,『17세기 일본 도자의 등장과 무역 시장 변동의 동학-기술과 문화 전파의 국제정치경제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남택범,『2015년 개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과목의 교육과정 분석-2011년 개정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박웅,『한국과 세계의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구성한 고등학교 한국사 글쓰기 수업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박현진,『17~18세기 네덜란드와 조선의 상호 인식』, 동국대학교 대학원 역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여혜경,『다문화교육을 위한 역사교육 방안-한국사의 '대외관계 및 교류'를 중심으로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은선,『네덜란드인들이 조선 초기 선교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이지홍,『역사 교과서에 보이는 '귀화인'에 대한 서술과 인식 검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정희숙,『『하멜보고서』의 편집디자인-다르게 읽기를 제안하는 페이지의 시각적 형식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논문, 2017.
천은수,『국사와 세계사 교육의 통합 방안 모색』,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 기타 자료

강진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팜플렛
여수 하멜전시관 팜플렛

강진군청 홈페이지(gangjin.go.kr)
네덜란드 호르쿰 헨드릭 하멜 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hendrickhamelmuseum.nl/)
네이버(http://naver.com)

연합뉴스, 2003. 7. 31. / 2003. 9. 24. / 2017. 8. 16.

법무부,『출입국 · 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 2016.
통계청,『인구총조사』, 2000.

※ 별첨

< 수업 전 설문지 >

(1) 한국사 과목에 대한 인식 설문지 조사 결과 및 분석

1. 한국사 과목에 대해 어느 정도의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아주 재미있다.	5명	17%
② 재미있다.	10명	34%
③ 보통이다.	12명	41%
④ 재미없다.	1명	4%
⑤ 아주 재미없다.	1명	4%

2. 한국사는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매우 중요하다.	11명	39%
② 중요하다.	10명	34%
③ 보통이다.	6명	20%
④ 중요하지 않다.	2명	7%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0명	0%

3. 한국사 과목의 내용과 수업 활동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① 매우 쉽다.	1명	4%
② 쉽다.	4명	14%
③ 보통이다.	19명	65%
④ 어렵다.	5명	17%
⑤ 매우 어렵다.	0명	0%

4. 한국사 과목을 학습하는데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① 알아야 할 지식이 많다.	19명	65%
② 용어가 어려워 이해가 안 된다.	4명	14%
③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야 체계가 잡힌다.	0명	0%
④ 암기식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명	7%
⑤ 모르겠다.	4명	14%

5. 한국사 과목을 공부하면서 선호하는 수업 방식은?		
① 강의식 학습	3명	10%
② 학생 발표 중심 학습	1명	4%
③ ICT활용학습(동영상,PPT자료,인터넷)	19명	65%
④ 모둠별 학습	4명	14%
⑤ 기타	2명	7%

6. 한국사 내용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① 제도	0명	0%
② 사건	19명	66%
③ 인물	7명	24%
④ 사상, 종교	3명	10%
⑤ 대외관계사	0명	0%

7. 한국사 내용 중 가장 관심 있는 시대는 어디입니까?		
① 고대국가	5명	17%
② 고려	2명	7%
③ 조선	4명	14%
④ 개항기	1명	4%
⑤ 일제강점기	10명	34%
⑥ 대한민국	7명	24%

8. TV에서 방영되는 사극의 내용을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① 역사적 사실이다.	4명	14%
② 허구이다.	6명	21%
③ 진위 여부는 찾지 않는다.	10명	34%
④ 진위 여부를 스스로 찾아본다.	4명	14%
⑤ 선생님께 질문한다.	5명	17%

9. 수업 시간 외에 한국사 공부는 얼마나 합니까?		
① 전혀 안한다.	9명	31%
② 시험이 있을 때만 한다.	11명	38%
③ 수업이 있는 날만 한다.	8명	27%
④ 주말에 다른 과목과 함께 한다.	0명	0%
⑤ 매일 예습 복습을 한다.	1명	4%

10. 한국사에 대한 지식은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① 인터넷	5명	17%
② 수업시간	20명	68%
③ TV, 신문 등 매스컴	0명	0%
④ 박물관, 유적지 답사	1명	4%
⑤ 역사 소설 및 역사 관련 서적	2명	7%
⑥ 기타	1명	4%

(2) 한국사 속에서 활약했던 서양인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 결과 및 분석

11. 우리나라가 코레아(Corea)로 서양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① 고조선	0명	0%
② 삼국시대	1명	4%
③ 고려시대	12명	41%
④ 조선시대	7명	24%
⑤ 개항기	9명	31%

12. 우리나라에 서양인이 처음으로 표류해서 들어온 시기는 언제인가?		
① 고조선	2명	7%
② 삼국시대	5명	17%
③ 고려시대	4명	14%
④ 조선시대	13명	45%
⑤ 개항기	5명	17%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13. 우리나라에 표류했다가 귀화한 서양인은 누구인가?		
① 허황후	5명	17%
② 쌍기	1명	4%
③ 박연	8명	28%
④ 사야가	2명	7%
⑤ 하멜	13명	44%

14. 우리나라에 표류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서양인은 누구인가?		
① 허황후	7명	24%
② 쌍기	1명	4%
③ 박연	7명	24%
④ 사야가	5명	17%
⑤ 하멜	9명	31%

15. 조선시대에 전래되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최초의 서양 종교는 무엇인가?		
① 유교	4명	14%
② 불교	12명	42%
③ 개신교	3명	10%
④ 천주교	7명	24%
⑤ 이슬람교	3명	10%

16. 하멜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① 미국	10명	34%
② 독일	2명	7%
③ 영국	11명	38%
④ 프랑스	4명	14%
⑤ 네덜란드	2명	7%

17. 하멜은 우리나라에 언제 왔는가?		
① 고구려	2명	7%
② 신라	4명	14%
③ 고려	5명	17%
④ 조선	11명	38%
⑤ 개항기	7명	24%

18. 하멜이 처음 도착한 지역은 어디였나?		
① 서울(한성)	10명	35%
② 인천	8명	28%
③ 목포	6명	20%
④ 부산	3명	10%
⑤ 제주도	2명	7%

19. 하멜의 직업은 무엇이었나?		
① 교사	2명	7%
② 선원	3명	10%
③ 천주교 신부	17명	59%
④ 탐험가	5명	17%
⑤ 정치가	2명	7%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20. 하멜은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일을 하였나?		
① 외교 사절단	4명	14%
② 선교사	12명	41%
③ 훈련도감 소속 병사	2명	7%
④ 세계 지도 제작	7명	24%
⑤ 정부 관리	4명	14%

21. '하멜 표류기'를 들어보거나 읽어본 적이 있는가?		
① 들어보거나 읽어본 적이 전혀 없다.	16명	55%
② 들어보기는 했지만 읽어본 적은 없다.	6명	21%
③ 읽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자세히 모른다.	5명	17%
④ 읽어보았고 내용도 자세히 알고 있다.	2명	7%
⑤ 제일 좋아하는 책이다.	0명	0%

22. 하멜 관련 역사 유적지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가?(복수 응답 가능)		
① 강진군 전라병영성의 '하멜기념관'	0명	0%
② 여수의 '하멜전시관'	0명	0%
③ 제주도의 '하멜기념비'와 '하멜상선전시관'	0명	0%
④ 성남의 남한산성	1명	4%
⑤ 방문해 본 적이 전혀 없다.	28명	96%

23. 한국사 과목에서 활약했던 외국인(서양인)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① 있다.	14명	48%
② 없다.	4명	14%
③ 모르겠다.	11명	38%

24. (23번에서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만 답하시오.)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① 외국인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	2명	14%
② 한국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하였음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으므로	4명	29%
③ 외국인들이 한국의 역사 발전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4명	29%
④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결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으므로	3명	21%
⑤ 기타	1명	7%

25.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사 속에서 활약했던 외국인(서양인 포함)의 이름을 써 보자.

(사야가(1명), 맥아더장군(11명))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 수업 후 설문지 >

(3) 학생들의 '하멜' 및 외국인 학습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 결과 및 분석

1. 하멜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① 미국	0명	0%
② 독일	0명	0%
③ 영국	0명	0%
④ 프랑스	0명	0%
⑤ 네덜란드	29명	100%

2. 하멜은 우리나라에 언제 왔는가?		
① 고구려	0명	0%
② 신라	0명	0%
③ 고려	0명	0%
④ 조선	27명	93%
⑤ 개항기	2명	7%

3. 하멜이 온 시기는 언제인가?		
① 15세기	0명	0%
② 16세기	4명	13%
③ 17세기	23명	79%
④ 18세기	1명	4%
⑤ 19세기	1명	4%

4. 하멜이 처음 도착한 지역은 어디였나?		
① 서울(한성)	1명	4%
② 인천	1명	4%
③ 목포	0명	0%
④ 부산	0명	0%
⑤ 제주도	27명	92%

5. 하멜의 직업은 무엇이었나?		
① 교사	0명	0%
② 선원	24명	83%
③ 천주교 신부	3명	10%
④ 탐험가	2명	7%
⑤ 정치가	0명	0%

6. 하멜은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일을 하였나?		
① 외교 사절단	3명	10%
② 선교사	4명	14%
③ 훈련도감 소속 병사	21명	72%
④ 세계 지도 제작	1명	4%
⑤ 정부 관리	0명	0%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7. 하멜 당시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네덜란드는 동인도회사를 주축으로 동아시아에 활발하게 진출하였다.	4명	14%
② 병자호란 이후 청은 조선에 대한 간섭을 심화하였다.	1명	4%
③ 일본은 대마도를 통해 조선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다.	6명	20%
④ 표류민 송환 체제에 의해 하멜 일행은 중국을 통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13명	45%
⑤ 조선의 쇄국 정책과 일본의 방해로 조선과 네덜란드의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명	17%

8. 당신이 하멜과 같은 상황이나 처지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지 상상한다면?		
① 탈출한다.	17명	60%
② 조선에 적응하며 산다.	6명	20%
③ 조선에 귀화한다.	6명	20%

9. (8번에서 '①탈출한다'를 택한 학생만 답변) 탈출이 실패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끝까지 시도할 것이다.	14명	82%
② 끝까지 조선에 협조하지 않고 살 것이다.	0명	0%
③ 조선에 적응하면서 살 것이다.	0명	0%
④ 조선 정부에 협조하면서 박연처럼 귀화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 것이다.	2명	12%
⑤ 기타( )	1명	6%

10. 하멜은 13년28일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조선에서 살다가 결국은 8명이 탈출하였다. 탈출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복수 응답 2개 가능)		
① 고향이 너무도 그리워서	15명	42%
② 조선 정부가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아서	3명	8%
③ 지방관들이 가혹하게 다루어서	5명	14%
④ 조선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7명	19%
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었기 때문에	6명	17%
⑥ 기타( )	0명	0%

11. 당신이 조선 시대 사람이라면 하멜과 같은 서양인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한다면?		
① 모두 똑같은 사람이므로 관심없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4명	14%
② 신기해하면서도 조선말을 못하고 피부색이 다르므로 차별할 것이다.	2명	7%
③ 타국에 표류해 온 불쌍한 사람들이므로 그들을 배려할 것이다.	7명	24%
④ 신기해하면서 잘 대해 줄 것이다.	13명	45%
⑤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을 것이다.	3명	10%
⑥ 기타( )	0명	0%

12. '하멜표류기(하멜보고서)'를 읽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가?		
① 이미 읽었지만 자세히 읽고 싶다	1명	4%
② 읽고 싶다	14명	48%
③ 읽고 싶지 않다	14명	48%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13. (12번에서 '①번과 ②번'을 택한 학생만 답변) 읽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① 17세기 조선 중엽의 정치, 경제, 사회 모습에 대해 잘 알 수 있어서	5명	33%
② 17세기 조선의 대외관계를 잘 알 수 있어서	0명	0%
③ 서양인을 처음 본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어서	3명	20%
④ 조선인을 처음 본 서양인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어서	2명	13%
⑤ 조선을 유럽(서양)에 알린 최초의 보고서이므로	5명	33%
⑥ 기타( )	0명	0%

14. 하멜 관련 역사 유적지를 방문한다면 어느 곳을 가장 가보고 싶은가?		
① 강진군 전라병영성의 '하멜기념관'	6명	20%
② 여수의 '하멜전시관'	7명	24%
③ 성남의 남한산성	5명	17%
④ 제주도의 '하멜 일행 난파 희생자 위령비'	6명	20%
⑤ 제주도의 '하멜기념비'와 '하멜상선전시관'	5명	17%

15. 하멜 관련 공부를 한 후에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은?(복수 응답 2개 가능)		
① 조선에 표류했다가 탈출한 최초의 서양인이다.	9명	21%
② 조선에 13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서양인이다.	11명	26%
③ '하멜표류기(하멜보고서)'를 통해 조선을 서양에 알린 최초의 서양인이다.	11명	26%
④ 효종 때 북벌 정책과 연관되어 훈련도감에서 근무하며 조총 제작에 참여한 인물이다.	7명	17%
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러 곳에 하멜 관련 기념관이 있어 기억되고 있는 인물이다.	4명	10%

16. 한국사 속에서 활약했던 외국인(서양인)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① 있다.	14명	48%
② 없다.	3명	10%
③ 모르겠다.	12명	41%

17. (16번에서 '①있다'라고 대답한 학생만 답하시오.)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① 외국인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	4명	29%
② 한국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하였음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으므로	4명	29%
③ 외국인들이 한국의 역사 발전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4명	29%
④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결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으므로	2명	14%
⑤ 기타( )	0명	0%

18. 한국사 속에서 활약했던 박연, 하멜과 같은 외국인(서양인)에 대해 교과서에 서술할 필요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7명	24%
② 그렇다.	6명	20%
③ 보통이다.	13명	45%
④ 그렇지 않다.	2명	7%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명	4%

19. 다음에도 외국인에 대한 수업이 똑같은 방식(PPT, 동영상, 개별 및 모둠학습, 세계지도 활용)으로 진행된다면 좋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그렇다.	6명	21%
② 그렇다.	6명	21%
③ 보통이다.	15명	51%
④ 그렇지 않다.	2명	7%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0%

20. 19세기 개항 시기 인천 지역에서 활약한 외국인을 공부한다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그렇다.	5명	17%
② 그렇다.	8명	27%
③ 보통이다.	13명	45%
④ 그렇지 않다.	2명	7%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명	4%

21. 학교에서 외국인(서양인)에 대해 공부한다면 주변에서 외국인을 보았을 때 관심 있어 할 것인가?		
① 매우 그렇다.	4명	14%
② 그렇다.	6명	20%
③ 보통이다.	16명	55%
④ 그렇지 않다.	1명	4%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명	7%

< 수업 후 설문지(역사 신문 제작 후) >

(4) 하멜 신문 제작 수업 이후 설문 결과 및 분석

1. 이전에 역사 신문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① 있다.	12명	41%
② 없다.	17명	59%

2. 하멜에 대한 역사 신문 제작은 본인이 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13명	45%
② 그렇다.	10명	34%
③ 보통이다.	5명	17%
④ 그렇지 않다.	0명	0%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명	4%

3. 하멜에 대한 역사 신문 제작에 본인은 열심히 참여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	25명	86%
② 그렇다.	3명	10%
③ 보통이다.	1명	4%
④ 그렇지 않다.	0명	0%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0%

4. 역사 신문 제작은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19명	65%
② 그렇다.	5명	17%
③ 보통이다.	4명	14%
④ 그렇지 않다.	1명	4%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0%

5. 강의식 수업에 비해서 역사 신문 제작 수업은 더 흥미로웠는가?		
① 매우 그렇다.	15명	52%
② 그렇다.	6명	20%
③ 보통이다.	6명	20%
④ 그렇지 않다.	1명	4%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명	4%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